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확대 방안 연구: 성평등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손제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확대방안 연구
: 성평등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하 금 숙

발 행 일 : 2026. 08. 31.

발 행 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 소 :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동행관 3층

전 화 : 054-650-7900

홈 페이지 : <https://forwoman.or.kr>

디자인·인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 향상, 그러나 경북지역은 여전히 낮은 성평등 수준

- 양성평등한 사회는 남녀가 상호 존중함으로써 인권과 통합을 증진시키고, 젠더위계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여 안전을 강화하며, 의사결정 구조에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민주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킴. 2015년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 이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여성 차별’보다는 ‘양성의 평등’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간 전개되어 온 양성평등 제도 발전 및 실천 활동을 통해 많은 긍정적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견과 고정된 성역할 인식이 약화되어 기회와 과정, 결과가 공정해지고,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가정 차원에서는 부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동등한 의사결정과 가사·돌봄의 균형 있는 분담이 가능해지고, 자녀 양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으로 일·가정양립이 가능해지고 있음. 노동시장 내에서는 공정한 인사, 경력단절 감소, 성희롱·차별 방지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직원 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기업의 ESG·지속가능성이 개선되고 있음. 사회차원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성차별, 폭력 감소로 사회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은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성평등 의제 및 추진체계 강화 기초**

-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성평등 의제를 강화하였으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국정기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 변화가 예상됨.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설치 및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 등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4개 지역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사업과 2개 지역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로 운영하는 체계를 2027년부터 전국에 양성평등센터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2027년 지역성평등센터 설치 대응 운영 방향 및 세부과제 마련 필요**

- 2027년 지역성평등센터 설치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를 통해 향후 성평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연구절차	주요내용	연구방법
연구설계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
자료분석	·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 경북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성과 및 한계 · 타시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 분석	정책분석 사례조사
조사 및 분석	·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100명 의견조사 · AHP분석을 통한 우선 추진 영역 및 세부 사업 발굴	설문조사
운영 방향 및 세부사업 제안	·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안) 제안	-

II.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현황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발전’에서 ‘남녀평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수립을 시작으로 전환된 성평등 정책체계가 시작된 후 현재의 3차 기본계획(2023~2027)이 2023년에 수립되었음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축소, 여성정책 조정 논의 속에서 성평등보다 보편적 가족·돌봄정책이 강조되었는데,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구조적 차별은 많은 분야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전략 중 하나로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전략6)’을 제시하였으며,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국정 97)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국정 98)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이러한 국정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의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55건의 사업과 예산 115,314.5백만원을 수립함. 경북도 특화사업도 3건 포함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어린이집 인력지원, 여성안심거리조성사업임. 시행계획 중 성평등정책 주무부서인 도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정책지원사업과 성인지 정책 내실화 사업이 해당됨. 성평등정책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기존 추진중이던 성주류화제도 지원사업에서 성평등 실천사업으로 확장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성인지 정책 내실화 사업은 성인지예산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되었음. 이 두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예산은 48백만원~75백만원 범위 내 책정되었고, 해마다 약간의 예산 변동성이 있었으나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옴
- 22개 시군에서도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대체로 여성단체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단체교류행사, 시군 직원 성인지교육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간혹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있음. 그 외 여성일자리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그중 포항시의 양성평등전문요원 운영과 포항지역 남녀 고교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규모는 적으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타지역 대비 차별성이 있어 보이며, 구미시의 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은 공단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울릉군의 경우 지역사업체 고용주 성별임금격차 개선 캠페인을 추진은 매우 우수한 사업이며, 타지역과 차별성이 있었음
- 이처럼,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사업은 다양하지 못함. 특히, 시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경북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넓고 분산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어 왔음. 향후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성평등 추진 생태계 확장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군 단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 경북지역은 2019년 성평등가족부에서 공모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형태로 계속하여 운영해 옴. 사업영역은 크게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으로 분류되어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에는 141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경북의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지침 상 정해진 사업 범위내에서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였고, 양성평등교육사업의 경우 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도 7년 동안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면서 협소하게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어 보임.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대체로 여성 중심 주제와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최근 남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미흡한 실정임. 또한, 22개 시군 수요 기반 연계사업이 없고, 각종 지역단체나 유관기관 공모나 협력사업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임
- 사업유형별로 봤을 때, 양성평등교육사업은 대부분 보육·유치원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대상을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지역의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및 활동가를 매년 양성하였는데,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후속 프로그램이 홈커밍데이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 강사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향후 전문강사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이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으로는 알리오단을 구성하여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나 의제가 확산되고 도민에게 체감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사업방향

모색이 필요해 보임.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미디어, 홍보물,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역, 중소기업 일·생활균형문화 등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나 개선사항을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를 강화해야 함

- 타시도 5개소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 중 차별성 있는 사업은 거점형인 부산성평등센터의 경우 2023년에 실시한 공공영역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과 2025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어서 의미가 있어 보임. 또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구군별 성평등 공감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운영하게 한 것은 성평등사업에 기초자치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추진 기반 및 외연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였음
- 전북성평등센터는 부산에 이어 2022년 두 번째로 개소한 거점형 센터이며, 부산센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평등교육 및 문화 실천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며, 직장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및 이행점검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는 점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매년 양성평등 영화제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평등 관련 영화 상영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점이 타시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임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기관인 인천성평등센터는 성평등교육을 인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대전·세종성평등센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 과학·연구 분야 직장문화 점검과 공공의료기관 청년 간호사 대상 간담회 및 포럼을 추진한 점이 차별적이었음. 전남성평등센터는 일반 시민 성평등교육에서 특화하여 여성학실천대학-전남페미니즘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학 전문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점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주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었음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한계점 및 타시도 사업 사례를 통해 지역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기존의 협소한 정책 한계를 넘어 성평등 관점에서 시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Ⅳ.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 2027년 출범 예정인 성평등센터에서 추진할 성평등사업 영역 및 세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세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 우선순위 진단을 위해 AHP분석을 실시함. 전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추가로 참여그룹별, 성별로도 분석하였음
- **【성평등 환경 인식】** 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경북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 2.54점으로 나타나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구체적 문항에서는 ‘⑤경북은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이다’ 3.00점으로 타 문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⑧경북은 양성평등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2.91점), ‘⑥ 경북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2.58점), ‘④경북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취업하고,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2.41점), ‘③경북의 가족 내 문화는 성평등하다’(2.40점), ‘⑦경북은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2.38점), ‘① 경북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2.33점), ‘②경북은 성평등의식이 높다’(2.28점)의 순으로 나타남. 참여자 유형별로 봤을 때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 순으로 나타남.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음. 성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사업 우선 추진 영역】** 1단계로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역 우선순위 분석 결과, ‘노동시장 성평등’ (0.258)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다음으로 ‘안전환경 조성’ (0.221),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218), ‘성평등의식 확산’(0.155), ‘성평등문화 확산’ (0.147) 순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성평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참여자 유형별)**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노동시장 성평등’을, 성평등 전문

가는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안전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세 집단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과,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가 여성은 2순위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가장 후순위(5위)로 인식하고 있어 성별 인식격차가 뚜렷하였음
- **[우선 추진 성평등 세부사업]** 2단계로 성평등 환경 조성 영역별 세부 사업 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에서는 양육자와 돌봄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나타나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성평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양육 및 보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도민 참여 확대 및 성평등 활동가 양성이 우선 추진 과제로 나타나 관 중심 사업 추진보다는 도민 참여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음. 안전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안심귀가거리, 비상벨, CCTV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민관협력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경찰청-행정부처 안전정책부서-민간 참여를 통한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임.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육성과 근로자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교육, 조직문화 성평등 진단 및 교육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참여자 유형별)**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경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모두 양육자 성평등교육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경우 세 집단 중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성평등에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성평등 활동가 양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평등 전문가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안전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여성친화환경 조성

을, 성평등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함.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경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고, 성평등 전문가는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성평등 정책 담당공무원은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성별)**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양육자 성평등교육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지역 주민, 지역 리더 성평등교육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안전환경 조성 영역은 여성과 남성 모두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음.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은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요약하면, 경상북도성평등센터에서 추진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은 노동시장 성평등>안전환경 조성>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성평등의식 변화>성평등 문화 확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간 우선 추진 과제 순위는 약간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과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안전환경 조성’ 영역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영역별 세부 사업 중 최

우선 추진 과제는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경우 양육자 및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은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성평등 활동가 양성임. 안전환경 조성 영역은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와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육성,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으로 나타남.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 선정됨

영역별 순위	우선 추진 과제	적용 방안
①순위 노동시장 성평등	①순위_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25년 일·생활균형센터 유지하여 사업 추진 중
	②순위_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③순위_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②순위 안전환경 조성	①순위_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기존 모니터링사업과 통합 운영
	②순위_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에 포함하여 추진
	③순위_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③순위 여성 사회참여역량강화	①순위_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경북여성WE리더 아카데미 추진 중
	②순위_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와 통합 운영
④순위 성평등의식 변화	①순위_양육자 성평등교육	기존 사업 확대 추진 가능
	②순위_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③순위_지역 일반 주민 성평등교육	
⑤순위 성평등 문화 확산	①순위_성평등 활동가 양성	기존 사업 확대 추진 가능
	②순위_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③순위_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	기존 사업 확대 가능

- **【성평등사업 아이디어 제안】** 한편, 세 집단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안해 주었는데, 그중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는 '성평등 마을 리빙랩', '직업별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 교육',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리더교육', '성평등문화 뮤지컬', '여성영화제', '남성성장 프로그램', '성평등 성장교육' 등임

- 종합하면, 지역의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도민은 노동시장 성평등사업과 안전사업을 향후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성평등센터가 출범하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사업의 확장·고도화와 함께 노동시장 성평등사업과 안전사업 확대·추진 필요해 보임

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및 과제

1)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 운영 목적

- 성평등센터는 지역사회 내 성주류화제도 실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지원, 성인지 통계 운영, 성평등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근거

- 지역 성평등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평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해야 함.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범수 의원 등 10인의 의원과 함께 2026년 3월 4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음(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중앙정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즉시 개정되어야 함

□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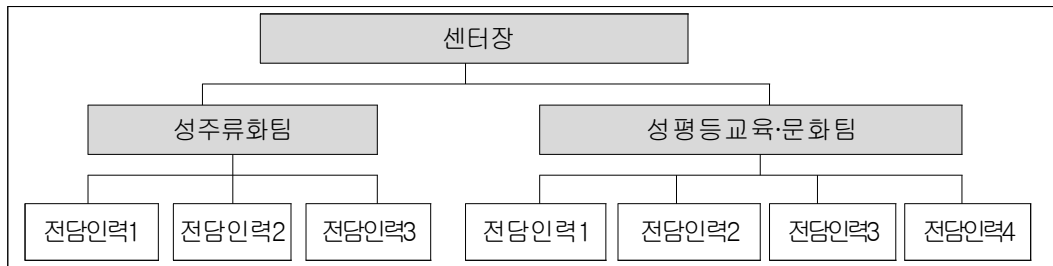
- 경북성평등센터는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경북’을 비전으로 ‘공공정책 성평등 실현’, ‘성평등 가치문화 확산’, 성평등 협력 생태계 구축’이 3대 목표를 수립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성평등 안전망 강화,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5대 전략을 추진함

비전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경북				
목표	공공정책 성평등 실현	성평등 가치·문화 확산	성평등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성평등 안전망 강화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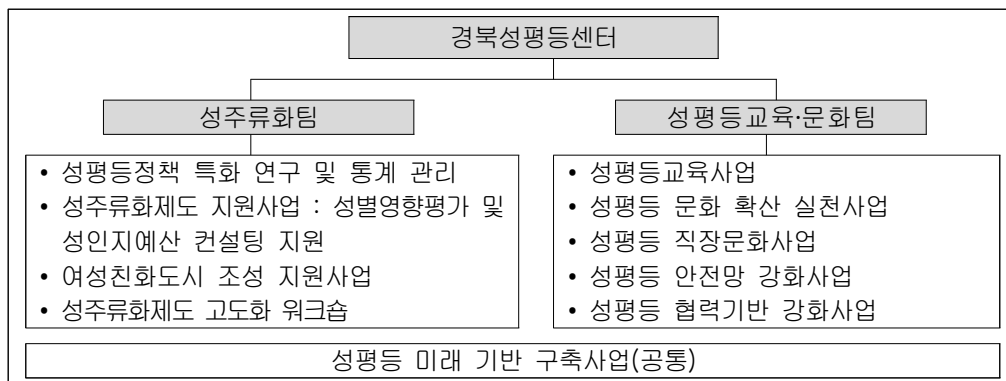
□ 조직 및 인력 구성

- 경북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일반형 양성평등센터라 칭함)’을 통합하여 운영 필요함. 성주류화제도 운영 기구인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성평등 문화확산을 추진하는 양성평등센터는 지역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축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센터 아래 성주류화팀과 성평등교육문화팀으로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균일한 질의 성평등 사업 추진 및 안정화를 위해 인력과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센터 내 성주류화팀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이행점검, 컨설팅 운영, 포럼 운영,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성평등교육문화팀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지역정책 모니터링+찾아가는 성평등교육문화 확산+지역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한 조직문화 지원사업, 지역 안전 지원사업, 지역 특화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하도록 함
-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현재보다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범위가 확장될 것이므로 전담센터장 1인과 성주류화팀 3명, 성평등교육문화팀 4명이 적절함



□ 기능 및 역할

- 성평등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성주류화팀에서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부분을 담당하고,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 및 통계 관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성주류화제도 고도화 워크숍을 추진함. 성평등교육문화팀에서는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기능을 추진하여 제도와 의식, 문화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사업, 성평등 문화 확산 실천사업, 성평등 직장문화사업, 성평등 안전망 강화사업, 성평등 협력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함



2)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안)

- 경북성평등센터가 추진해야 할 5대 전략 및 전략별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전략	추진사업	유형	추진팀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 및 성인지 통계 운영	기존 사업 추진부서 변경	성주류화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결산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 추진사업 지속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기존사업 추진부서 변경	
	성주류화 전략 고도화 워크숍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 추진사업 지속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성평등 직장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신규사업	성평등교육· 문화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관리자교육	신규사업	
	근로자 성평등 소통 브릿지(bridge) 토크콘서트	신규사업	
성평등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민관협력체 운영	신규사업	성평등교육· 문화팀
	지역 안전 모니터링	기존 사업 확대	
	경북 안전 맵핑(Mapping) 프로젝트	신규사업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주민 주도형 성평등 리빙랩	신규사업	성평등교육 ·문화팀
	사람-문화-성평등 잇다, 성평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규사업	
	성평등 동행 WITH 프로젝트	기존사업 확대	
	도민 공감 성평등 아카데미	기존 사업 대상확대 및 체계화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성평등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신규사업	성주류화팀, 성평등교육 ·문화팀
	지역 성평등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기존 사업 확대	
	도민 참여 ‘성평등 ON’ 프로젝트	신규사업	

목 차

I. 서론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05
II.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07
1. 중앙정부 성평등정책 동향	09
2. 경상북도 및 시군 성평등정책 현황	14
3. 소결	50
III.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53
1.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이해	55
2.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58
3. 타시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	68
4. 소결	79
I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81
1. 조사개요	83
2. 조사결과	86
3. 소결	118
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및 과제	123
1.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125
2.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안)	131
참고문헌	169

표 목 차

〈표 II-1〉 제1~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교	10
〈표 II-2〉 제1~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비교	12
〈표 II-3〉 국정과제 97_‘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목표 및 주요 내용 ...	13
〈표 II-4〉 국정과제 98_‘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목표 및 주요 내용	14
〈표 II-5〉 경상북도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15
〈표 II-6〉 도 여성가족과 성평등 확산 실천사업 추진 현황	19
〈표 II-7〉 포항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1
〈표 II-8〉 경주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3
〈표 II-9〉 김천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5
〈표 II-10〉 안동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6
〈표 II-11〉 구미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27
〈표 II-12〉 영주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2
〈표 II-13〉 영천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3
〈표 II-14〉 상주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4
〈표 II-15〉 문경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5
〈표 II-16〉 경산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7
〈표 II-17〉 의성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39
〈표 II-18〉 청송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0
〈표 II-19〉 영양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2
〈표 II-20〉 영덕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3
〈표 II-21〉 청도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4
〈표 II-22〉 고령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5
〈표 II-23〉 성주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5
〈표 II-24〉 칠곡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6
〈표 II-25〉 예천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7

〈표 II-26〉 봉화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8
〈표 II-27〉 울진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9
〈표 II-28〉 울릉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50
〈표 III-1〉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및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지정 현황	56
〈표 III-2〉 센터유형별 예산	56
〈표 III-3〉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58
〈표 III-4〉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19~2025)	60
〈표 III-5〉 부산성평등센터(거점형)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	69
〈표 III-6〉 전북성평등센터(거점형)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	72
〈표 III-7〉 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	75
〈표 III-8〉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4~2025) ..	76
〈표 III-9〉 전남여성가족재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	78
〈표 IV-1〉 설문조사 내용	84
〈표 IV-2〉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AHP 분석 요인	85
〈표 IV-3〉 응답자 일반적 사항	86
〈표 IV-4〉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88
〈표 IV-5〉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89
〈표 IV-6〉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	91
〈표 IV-7〉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92
〈표 IV-8〉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93
〈표 IV-9〉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	95
〈표 IV-10〉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97
〈표 IV-11〉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	100
〈표 IV-12〉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102
〈표 IV-13〉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	104
〈표 IV-14〉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106

〈표 IV-15〉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	108
〈표 IV-16〉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	110
〈표 IV-17〉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112
〈표 IV-18〉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113
〈표 IV-19〉 성평등 전문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114
〈표 IV-20〉 성평등사업 참여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117
〈표 IV-21〉 조사 결과 종합 및 적용 방안	121
〈표 V-1〉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안)	133
〈표 V-2〉 전국 지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136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절차	6
[그림 III-1] 센터 조직도	56
[그림 III-2]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사업	57
[그림 III-3]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추진사업	57
[그림 IV-1]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89
[그림 IV-2]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93
[그림 IV-3]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	96
[그림 IV-4]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96
[그림 IV-5]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98
[그림 IV-6]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	100
[그림 IV-7]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101
[그림 IV-8]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102
[그림 IV-9]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	104
[그림 IV-10]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105
[그림 IV-11]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106
[그림 IV-12]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	109
[그림 IV-13]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109
[그림 IV-14]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	110
[그림 IV-15]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112
[그림 IV-16]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	113
[그림 V-1] 비전 및 전략	126

[그림 V-2] 조직도(안)	127
[그림 V-3] 경북성평등센터 기능 및 역할	127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한 사회는 남녀가 상호 존중함으로써 인권과 통합을 증진시키고, 젠더위계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여 안전을 강화하며, 의사결정 구조에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민주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킴
- 정부는 2015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었음. 이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여성 차별’보다는 ‘양성의 평등’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간 전개되어 온 성평등 제도 발전 및 실천 활동을 통해 많은 긍정적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견과 고정된 성역할 인식이 약화되어 기회와 과정, 결과가 공정해지고,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가정 차원에서는 부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동등한 의사결정과 가사·돌봄의 균형 있는 분담이 가능해지고, 자녀양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으로 일·가정양립이 가능해지고 있음. 노동시장 내에서는 공정한 인사, 경력단절 감소, 성희롱·차별 방지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직원 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기업의 ESG·지속가능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사회차원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성차별, 폭력 감소로 사회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은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절실함
- 한편,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성평등¹⁾ 의제를 강화

1) 성평등가족부 출범 이후 ‘양성평등’이 ‘성평등’ 용어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법령이나 기본계획, 사업명 등 이미 제정 및 수립·시행되어 임의로 변경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양성평등’과 혼용하여 사용함

하였으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국정기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 변화가 예상됨. 실제, 2025년 10월부터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앙단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설치 및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4개 지역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사업과 2개 지역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로 운영하는 체제를 2027년부터 전국에 성평등센터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대상층의 참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 전문가들은 그간 성평등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데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핵심사업을 공통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제나 이슈를 전국적으로 균일한 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최유진 외, 2021). 이번 성평등센터 출범을 계기로 성평등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사업과 국가적 의제나 이슈를 균질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문적·지속적 성평등정책 사업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함. 또한, 기존 성평등교육과 문화 사업 추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업 범위, 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 내용, 콘텐츠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한계를 광범위하게 살펴보아야 함. 제도와 문화의 변화는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뿐 아니라 실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의 장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활동으로 귀결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2020, 8p). 이에,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등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성평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변화 : 중앙정부 제1차~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변화를 살펴봄
- 이재명정부 양성평등정책 국정과제 : 2025년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국정기조를 살펴봄
- 경상북도 및 시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봄

○ 경상북도 성평등 수준 분석

-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 분석을 통해 성평등 수준을 진단함

○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분석

- 2019년부터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를 조사함

○ 조사를 통한 성평등센터 추진과제 도출

-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대상 의견 조사를 통해 지역 성평등 우선 추진 영역 및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특화 성평등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함

○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제안

- 정책분석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성평등센터 운영 중장기 방향 및 실천 과제를 제안함

2) 연구방법

- 문헌 및 정책 분석 : 경북지역 양성평등정책 및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
- 사례조사 : 타시도 유관기관에서 추진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5개 지역) 사례
- 설문조사 :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100명 대상 정책 우선 추진영역, 세부 과제, 사업 아이디어 발굴

3) 연구절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함

단 계	주 요 내 용
연구설계 및 착수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심의
문헌고찰 및 정책분석	· 경상북도 양성평등정책 환경 및 성평등 수준 분석 · 경북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성과 및 한계
조사 및 분석	· 전국 5개 기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조사 ·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	· 연구 중간보고
최종심의회 및 보고서발간	· 연구결과 논의 및 정책제언 · 최종보고회 결과 반영, 보고서 수정·보완 · 연구보고서 발간

[그림 I-1] 연구절차

Ⅱ.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 1. 중앙정부 성평등정책 동향**
- 2. 경상북도 및 시군 성평등정책 현황**
- 3. 소결**

II.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1. 중앙정부 성평등정책 동향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변화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발전’에서 ‘남녀평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수립을 시작으로 전환된 성평등 정책체계가 시작된 후 현재의 3차 기본계획이 2023년에 수립되었음. 기본계획의 비전에는 1~3차 공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목표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에 수립되었으며,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을 목표로 설정함. 이 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가정양립 확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였고,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의 중과제를 신설하였음. 또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등 남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였다는 특징이 있음(여성가족부, 2015)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에 수립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설정함. 본 계획의 특징은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반영하였고, 근본적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집중하면서, 성별 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 구조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등을 통한 범부처의 책

무성을 강화한다는 점임(여성가족부, 2018)

- 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되었으며, 이 시기는 여성가족부 축소, 여성정책 조정 논의 속에서 성평등보다 보편적 가족·돌봄정책이 강조된 측면이 있음. 이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수립함. 계획수립 시 2021년 실시된 제2차 양성평등 실태 조사와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성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함. 또한,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및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성평등 인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추진 및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특징이 있음(여성가족부, 2023)

<표 II-1> 제1~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교

구분	1차 기본계획 (2015~2017)	2차 기본계획 (2018~2022)	3차 기본계획 (2023~2027)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목표	· 성별 격차 해소 · 일과 가정의 조화 · 차이와 인권 존중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	·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 안전과 건강권 증진 · 양성평등 기반 확산

- 아래 <표 II-2>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7개의 대과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확산’, ‘고용 격차 해소’,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중과제로 구성되었음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6개의 대과제와 22개의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1차 기본계획에 비해 격차 해소→기회 보장, 확산→기반 조성 등 좀 더 발전되고 확장된 형태의 중과제가 수립되었음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축소, 여성정책 조정 논의 속에서 성평등보다 보편적 가족·돌봄정책이 강조되었으므로 5개 대과제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로 구성되었으며, 중과제는 14개로 수립되어 1~2차 기본계획 대비 크게 축소되었음

<표 II-2> 제1~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비교

1차 기본계획(2015~2017)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2차 기본계획(2018~2022) (6개 대과제, 22개 중과제)		3차 기본계획(2023~2027)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대과제	중과제	대과제	중과제	대과제	중과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 등 환경 조성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생활균형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확산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제도 실효성 제고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고용 격차 해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통일과 평화·인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국제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 대표성 제고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 내실화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건강과 복지증진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내실화	-	-	-	-

2) 이재명 정부 성평등정책 국정과제

-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구조적 차별은 많은 분야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밝힘(아시아 비즈니스 데일리, 2025.9.1.)
-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전략 중 하나로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전략6)’을 제시하였으며,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국정 97)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국정 98)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먼저,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표 II-3> 국정과제 97_‘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목표 및 주요 내용

국정과제 97	목표	주요 내용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 ·전달체계 개선 : 중앙과 지자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확대,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지역성평등센터 확대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편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부문·민간부문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 지원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여성 고용유지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기업 성장기반 확충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 실제,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의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동시에 남성 관련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이 특정 집단 우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음

- 다음으로, 국정 98번 과제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4> 국정과제 98_‘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목표 및 주요 내용

국정과제 98	목표	주요 내용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S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굴, 자립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 ·HPV 무료 접종 대상 확대(남성 청소년)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 및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2. 경상북도 및 시군 성평등정책 현황

1) 경상북도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경상북도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55건의 사업과 예산 115,314.5백만원을 수립함. 경북도 특화사업도 3건 포함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어린이집 인력지원, 여성안심거리조성사업임
- 경상북도는 시행계획 수립 시 다섯 가지 대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일·생활균형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를 증진한다는 계획임. 세 번째는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별 기반 폭력 대응을 강화하며, 성인지적 건강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네 번째는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며, 성별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임.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 주류화 추진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표 II-5> 경상북도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2023~2027)	경상북도 2026년 시행계획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1-1-1.성별임금격차 개선	-		-
1-1-2.고용현장 성차별 해소	②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지정 정책 강화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	793
1-2-1.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개발 지원	①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기업환경 개선지원,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및 사후관리	639
	②특화 경력단절예방사 업 확대 등 여성 고용· 경력유지 집중 지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 터 운영,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등	3,277.5
	③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성별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정규직 프로젝 트, 자활근로사업	2,101
1-2-2.미래 일자리 참여 확대	①고부가가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경북여성경제인대회개 최지원, 경북형 협동조 합 활성화지원	254
	③경력단절여성 유망직 종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발굴·확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 터 고부가가치 직업교 육훈련	국비
1-2-3.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 의 일자리 참여 확대	①농업·농촌분야 여성 역량 강화	한국여성농업인도연합 회회원 역량강화교육,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	728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2023~2027)	경상북도 2026년 시행계획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업 시범사업	
	②어업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	장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170
	②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참여 지원	공예업 체인턴지원사업 등	385
1-3-1.모·부성권 보장 강화	②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남성 육아휴직사용자 비율	비예산
	③난임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난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비예산
1-3-2.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 지원	③가족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유연근무 및 특별휴가 활성화	비예산
1-3-3.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①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500
2-1-1.종일제 보육 서비스 내실화	-		-
2-1-2.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③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공동육아나눔터운영	1,376
2-1-3.다양한 양육자 지원 강화	①,④한부모 아동양육비·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3,919
2-1-4.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①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58,151백만원)/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3,190백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61,341
2-2-1.공적 돌봄 인프라 강화	②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2,500
	③공립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752
2-2-2.가족돌봄자 지원 확대	-	-	-
2-2-3.지역기반의 가족센터를 통한 돌봄지원 확대	-	-	-
2-3-1.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	-	-
2-3-2.돌봄노동 전문성 강화	-	-	-
3-1-1.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③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대응체계	직장폭력예방교육	19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2023~2027)	경상북도 2026년 시행계획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3-1-2.5대 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①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589
	②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 그램 지원	70
	③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 력 피해자 지원 강화 (469백만원)/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 대(39백만원)	여성긴급전화1366 운 영,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운영 지원	508
	⑤성매매 피해자 탈성 매매 지원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등	469
	⑥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및 기념사업 내실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	13
3-2-1.조직 및 공동체 역량 향상	①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3
	⑥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여성폭력 민·관·경 협 력사업 지원	35
3-2-2.수사사법적 대응의 실 효성 제고	-	-	-
3-2-3.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①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 기반 강화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 력예방교육	45
3-3-1.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기반 마련	-	-	-
3-3-2.성·재생산 건강 증진	①취약계층 청소년, 노 숙인 등 생리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954
3-3-3.안전한 피임 접근성 제고	②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 업	20
3-3-4.인공임신중절 의료접 근권 보장	-	-	-
3-3-5.난임 치료·시술 안전성 강화	①난임 치료시술 여성 과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	난임부부지원 등	8,110
4-1-2.양성평등한 진로선택 지원	①여학생 STEM 분야 진출 강화(500만원)	경북형 인재양성 취업 연계 AI 메타버스아카데	300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2023~2027)	경상북도 2026년 시행계획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미 운영	
4-2-1.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①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양성평등 네트워크 활 성화 사업	60
4-2-3.문화·예술 분야 양성 평등 수준 제고	③양성평등 관련 콘텐 츠 개발(500백만원)	시브랜디드 콘텐츠 육성 사업	330
4-2-4.여성 문화유산 발굴과 확산	③여성 역사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인식 확산(43백만원)	경북여성선양사업	43
4-3-1.공공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	①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여성성평등정책 담당공 무원 임용확대계획 시 행	비예산
	②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및 개선권고	관리대상위원회 위촉위 원 여성참여율	비예산
	③양성평등한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통합균형인 사제도 지속 추진	6급 이상 여성 성평등 정책 담당공무원 주요 부서 보직관리	비예산
4-3-2.민간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	①기업의 성별균형 문 화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양성평등정책지원	40
5-1-1.양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기구 기능 강화	①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개최	비예산
5-1-3.시민사회 참여 및 국 제협력 활성화	⑤평화·통일 과정 협력 증진	통일교육활성화사업 등	23
5-2-1.성인지 정책 내실화	①성별영향평가 추진체 계 개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15
	②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5-2-2.성평등정책 담당공무 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①성인지 정책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성인지교육	비예산
경북도 특화사업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사업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1,458
	아이행복 도우미사업	어린이집 인력지원	13,075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 거리조성	여성안심거리조성	400
합계	55건		115,314.5

※ 예산은 지방비임

2) 경상북도 성평등 확산 실천 사업

-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중 성평등정책 주무부서인 도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정책지원사업과 성인지 정책 내실화 사업이 해당됨. 성평등정책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기존 추진중이던 성주류화제도 지원사업에서 성평등 실천사업으로 확장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성인지 정책 내실화 사업은 성인지예산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되었음. 이 두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은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대상 성평등교육,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등이 추진되었고, 성평등 기반 확장을 위한 주민 기반 풀뿌리단체 성평등 활동 지원사업, 젠더거버넌스 협력사업이 추진됨. 그 외 성평등 공감콘서트 & 포럼, 여성 뉴리더 양성 아카데미 시범사업,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대상 성평등정책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으며, 성주류화제도 내실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 예산은 48백만원~75백만원 범위 내 책정되었고, 해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음

<표 II-6> 도 여성가족과 성평등 확산 실천사업 추진 현황

추진 연도	추진사업	예산
2019	•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운영사업 • 성평등문화 콘테스트 • 성평등정책 워크숍 • 젠더거버넌스 협력사업 •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55백만원 (성평등 42, 성주류화 13)
2020	•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 풀뿌리단체 성평등활동 지원사업 • 젠더거버넌스 협력사업 •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55백만원 (성평등 42, 성주류화 13)
2021	• 권역별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 성평등 공감콘서트 & 포럼 • 성평등 홍보사업 •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48백만원 (성평등 35, 성주류화 13)
2022	• 경북 한바퀴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55백만원

추진 연도	추진사업	예산
	•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젠더거버넌스 협력사업 •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성평등 42, 성주류화 13)
2023	• 경북 한바퀴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 풀뿌리단체 성평등활동 지원사업 • 경북여성 뉴리더양성 아카데미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57백만원 (성평등 42, 성주류화 15)
2024	• 경북 한바퀴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 풀뿌리단체 성평등활동 지원사업 • 성평등문화 확산 워크숍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57백만원 (성평등 42, 성주류화 15)
2025	• 경북 한바퀴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 풀뿌리단체 성평등활동 지원사업 •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사업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75백만원 (성평등 60, 성주류화 15)
2026(추진중)	• 경북 한바퀴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 풀뿌리단체 성평등활동 지원사업 •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75백만원 (성평등 60, 성주류화 15)

자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부자료

3) 시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① 포항시

- 포항시의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총 29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42,964.3백만원(국비 20,299.5, 도비 7,210.5, 시비 15,386.3, 기타 68) 계획되어 있음
- 29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대표적으로 포항 여성뉴리더 양성교육, 남녀 고교생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단체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단체 교류행사, 양성평등기금사업, 양성평등전문요원 운영 등이 있으며, 그 외 여성일자리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함. 이러한 사업 추진은 대부분 포항시가 추진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선린대학교, BPW한국연맹포항클럽이 참여하고 있음

- 그중 양성평등전문요원 운영은 포항시에서 유일하며, 포항지역 남녀 고교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규모는 적으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타지역 대비 차별성이 있어 보임

<표 II-7> 포항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일자리편의점운영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의 단기·시간제 일자리 연계지원, 경력단절여성 사회 복귀 채용지원 ·추진기관 :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180 (도비90, 시비90)
2	포항 여성뉴리더양성교육	·관내 여성단체 리더 소양교육 ·추진기관 : 선린대학교	8(시비)
3	포항가족건강걷기대회	·관내 여성단체 리더 소양교육 ·추진기관 :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4.5(시비)
4	포항지역 남녀 고교생 리더십 아카데미	·1개 고교 청소년 리더십교육 ·추진기관 : 포항시BPW한국연맹포항클럽	2.4(시비)
5	여성단체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단체 회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추진기관 :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3.6(시비)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추진기관 :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28(시비)
7	여성단체교류행사	·자매도시 여협단체 교류사업 ·추진기관 :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10.8(시비)
8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	·자매도시 여협단체 교류사업 ·추진기관 :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16(시비)
9	양성평등기금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진흥사업	22(시비)
10	여성일·가정양립지원사업	·260개소 참여 여성 시간제 선택 일 자리사업	3,258(시비)
11	아이행복도우미사업	·350개소 참여 여성 시간제 선택 일 자리사업	3,200 (국비 597, 도비 43, 시비 2,560)
1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의 자기계발 기회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전문기관의 운영	260 (도비 130, 시비 130)
13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임산·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ONE-STOP으로 종합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 등	825 (국비 524, 도비 88, 시비 213)
14	지역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여성취업지원 3개 과정	53(시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5	「양성평등전문요원」 채용	·공무원 4대폭력 예방교육 등	62(시비)
16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23 (국비 16, 도비 2, 시비 5)
17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통해 의료, 법률기관 등에 위기 개입,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 운영 지원	445 (국비 165, 도비 84, 시비 196)
18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국비 3.5, 도비 0.5, 시비 1)
19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22 (국비 15, 도비 2, 시비 5)
2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0 (국비 14, 도비 2, 시비 4)
21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51 (국비 35, 도비 8, 시비 8)
22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 지원	15,433 (국비 10,803, 도비 1,389, 시비 3,241)
2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293 (도비 70, 시비 164, 기타 59)
24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에 필요한 여성편의 장비 지원	18 (도비 3, 시비 6, 기타 9)
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력단절 중장년여성에게 생활지원사 일자리 제공,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11,313 (국비, 7,919, 도비 1,018, 시비 2,376)
26	결혼이민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보조강사 채용 및 교육지원	421(시비)
27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9세~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16 (국비 208, 도비 62, 시비 146)
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4,875 (도비 3,276, 시비 1,599)
29	정부형·경북형	·난임부부 난임수술비 지원	1,696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난임부부지원		(도비 943, 시비 753)
	합계	29건	42,964.3 (국비 20,299.5, 도비 7,210.5, 시비 15,386.3, 기타 68)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② 경주시

- 경주시의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총 19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24,655.3백만원(국비 15,646.0, 도비 3,125.1, 시비 5,884.2) 계획되어 있음
- 19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거의 없음.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탐지시스템을 운영하였고, 비예산으로 양성평등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정도임. 그 외 아이돌봄아동사업이 가장 많고, 여성일자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이 일부 있음. 일부 사업에 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참여하였음

<표 II-8> 경주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567 (국비 352, 도비 66, 시비 149)
2	어린이집보조교사 지원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추진기관 : 관내 어린이집 107개소	2,336 (국비 1,636, 도비 490, 시비 210)
3	다함께돌봄사업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초등학생(소득무관) 급·간식 제공, 학습 지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추진기관 : 민간위탁	2,170 (국비 613, 도비 522, 시비 1,035)
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4,057 (국비 3,246, 도비 243, 시비 568)
5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12 (국비 10, 도비 1, 시비 1)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6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35~39세 저소득 청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자립지원	300 (도비 90, 시비 210)
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월 25만원)	29 (국비 15, 도비 4, 시비 10)
8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월 20만원)	24 (도비 7, 시비 17)
9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1인당 월 400천원)	326.4 (시도비 32.6, 시군구비 293.8)
10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생생활안정자금지원(1인당 2,000천원), 학습재료비지원(1인당 120천원), 교복비지원(1인당 300천원)	34.9 (시도비 10.5, 시군구비 24.4)
1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수당(월 50만원) 지급	90 (국비 63, 시도비 8, 시군구비 19)
12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분할지급, 1인당 10,000천원)	120 (시도비 36, 시군구비 84)
13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양육공백 발생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추진기관 :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위덕대학교산학협력단	13,751 (국비 9,625, 도비 1,238, 시비 2,888)
14	화장실 고정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임차	·시청 내 1층 여자화장실 13칸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5(시비)
15	폭력예방 통합교육	·기관장 포함 전직원 교육채널 확대 교육운영 기반 확대	9(시비)
16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	171 (국비 86, 도비 25, 시비 60)
17	난임부부 지원	·난임여성 난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등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추진기관 : 경주시 보건소	653 (도비 352, 시비 301)
18	양성평등 작품 전시회 개최	·시청 직원 및 방문민원인 등을 위한 양성평등 도서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비예산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9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관리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법을 및 조례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성별참여율 40%달성	비예산
합계		19건	24,655.3 (국비 15,646, 도비 3,125.1, 시비 5,884.2)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③ 김천시

- 김천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1건을 수립하였으며, 예산 12,437백만원(국비 7,666, 도비 1,047, 시비 378) 계획되어 있음. 그중 시비는 378백만원으로 3%에 그침
- 11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사업,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예산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점검을 계획하고 있음. 일부 사업에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여성일자리 지원, 아이돌봄사업 등이 있음

<표 II-9> 김천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관내 여성단체 리더 소양교육 ·추진기관 :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12(시비)
2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기관 :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10(시비)
3	양성평등기금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진흥사업	28(시비)
4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40 (도비 20, 시비 20)
5	아이행복도우미사업	·여성시간선택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 65개소 어린이집	929 (국비 173, 도비 12, 시비 744)
6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ONE-STOP 종합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 등	845 (국비 95, 도비 64, 시비 308, 기타 378)
7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공중화장실 40개소 불법촬영 카메라	비예산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점검	탐지점검	
8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8(국비 6, 도시 1, 시비 1)
9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3개월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일시적 양육, 안전 신변처리, 놀이활동 지원 ·추진기관 : 학교법인 양산학원	10,559 (국비 7,392, 도비 950, 시비 2,217)
10	행복육아사진공모	·행복육아 사진 공모	5(시비)
11	공중화장실안심거울 설치	·공원화장실, 공중화장실 등 출입문 전면에 거울 시트지 부착	1(시비)
합계		11건	12,437 (국비 7,666, 도비 1,047, 시비 378)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④ 안동시

- 안동시의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총 4건이며, 예산은 464.2백만원(도비 251.6, 시비 212.6)계획되어 있음. 그중 시비는 45.8%를 차지함
- 4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다만, 안동시 내부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이 있음. 그 외 유아돌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음. 타지역 대비 사업량과 예산은 매우 부족한 편임

<표 II-10> 안동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2026년 안동시공무원 성인지교육	·안동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8(시비)
2	2026년 안동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자가학습	·안동시 공무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6(시비)
3	함께 키우는 작은 도서관 돌봄사업	·유·아동 대상 돌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시행장소 : LH콩깍지 작은도서관	19.2 (도비 9.6, 시비 9.6)
4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31 (도비 242, 시비 189)
합계		4건	464.2 (도비 251.6, 시비 212.6)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⑤ 구미시

- 구미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46건, 예산 61,606.7백만원(국비 34,62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63, 도비 7,885.55, 시비 17,980.95, 기타 55.1)을 수립함. 그중 시비는 29.2%를 차지하며, 타지역과 달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7%)가 포함되어 있음
- 46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있음. 그 외 여성경제인, 여성기업인,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있고, 여성일자리 지원, 폭력피해자 보호, 돌봄, 가족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비예산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제고사업이 있음. 일부 사업에 구미시가족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그중 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은 경북지역 내 구미시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단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양성평등정책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제조업체 네트워크 및 교류활성화지원사업, 구미산단 입주기업 동반성장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조업 경쟁력강화 핵심인재 지원사업, 첨단산업 생태계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구미산단 입주기업 수출박람회 참가지원사업)도 있었음

<표 II-11> 구미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아이돌봄지원사업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돌봄 이용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19,239 (국비 13,446, 도비 1,729, 시비 4,064)
2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터) 운영	5,949 (지특 1,063, 도비 1,940, 시비 2,946)
3	가정위탁양육지원	·관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월 40만원),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자금, 학습보조비	443 (도비 71, 시비 372)
4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51.6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65%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45만원씩 지원	(국비 15, 도비 11, 시비 25.6)
5	저소득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바우처) 지원	262 (국비 133, 도비 40, 시비 89)
6	가족센터 운영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바우처) 지원 ·추진기관 : 구미시가족센터	1,608 (국비 574, 시도비 172, 시군구비 862)
7	공동육아나눔터운영	·12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돌봄활동 위한 장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그룹 지원 등 ·추진기관 : 구미시가족센터	299 (국비 149, 시도비 45, 시군구비 105)
8	한부모가족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건강검진 지원, 희망병원 검진 후 병원 청구에 의한 지급	15(시비)
9	한부모가족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구 월동연료비, 학습재료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경북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1,071 (도비 243, 시비 828)
1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운영 ·추진기관 : (사)꿈을이루는사람들	361 (국비 208, 도비 45, 시비 108)
11	여성폭력피해예방	·공공기관 직원 폭력예방 교육, 여성 안심환경조성	77(시비)
12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 법률, 의료비 지원 등), 보호시설 연계 등 ·추진기관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467 (국비 187, 도비 84, 시비 196)
1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	·성폭력 피해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및 자녀의 임시거처 제공 ·추진기관 :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4.6 (도비 1.4, 시비 3.2)
14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공 ·추진기관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1 (국비 0.7, 도비 0.1, 시비 0.3)
15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체험활동 등 ·추진기관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7.5 (국비 5.3, 도비 0.6, 시비 1.6)
16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공	0.9 (국비 0.6, 도비 0.1,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추진기관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시비 0.2)
17	새일센터 지정운영	·취업희망여성 취창업 상담 및 직업교 육훈련 등 ·추진기관 :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1,045 (국비 712, 도비 95, 시비 238)
18	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현판 전달 및 기업환경개선비, 각종 기업 혜택 지원	140(시비)
19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구직희망 청년여성 희망 직업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여성들의 취창업 유도	46(시비)
20	경상북도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경력단절 및 구직희망 여성단기일자리 제공 및 참여자 자녀 돌봄 기관 연계	500 (도비 250, 시비 250)
21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자치법규 제·개정 및 계획, 사업 등 성별영향평가	비예산
22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전문 컨설턴트의 서면 컨설팅 실시	4(시비)
23	위원회 남녀비율 제고	·구미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남녀 비율 및 여성위	비예산
24	여성인력풀(POOL)운영	·구미시 주민등록자 또는 근무지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풀 운영을 통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등 시정 참여	비예산
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40(시비)
26	양성평등기금사업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관련 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37(시비)
27	여성경제인 리더육성 지원사업	·관내 여성경제인 경영역량 활동(특강, 워크숍 등), 선진 여성경제인 및 선진 행정지 벤치마킹 등	9 (시군구비 7.2, 기타 1.8)
28	여성기업인 비즈니스점프업 지원사업	·관내 여성기업인 점프업 기업 및 산 업단지 방문(시찰), 리더십·마케팅 전 략 토의 및 워크숍, 여성기업인 간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15 (시군구비 12, 기타 3)
29	제조업체 네트워크 및 교류활성화지원사업	·관내 제조업체 실무담당자 등 제조업체 네트워크(구미기업발전협의회) 운영	18.75 (시군구비 15, 기타 3.75)
30	구미산단 입주기업	·구미산단 및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15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동반성장및 마케팅 지원사업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자료 배포, 산단 간 상생협력 교류회 추진 등	(시군구비 12, 기타 3)
31	제조업 경쟁력강화 핵심인재 지원사업	·구미산단 연구개발 인력 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주거안정 정착금 지원	125 (시군구비 100, 기타 25)
32	첨단산업 생태계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역 소재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임직원 첨단산업 분야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30 (시군구비 24, 기타 6)
33	구미산단 입주기업 수출박람회참가지원사업	·구미 산업단지 소재 수출(희망) 중소기업수출박람회 참가비 일부 지원(부스 임차·장치, 홍보물 제작 등)첨단산업 분야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18.75 (시군구비 15, 기타 3.75)
34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한시임 기제 채용)	693(시비)
35	육아기 특별휴가 업무대행수당	·아기 특별휴가자의 업무대행 공무원 대행수당 지급(5만원)	181(시비)
36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 제고	·관리직 여성비율 목표관리	비예산
37	일상돌봄서비스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구, 가족돌봄 청년재가돌봄·가사지원서비스(기본) 제공, 심리상담·문화생활증진 서비스 (특화)제공	753 (국비 527, 시도비 113, 시군구비 113)
38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추진기관 : 2개소((사)경북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구미시지부, 사회복지법인 수효복지재단 장천주간보호센터)	1,030 (국비 602, 도비 128,시비 300)
39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구미 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수효복지재단, (사)지적발달장애인협회 구미 지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25,685 (국비 17,980, 도비 2,311, 시비 5,394)
40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의 개인 심리상담 ·추진기관 : 참소중한, SOS심리상담, 봄소리, 마음플러스, 한국행복가족상담	54 (국비 38, 도비 5, 시비 12)
41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당해연도 출산한 여성장애인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출산비용 지원	15 (국비 11, 도비 1, 시비 3)
42	농촌페비닐수거보상금	·영농 단체(영농회,부녀회 등)에 페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192 (국비 32, 도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48, 시비 112)
43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7.5 (도비 2.6, 시비 6.1, 기타 8.8)
4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관내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지원	3 (국비 1.5, 시도비 0.75, 시비 0.75)
45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 난인시술비 지원	1,049 (도비 549, 시비 500)
46	도시형 건강관리	·관내 주민 건강교실 운영, 건강검진 홍보 등 ·추진기관 : 인동보건지소 건강증진팀	33(시비)
	합계	46건	61,606.7 (국비 34,622.1, 지특 1,063, 도비 7,885.55, 시비 17,980.95, 기타 55.1)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⑥ 영주시

- 영주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1건, 예산 7,491백만원(국비 5,119.3, 도비 772.7, 시비 1,593.6, 기타 5.4)을 수립함. 그중 시비는 21.3%를 차지함
-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 폭력상담소 운영,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11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표 II-12> 영주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및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추진기관 : 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435 (국비 266, 시도비 50, 시군비 119)
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농촌지역 거주중인 전업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등 6종의 농작업 편의장비 구매시 구매액의 50% 지원(최대 25만원)	15 (시도비 2.25, 시군비 5.25, 기타 7.5)
3	출산농가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촌지역 거주 중인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 출산일(예정일)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기간 중 최대 90일(남성 최대 10일)	9 (시도비 2.16, 시군비 5.04, 기타 1.8)
4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	18 (시도비 4.32, 시군비 10.08, 기타 3.6)
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월동연료비, 교복비 등 지원	1,695 (국비 1,357, 시도비 101, 시군비 237)
6	아이돌봄지원사업	·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료 차등지원	4,816 (국비 3,372, 시도비 433, 시군비 1,011)
7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추진기관 :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243 (국비 82, 시도비 48, 시군비 113)
8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참여	·영주시청 소속 전직원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 추진	비예산
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만 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생리용품 구매 비용 지원	80 (국비 40, 시도비 12, 시군비 28)
10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추진기관 : 영주시보건소	180 (시도비 117, 시군구비 63)
11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비예산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합계	11건	7,491 (국비 5,119.3, 도비 772.7, 시비 1,593.6, 기타 5.4)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⑦ 영천시

- 영천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9건, 예산 7,910백만원(국비 5,640, 도비 677.5, 시비 1,590.5, 기타 2)을 수립함. 그중 시비는 20.1%를 차지함
-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이 대부분이며, 9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표 II-13> 영천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교육훈련	574 (국비 363, 도비 62, 시비 149)
2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한국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 읍면동별 특색 있는 과제 발굴 ·추진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 (시비 18, 기타 2)
3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지원	70 (국비 45, 도비 12.5, 시비 12.5)
4	한부모아동 양육비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1,812 (국비 1,449, 도비 109, 시비 254)
5	청소년부모양육지원 강화	·청소년 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6 (국비 3, 도비 1, 시비 2)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0세~12세이하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영천시가족센터	5,023 (국비 3,516, 도비 452, 시비 1,055)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 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활동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	316 (국비 221, 도비 28, 시비 67)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센터, 영천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8	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	·영천시청 전 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3(시비)
9	저소득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만9세 ~ 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86 (국비 43, 도비 13, 시비 30)
합계		9건	7,910 (국비 5,640, 도비 677.5, 시비 1,590.5, 기타 2)

⑧ 상주시

- 상주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7건, 예산 4,940백만원(국비 3,303, 도비 471.3, 시비 1,165.7)을 수립함. 그중 시비는 23.6%를 차지함
- 7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과 양성평등기금사업임. 그 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여성취업지원, 폭력상담소 운영, 아이돌봄사업이 있음

<표 II-14> 상주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등 ·추진기관 :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24(시군구비)
2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12(시군구비)
3	양성평등기금사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25(시군구비)
4	지역특화여성취업교육 사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대상 전통주 소믈리에 및 정리수납과정 등 교육	11(시도비 3.3, 시군구비 7.7)
5	4대폭력예방교육	·상주시 기관장 포함 전직원 등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5(시비)
6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통해 의료, 법률기관 등에 위기 개입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 운영 지원	263 (국비 83, 도비 54, 시비 126)
7	아이돌봄지원사업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일시적인 양육, 안전 신변처리, 놀이 활동 지원 등	4,600 (국비 3,220, 도비 414, 시비 966)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추진기관 : 상주시가족센터	
	합계	7건	4,940 (국비 3,303, 도비 471.3, 시비 1,165.7)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⑨ 문경시

- 문경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3건, 예산 6,733.3백만원(국비 3,560.5, 도비 627.9, 시비 2,544.8)을 수립함. 그중 시비는 37.8%를 차지함
- 13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농업·농촌 분야 여성 역량 강화사업이 있음. 그 외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추진함

<표 II-15> 문경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만 19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도비 1.5, 시비 3.5)
2	특화 경력단절 예방사업 확대 등 여성 고용·경력 유지 집중 지원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친화기업 새일 여성인턴제, 여성친화기업 협약 및 환경 조성	비예산
3	농업·농촌 분야 여성 역량 강화	·(사)한여농문경시연합회 여성농업인 전국 대회, 한마음대회 행사,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	46(시비)
4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개선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가구 대상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264 (국비 102, 도비 45, 시비 117)
5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자녀 교복비, 방과 후 학습 재료비 지원	716 (국비 573, 도비 43, 시비 100)
6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2 (국비 10, 도시 1, 시비 1)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7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문경시가족센터	4,112 (국비 2,858, 도비 367, 시비 887)
8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 육아 지원 확대	·보건소 등록 임부 검사비 지원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 임신부 교실 운영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	1,539.2 (국비 1.5, 도비 165.4, 시비 1,372.3)
9	민간부문 성희롱 방지지원 강화	·여성, 아동 등 폭력 취약계층 원거리 주민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추진기관: 문경열린종합상담소	비예산
10	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전 직원(기관장, 고위직, 기간제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7(시비)
11	취약계층 청소년, 노숙인 등 생리대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대상 만 9~24세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월 14천원)	32 (국비 16, 도비 5, 시비 11)
12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 및 개선 권고	·시 위원회 평균 위촉직 여성 위원 참여 확대	비예산
13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지자체 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개선 관리와 분석 강화	비예산
합계		13건	6,733.2 (국비 3,560.5, 도비 627.9, 시비 2,544.8)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⑩ 경산시

- 경산시는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20건, 예산 25,528.6백만원(국비 14,346.5, 도비 3,295.45, 시비 7,886.65)을 수립함. 그중 시비는 30.9%를 차지함
-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이 대부분이며, 20건의 사업 중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표 II-16> 경산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경력단절 여성 등 집단상담, 인턴사업, 취업상담 등 ·추진기관 :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384 (국비 285, 도비 28, 시비 71)
2	경력단절여성유망직종 고숙련고부가가치훈련과정 발굴·확대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전문교육 운영 ·추진기관 :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212 (국비 149, 도비 19, 시비 44)
3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디저트떡, 쌀 베이킹, 웰빙간편식, 수제차, 천연화장품 실습 등 ·추진기관 : 경산시농업기술센터	28(시비)
4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경산시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	186(시비)
5	어린이집 연장보육프로그램 운영	·관내어린이집 134개소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추진기관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4,922 (국비 2,954, 도비 1,378, 시비 590)
6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	4,678 (국비 3,743, 도비 280, 시비 655)
7	청소년 부모 양육지원강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3 (국비 12, 도비 3, 시비 8)
8	위탁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가정위탁보호 업무 지원 ·추진기관 :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43(시비)
9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양육공백 발생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가정 파견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 경산시/경산시가족센터	7,929 (국비 5,551, 도비 713, 시비 1,665)
10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지원 확대	·경산시에 주소 둔 아동 및 부모 공동육아 및 놀이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추진기관 : 경산시/경산시가족센터	117 (국비 59, 도비 17, 시비 41)
11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만18세~64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진기관 : (사)경북지적발달장애복지	5,039 (국비 1,218, 도비 156, 시비 3,665)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협회 외 1개소	
12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성폭력상담소(2개소) 상담, 긴급보호자 인도, 법률지원 등	469 (국비 180, 도비 87, 시비 202)
13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상담소(1개소) 상담, 긴급보호자 인도, 법률지원 등	242 (국비 88, 도비 46, 시비 108)
14	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전직원 폭력예방교육	3(시비)
15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 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9세~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14,000원)	213 (국비 106, 도비 32, 시비 75)
1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자 중 9세~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6대 운영	17 (도비 5, 시비 12)
17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제고	·경산시민(20~30대 중점)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추진기관 : 경산시보건소	3 (국비 1.5, 도비 0.45, 시비 1.05)
18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기관 : 경산시보건소	978 (도비 531, 시비 447)
19	농업인 연중 교육	·관내 농업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 농업인(귀농귀촌)영농기초 기술교육 ·추진기관 : 경산시농업기술센터	41(시비)
20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1.6(시비)
합계		20건	25,528.6 (국비 14,346.5, 도비 3,295.45, 시비 7,886.65)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⑪ 의성군

- 의성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7건, 예산 3,198.27백만원(국비 1,210, 기금 612, 도비 417.5, 군비 958.77)을 수립함. 그중 군비는 30.0%를 차지함

- 추진사업은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폭력상담소 운영, 돌봄, 한부모 가족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 난임부부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아이돌봄사업이 특히 많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운영사업이 있음

<표 II-17> 의성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양성평등유공자 시상 및 기념행사 ·추진기관 : 의성군여성성단체협의회	25(군비)
2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관내 경력단절여성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운영	9 (도비 2.7, 군비 6.3)
3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통해 의료, 법률기관 등에 연계 지원	17.4 (도비 5.4, 군비 12)
4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 군 전직원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0.47(군비)
5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여 성인지적 관념 반영	비예산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운영	40(도비)
7	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양육비 1인당 월 5만원	527 (기금 422, 도비 31, 군비 74)
8	한부모가족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월동 연료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58 (도비 14, 군비 44)
9	공동육아나눔터운영	·12세 미만 자녀 및 부모 돌봄활동 위한 장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그룹 지원 등 ·추진기관 : 의성군가족센터	179 (기금 90, 도비 27, 군비 62)
1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여성농업인 건강, 문화생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215 (도비 64, 군비 151)
11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농작업 대행 농가도우 미 지원	28.8 (도비 8.8, 군비 20)
1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8.6 (도비 2.6, 군비 6)
13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추진기관 : 보건복지부, 의성군	90 (도비 50, 군비 40)
14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결혼이민여성, 지역주민, 학생 등 이 중언어강사 중국어수업 운영 및 취업	60 (도비 18, 군비 42)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연계지원 ·추진기관 : 의성군가족센터	
15	아이행복 도우미사업	·여성시간선택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11개소)	150 (국비 27, 도비 2, 군비 121)
16	아이돌봄지원사업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보 미 파견 ·추진기관 : 의성군가족센터	1,690 (국비 1,183, 도비 152, 군비 355)
17	긴급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12세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및 기존 돌봄서비스 미수혜자, 대기가정 긴급/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갯길동행 서비스 제공	100 (지방소멸대응기금)
합계		17건	3,198.27 (국비 1,210, 기금 612, 도비 417.5, 군비 958.77)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⑫ 청송군

- 청송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2건, 예산 615백만원(국비 280, 도비 89.9, 군비 245.1)을 수립함. 그중 군비는 39.8%를 차지함
- 추진사업은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돌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남임여성지원 강화 등이 대부분이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다만, 비예산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표 II-18> 청송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15(군비)
2	지역특화 여성 취업교육 사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 운영	6 (도비 1.8, 군비 4.2)
3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질적수준 제고	·청송군 소속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이상 유지	비예산
4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군 전직원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 폭력예방교육	10(군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5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청송군 사업 및 제·개정조례 성별영향 평가 실시	비예산
6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마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비예산
7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228 (국비 203, 도비 25)
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파천면·청송읍 거주 초등 2~6학년 방과후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251 (국비 71, 도비 21, 군비 159)
9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9~24세 여성 청소년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위생용품 지원	13 (국비 6, 도비 2, 군비 5)
10	난임 여성 지원 강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기관 : 보건의료원	73 (도비 34, 군비 39)
11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생활개선회 실용기술교육과 현장견학, 농촌여성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추진기관 : 농업기술센터	12 (도비 1.2, 군비 10.8)
12	행복한농촌 가정육성프로젝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추진기관 : 농업기술센터	7 (도비 4.9, 군비 2.1)
합계		12건	615 (국비 280, 도비 89.9, 군비 245.1)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⑬ 영양군

- 영양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3건, 예산 2,505.2백만원(국비 1,610.4, 도비 255.2, 군비 639.6)을 수립함. 그중 군비는 25.5%를 차지함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13건의 사업 중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임. 그 외 여성취업교육, 한부모 아동양육비, 돌봄, 난임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임

<표 II-19> 영양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관내 만18세 이상 여성 사회교육 수업 개설 및 운영	60(군비)
2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관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5(군비)
3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관내 경력단절 여성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운영	6 (도비 1.8, 군비 4.2)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추진기관 : 영양군,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10(군비)
5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관내 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9.1 (국비 5.9, 도비 1.6, 군비 1.6)
6	한부모 아동양육비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	221 (국비 177, 도비 13, 군비 31)
7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1 (국비 6.5, 도비 1.8, 군비 1.8)
8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 ·추진기관 :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80 (국비 1,386, 도비 178, 군비 416)
9	공동육아나눔터운영	·미취학,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공동육아 및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추진기관 :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4 (국비 30, 도비 9, 군비 45)
10	난임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 ·추진기관 : 영양군보건소	55 (도비 36, 군비 19)
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0(국비 5, 도비 1, 군비 4)
12	폭력예방 통합교육	·군 전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2(군비)
13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추진기관 : 영양군농업기술센터	43 (도비 13, 군비 30)
합계		13건	2,505.2 (국비 1,610.4, 도비 255.2, 군비 639.6)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⑭ 영덕군

- 영덕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8건, 예산 55.9백만원(군비)을 수립하였으며, 모두 군비임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군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 워크숍,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이 있음

<표 II-20> 영덕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추진기관 :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15(군비)
2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사업	·관내 여성단체 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기관 :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10(군비)
3	여성취업지원 아카데미	·관내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자격증 취득, 창업지원	3(군비)
4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관내 거주 전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7.5(군비)
5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4.5(군비)
6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 워크숍	·관내 거주 전업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교육	13.5(군비)
7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비예산
8	4대폭력예방교육	·군 직원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2.4(군비)
합계		8건	55.9(군비)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⑮ 청도군

- 청도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8건, 예산 146.3백만원(군비)을 수립하였으며, 모두 군비임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여성단체운영지원, 여성역량강화교육지원, 여성대학대학원 운영, 이동 여성회관 운영이 있으며, 비예산으로 위원회 현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표 II-21> 청도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양성평등유공자 시상 및 기념행사 ·추진기관 :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8(군비)
2	여성 역량강화교육지원	·여성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 ·추진기관 :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5(군비)
3	여성단체운영지원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권익신장활동 및 봉사활동, 음악회 개최 등 ·추진기관 :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등	31.3(군비)
4	이동여성회관운영	·청도군민 교육 프로그램 시행	20(군비)
5	여성대학운영	·청도군 여성리더 발굴·육성 교육	50(군비)
6	여성대학원운영	청도군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30(군비)
7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군 직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2(군비)
8	위원회 현황 관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정비	비예산
합계		8건	146.3(군비)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⑩ 고령군

- 고령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5건, 예산 488.3백만원(국비 12.4, 도비 140.5, 군비 335.4)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68.7%를 차지함
- 추진하는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이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표 II-22> 고령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6 (도비 1.8, 군비 4.2)
2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결혼이민여성, 지역주민, 학생 등 이 중언어강사 중국어수업 운영 및 취업 연계지원	450 (도비 135, 군비 315)
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	24.7 (국비 12.4, 도비 3.7, 군비 8.6)
4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군 직원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5.6(군비)
5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및 사업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	2(군비)
합계		5건	488.3 (국비 12.4, 도비 140.5, 군비 335.4)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⑰ 성주군

- 성주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9건, 예산 674백만원(기금 129, 도비 111, 군비 434)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64.4%임
- 추진하는 사업은 여성취업교육, 돌봄사업이 다수이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다만, 비예산으로 군 내 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및 개선 권고를 추진하고 있음

<표 II-23> 성주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과정	비예산
2	아이행복도우미사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시간선택 일자리사업	211(기금 39, 도비 3, 군비 169)
3	K보듬(24시간제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1개소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보육 실시	162 (도비 81, 군비 81)
4	초등ART돌봄서비스	·면지역 초등학생 돌봄 및 예술 프로	106(군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그램 운영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 및 부모 공동육아 및 놀이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추진기관 : 성주군/성주군가족센터	179 (기금 90, 도비 27, 군비 62)
6	4대폭력 예방교육	·전 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6(군비)
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유공자 시상 ·추진기관 : 성주군여성단체협의회	10(군비)
8	위원회 성별참여조사 및 개선 권고	·성주군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관리	비예산
9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및 사업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	비예산
합계		9건	674 (기금 129, 도비 111, 군비 434)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⑱ 칠곡군

- 칠곡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6건, 예산 905.2백만원(국비 517, 도비 87.2, 군비 301)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33.2%임
- 추진하는 사업은 여성취창업교육, 돌봄사업이 다수이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사업은 없음. 다만, 비예산으로 군 내 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및 개선 권고, 양성평등한 공무원 통합균형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표 II-24> 칠곡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여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및 직업훈련교육 제공	755 (국비 517, 도비 68, 군비 170)
2	함께 키우는 작은도서관 돌봄사업	·초등학생 1~6학년 작은도서관 내 틈새 돌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128.2 (도비 19.2, 군비 109)
3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방지	·군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제도 운영	7(군비)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추진기관 : 칠곡군, 칠곡군여성단체협의회	15(군비)
5	위원회 성별참여	·칠곡군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	비예산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조사 및 개선 권고	을 관리	
6	양성평등한 공무원 통합균형 인사제도 지속 추진	·군 관리직 여성공무원(6급 이상) 비율 관리	비예산
합계		6건	905.2 (국비 517, 도비 87.2, 군비 301)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⑰ 예천군

- 예천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3건, 예산 490백만원(국비 120, 도비 158, 군비 212)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43.3%임
- 추진하는 사업은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과 자녀돌봄사업이 다수이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없음

<표 II-25> 예천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관내 주민 등 여성일자리 교육 및 프 로그램 시행 ·수행기관 : 예천군 가족센터	7 (도비 2, 군비 5)
2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	·관내 주민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지원 ·수행기관 : 예천군 가족센터	480 (국비 120, 도비 156, 군비 204)
3	공공부문 폭력예방 사건대응 재발방지강화	·관내 공무원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및 역량 강화	3(군비)
합계		3건	490 (국비 120, 도비 158, 군비 212)

자료 : 경상북도 제공

⑱ 봉화군

- 봉화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13건, 예산 1,452백만원(국비 864, 도비 173.9, 군비 414.1)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28.5%임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지역주민 양성평등교육과 군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예산으로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및 개선권고를 추진하고 있음. 그 외 여성취업, 가족친화, 돌봄, 가족서비스, 난임부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26> 봉화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 직업 교육 훈련 지원	3 (도비 0.9, 군비 2.1)
2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군청 직원/중소기업 가족친화조성 예비망 프로그램운영, 가족친화인증	4(군비)
3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초등 저학년(1~3학년) 어린이집 활용 방학기간 돌봄 서비스 제공	14 (도비 4, 군비 10)
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동절기 월 동연료비 등 지원	254 (국비 182, 도비 16, 군비 56)
5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확대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개별보수 교육 및 양성교육 참가 지원	660 (국비 462, 도비 59, 군비 139)
6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가족관계형성 서비스 제공	(국비 212, 도비 63, 군비 158)
7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군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1(군비)
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세~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15 (국비 8, 도비 2, 군비 5)
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군	50 (도비 29, 군비 21)
10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및 개선권고	·군 관리 대상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 참여율 확대	비예산
11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실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실시	10(군비)
12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맞춤형 교육 실시	7(군비)
13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군 직원 성인지교육 이수	1(군비)
합계		13건	1,452 (국비 864, 도비 173.9, 군비 414.1)

자료 : 경상북도 제공

㉑ 울진군

- 울진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9건, 예산 174백만원(도비 3, 군비 171)을 수립하였으며, 대부분이 군비임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여성단체 회원 리더십 및 역량강화교육이 있음. 그 외 여성취업, 폭력피해자 지원, 취미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27> 울진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시상 ·추진기관 :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20(군비)
2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취업희망여성 자격증 취득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	9 (도비 3, 군비 6)
3	4대폭력예방 직원교육	·군 직원 4대폭력 예방 교육 추진	9(군비)
4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양성평등 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리더십 강화	20(군비)
5	여성역량강화교육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추진	12(군비)
6	성폭력 피해자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1(군비)
7	가정폭력피해자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1(군비)
8	읍면 취미교실 운영	·읍면별 취미교실 운영	96(군비)
9	4대폭력 예방 홍보	·울진군민 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6(군비)
합계		9건	174 (도비 3, 군비 171)

자료 : 경상북도 제공

㉒ 울릉군

- 울릉군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총 9건, 예산 37백만원(도비 1.5, 군비 35.5)을 수립하였으며, 대부분 군비임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지역 사업체 고용주 성별 임금격차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비예산으로 주무관 대상 성인지 정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 외 농업분야 여성 역량 강화사업, 보육서비스, 장애인 지원 등 추진하고 있음. 고용주 성별 임금격차 개선 캠페인 추진은 매우 우수한 사업이며,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음

<표 II-28> 울릉군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1	성별임금격차 개선 캠페인 행사 추진	·지역 사업체 고용주 성별임금격차 개선 캠페인	20(군비)
2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5 (도비 1.5, 군비 3.5)
3	농업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농업인단체 역량개발, 농촌생활 개선	6(군비)
4	맞벌이 직원 자녀 돌봄 지원 특별휴가	·맞벌이 직원 자녀돌봄 특별휴가 실시	비예산
5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영유아 양육 부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비예산
6	장애인 지원 서비스확대 (장애진단 수진 교통비)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2(군비)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군 직원 4대폭력 예방 교육 실시	4(군비)
8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및 목표 수립 및 관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개선	비예산
9	성인지 정책 전문가 양성	·주무관 대상 성인지 정책 전문가 교육 실시	비예산
합계		9건	37 (도비 1.5, 군비 35.5)

자료 : 경상북도 제공

3. 소결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발전’에서 ‘남녀평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수립을 시작으로 전환된 성평등 정책체계가 시작된 후 현재의 3차 기본계획(2023~2027)이 2023년에 수립되었음. 기본계획의 비전에는 1~3차

공동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목표에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축소, 여성정책 조정 논의 속에서 성평등보다 보편적 가족·돌봄정책이 강조되었는데,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구조적 차별은 많은 분야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전략 중 하나로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전략6)’을 제시하였으며,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국정 97)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국정 98)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이러한 국정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의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55건의 사업과 예산 115,314.5백만원을 수립함. 시행계획 중 성평등정책 주무부서인 도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실천 사업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정책지원사업과 성인지 정책 내실화 사업이 해당됨. 성평등정책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기존 추진중이던 성주류화제도 지원사업에서 성평등 실천사업으로 확장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성인지 정책 내실화 사업은 성인지예산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되었음. 이 두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예산은 48백만원~75백만원 범위 내 책정되었고, 해마다 약간의 예산 변동성이 있었으나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옴
- 22개 시군에서도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은 대체로 여성단체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단체교류행사, 시군 직원 성인지교육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간혹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있음. 그 외 여성일자리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부족

한 실정임. 그중 포항시의 양성평등전문요원 운영과 포항지역 남녀 고교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규모는 적으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타지역 대비 차별성이 있어 보이며, 구미시의 여성친화기업인증사업은 공단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울릉군의 경우 지역 사업체 고용주 성별임금격차 개선 캠페인을 추진은 매우 우수한 사업이며,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었음

-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사업은 다양하지 못함. 특히, 시군지역은 매우 부족함. 경북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넓고 분산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어 왔음. 향후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성평등 추진 생태계 확장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군 단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1.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이해
2.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3. 타시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
4. 소결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1.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이해

1) 목적 및 근거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지역 내 성평등교육·문화 확산 등 통합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환경,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성평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며, 중앙-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운영 및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임(2026년도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운영 안내)
- 이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5번째 대과제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중앙-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강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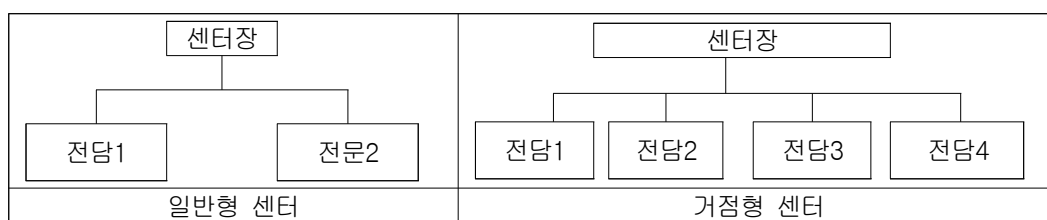
2) 추진 경과 및 추진체계

-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에 전국 4개 기관을 공모하여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시범·운영하였고, 이후 ‘일반형 양성평등센터’로 칭하면서 사업의 형태로 계속 추진되어 옴. 2021년에는 확장된 형태의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1개소(부산) 시범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전북지역에 1개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Ⅲ-1>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및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지정 현황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형(사업)	4	4	4	4	4	4	4	4
거점형(센터)	-	-	1	2	2	2	2	2

- 일반형 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전담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점형 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Ⅲ-1] 센터 조직도

3) 예산 및 추진사업

- 지역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2026년 기준 거점형 2개 센터의 경우 개소 당 360백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50:50이며, 일반형 4개 센터는 개소 당 141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임

<표 Ⅲ-2> 센터유형별 예산

유형	센터수	개소 당 운영비(백만원)	비고
일반형	4	141	전액 국비
거점형	2	360	국비50, 지방비50

- 2019년부터 운영된 4개의 지역 일반형 양성평등센터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었으며(성평등가족부 블로그, 2019), 전국 공통사업으로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성평등교육 실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역 정책 모니터링사업의 경우 지역 청년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모니터링하여 정책 개선으로 연계·제안하고, 사업간 긴밀한 연계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또,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성평등 관점 개선 필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함. 성평등교육 및 문화사업은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소통 기회 마련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운영 등을 통해 성평등교육 접근성 제고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추진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사업	
• 성평등교육 및 문화 사업 -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운영	• 지역 정책 모니터링사업 -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청년 소통 네트워크 운영 - 지역 정책 모니터링

[그림 Ⅲ-2]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사업

-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2개의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보다 사업 범위가 확장되었음. 지역정책모니터링, 교육·문화 확산사업 뿐 아니라 기초단위까지 확산된 다양한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공부분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이행점검 지원 등 성주류화 제도 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단위의 우수 성평등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지역 맞춤형 사업을 확산하는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함

거점형 센터 추진사업	
성평등문화조성팀	성평등안전증진팀
• 성평등사업 : 지역 정책 모니터링, 성평등교육컨설팅, 청년 공감·소통 등 •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사업 : 공공/민간 분야 조직 문화 진단개선, 컨설팅, 다양성 교육, 사례관리 등	• 안전사업 : 취약 통행 구간 발굴, CCTV등 안전 인프라 점검, 지역 환경 개선 건의 등 • 지역 특화사업 :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등
(팀 공통) 지역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그림 Ⅲ-3]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추진사업

-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7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형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2.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1) 추진 성과

- 경북지역은 2019년 성평등가족부에서 공모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해 오.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 보면, 사업초기인 2019년 110,772천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6년 현재 141,000천원임.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때 청년공감사업 예산이 인건비 1인 포함 약 57,000천원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는 사업비가 감소한 바 있음

<표 III-3>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천원)	110,772	118,750	119,040	119,177	176,250	133,000	135,500	141,000

-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은 아래 <표 III-4>와 같음. 사업영역은 크게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으로 분류되어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
- 양성평등교육사업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보육교사를 위한 젠더스쿨’은 201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처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다가 (예비) 보육교사인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되었고, 2026년에는 보육기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추진되는 등 대상을 점점 확대하

고 있음

- 양성평등교육사업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본과정→전문과정→심화과정→위촉과정 단계별로 시행하고, 1차연도에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2차연도에 심화과정과 위촉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020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최종 강사 강의 시연 및 위촉은 2년에 1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여 전국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그 결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총 10명의 강사가 위촉되었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총 21명의 활동가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서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알리오단을 모집하여 위촉하고, 이들과 함께 양성평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슈와 주제로 토론회, 토크콘서트,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음. 2021년에는 ‘청년 알리오단’ 운영으로 차별화하였고, 2024년부터는 알리오단이 있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여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2025년에는 ‘남성 알리오단’을 운영하여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였음. 2023년에는 청년 공감대 사업이 일시적으로 추진되었다가 이후 사업 예산이 감소하였고, 알리오단과 청년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2026년에는 ‘청년 양성평등 공감·동행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알리오단 뿐 아니라 지역 청년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모니터링 대상을 달리하여 추진하였음. 2019년의 경우 미디어 및 홍보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20년 지역정책 및 공간, 2021년 홍보물, 2022년 도시재생지역, 2023년 전통시장, 2024년 문화시설·공간 및 콘텐츠와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문화, 2025년은 도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문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표 Ⅲ-4>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19~2025)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19년	양성평등교육사업		
	보육교사를 위한 젠더스쿨	-경북 내 (예비)보육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할 전문가 및 활동가를 선발,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강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회) -10회차 교육 진행(227명 이수) -교육평가 간담회 개최 -참여자 만족도 4.62점 달성(※5점 만점)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	-강사 양성과정 운영 : 기본과정 -양성평등 이슈 분석 등을 위한 강사스터디 모임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참여	-참여자 모집(22명) -기본과정 교육 실시 · 27h, 6회 · 24명 모집/20명 수료 -양성평등 이슈 분석 등을 위한 강사스터디 지원(3회) -평가간담회 개최 -참여자 만족도 4.74점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발대식 및 워크숍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토크콘서트 : 일과 가정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 지역 청년이 듣기 싫은 성차별 언어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및 결과보고회 개최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위촉(10명) -알리오단 발대식 및 워크숍(1회)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1회) -청년 대상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대구한의대학교, 1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및 결과보고회 개최(1회) -참여자 만족도 4.75점 달성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지역 미디어· 홍보물 모니터링	-양성평등 모니터링 민·관·연 협의체 운영 -지역 미디어 및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환류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18명)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워크숍(1회) -양성평등 모니터링 민·관·연협의체 위촉 및 운영(2회) -모니터링 활동(44건) -모니터링 활동 평가회 개최 -전문가 평가 86점 달성
2020년	양성평등교육사업		
	찾아가는 젠더스쿨	-유치원 재직자 및 예비 보육· 유치원 교사의 성평등 의식과	-지역강사 선발(8명) -11회차 교육 진행(297명 이수)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21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유아교육과 대학생 대상 6회 ·재직교사 대상 5회 -교육 만족도 84.3점 달성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	-강사 양성과정 운영 : 심화, 위촉과정	-지역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2명 참석) -심화과정 교육 · 50시간, 7일 · 20명 모집/19명 수료 -참여자 만족도 95.2점 달성 -교육 연계율 100%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토론회 1: 경북! 양성평등 합한 이슈-경북에 안전+더하기 ·토론회 2: 경북! 양성평등 합한 이슈-직장 내 성별 균형 실천&사례 ·토크콘서트 : With 코로나시대, 양성평등 방향과 과제 -경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토론회 개최(2회) -토크콘서트 개최(1회) -참여자 만족도 89점 달성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지역정책· 공간 모니터링	-모니터링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지역 정책 및 공간의 성인지 관점 평가·모니터링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개선 제안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26명) -모니터링 실시(80건) -민관협의체 개최(2회) -참여자 만족도 86.6점 달성
2021년	양성평등교육사업		
	보육·(예비)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젠더스쿨	-경북도내 어린이집·유치원 재직 교사 및 예비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강사 및 전문가 교육평가 결과 공유 및 전문가 자문	-지역강사 선발(7명) -14회차 교육 진행(664명 이수) · 도내 대학생 대상(8회) · 재직교사 대상(6회) -전문가 자문(1회) -경북유치원연합회와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MOU 체결 -교육 만족도 90.1점 달성
	양성평등 강사단	-강사 양성과정 운영 : 기본과 정, 전문과정	-기본과정 강사단 구성(21명) -양성평등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	-양성평등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자문	평가 및 전문가 자문(1회) -기본과정 교육 실시 · 30h, 10회 · 21명 신청/12명 수료 -전문과정 교육 실시 · 17h, 7회 · 21명 신청/19명 수료 -결과보고회 개최(1회) -교육 만족도 86점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알리오단 선정 및 언론 홍보 추진 -릴레이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 토론회 1: 기업의 성별 다양성 및 포용성 제고 방안 · 토론회 2: 세대별 양성평등 문화를 논하다 · 토크콘서트: 더 나은 양성평등, 더 나은 경상북도! -주민 참여형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 실시	-양성평등 경북 청년 알리오단 모집(3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위촉(총 23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토론회(2회)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토크콘서트 및 캠페인(1회) -참여자 만족도 94점 달성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홍보물 모니터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북지역 지자체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활동 발표 및 전문가 자문 -민·관·연 협의체 간담회 실시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3h, 6회 · 47명 신청/28명 수료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28명) -시·군 담당자 간담회(1회) -민·관·연 협의체 간담회(1회) -모니터링 실시 : 84건 -모니터링 활동평가회 개최 -민·관·연 협의체 간담회 및 결과보고회(1회) -참여자 만족도 84.9점
	양성평등교육사업		
2022년	보육·(예비)유치원 교사를 위한 젠더스쿨	-지역 성평등 강사 선발 -보육·(예비)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실시 -강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 평가 결과 공유 및 전문	-지역강사 선발(10명)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경북과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사)경북어린이집연합회) -15회차 교육 진행(796명 이수)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가 자문	-평가간담회 개최(1회) -결과보고회 개최(1회) -교육 만족도 92점 달성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	-강사 양성과정 운영 : 심화과정, 위촉과정 -양성평등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심화과정 교육 · 50h, 17회 · 20명 신청/18명 수료 -위촉과정 교육 · 18h, 6회 · 18명 신청/16명 수료 -평가간담회 개최(1회) -교육 만족도 93점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알리오단 선정 및 언론 홍보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토론회 1: 새로운 정부,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2: 돌봄과 노동을 논하다 ·토크콘서트 : 지역 성평등 문화, 길을 묻다	-알리오단 위촉(33명) -토론회 개최(2회) -토크콘서트 개최(1회) -주민 참여형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 실시 -결과보고회 개최(1회) -참여자 만족도 95점 달성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도시재생지역 모니터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도시재생지역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모니터링 활동 -민·관·연 협의체 간담회 실시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h, 5회 ·33명 신청/27명 수료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27명)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운영(13인, 1회) -모니터링 78건 -민·관·연 협의체 결과 및 환류 간담회(1회) -참여자 만족도 92점 달성
2023년	양성평등교육사업		
	보육·(예비)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젠더스쿨	-교육생 모집 및 강사 선정 -보육·(예비)유치원 교사를 위한 젠더스쿨 교육 실시 -젠더스쿨 교육 방향과 전망 모색, 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강사 선발(9명) -15회차 교육 진행(573명 이수) -성과보고회 개최(1회) -교육 만족도 94점 달성
	양성평등	-교육생 모집 및 강사 선정	-기본과정 교육 실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	-강사양성과정 운영 : 기본과정 -양성평등 강사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8h, 6회 · 18명 신청/14명 수료 -자문회의 개최(1회) -성과보고회 개최(1회) -교육 만족도 97점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모집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진행 ·토론회: 저출생 위기, 돌봄 속에서 대안을 찾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겸비한 토크콘서트 개최 : 지방시대, 양성평등 이야기 꽃 피우며- 직(work) 주(live) 락(play)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모집(31 명) -토론회 및 캠페인(1회) -토크콘서트 및 성과보고회(1회)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전통시장 모니터링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모집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모니터링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모니터링 활동을 위 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통시장에 대한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실시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활 동 소감 발표 및 결과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교육(9h)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23명) -민·관·연 협의체 간담회(1회) -모니터링 실시(55건) -민·관·연 협의체 제2차 간담회 및 활동평가회 -성과보고회 개최(1회)
	청년 공감대 사업		
	청기부여 프로젝트	-양성평등 청년협의체 구성 -양성평등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청년이 원하는 기업 찾기 모 니터링 추진 -청량감 포럼(청년 양성평등 공감 포럼) 및 결과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추진	-양성평등 청년협의체 모집(29명) -양성평등 청년 모니터링단 모집(30명) -청년협의체 간담회 개최(2회) -청년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체결(도내 6개 청년센터) -경북 14개 지역, 25개 중소기업, 모니터링 실시(51건) -청량감 포럼 및 성과보고회 (1회)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하는 경북 청년 공감 Tea 간담회 개최(1회) -참여자 만족도 96점 달성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2024년	양성평등교육사업		
	보육·(예비)유치원 교사를 위한 뉴 젠더스쿨	-뉴 젠더스쿨 자문회의 개최 -보육·(예비)유치원 교사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실시	-지역강사 선발(10명) -10회차 교육 진행(153명 이수) -자문회의 개최(1회) -업무협약식(MOU) 실시(경북도청 어린이집, 경북경찰청어린이집, 경북교육청어린이집) -교육 만족도 95점 달성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양성	-강사 양성과정 운영 : 전문과정, 심화과정, 위촉과정(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계) -성평등 활동가 현장경험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홈커밍 데이 실시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교육 방향 및 활동가 정책 제안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전문과정 교육 실시 · 30h, 10회 · 22명 모집/20명 수료 -심화과정 교육 실시 · 20h, 7회 · 19명 모집/17명 수료 -위촉과정 교육 실시 · 18h, 6회 · 19명 모집/15명 수료 -협력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 운영(9h, 4명 위촉) -경북 성평등 활동가 위촉(11명) -운영위원회 개최(1회) -교육 만족도 91점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다시, 알리오	-양성평등 경북 청년 알리오단 위촉 -청년 공감·세대 소통 토론회 실시 : 저출산 해법, 양성평등 돌봄 문화에서 답을 찾다 -지역 알리오단을 찾아가는 간담회 및 양성평등 피켓 캠페인 실시 :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사회 양성평등 이슈 탐색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알리오단 모집(31명) -알리오단 이원(2트랙) 운영: 청년 알리오단, 도민 알리오단 -경북 청년 공감 소통 간담회 개최(1회) -토론회 개최(1회)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및 피켓 캠페인 진행(1회) -자문회의 개최(1회)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문화시설·공간 및 콘텐츠,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도민 및 청년 모니터링단 위촉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북지역 문화시설·공간 및 콘텐츠,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 9h, 4회 · 15명 신청 / 13명 수료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13명) -모니터링 활동 30건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제도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그룹별 활동 발표 및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2회) -활동평가회 개최
2025년	양성평등교육사업		
	찾아가는 젠더스쿨	-보육종사자 및 양육자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교육 환류를 위해 젠더스쿨 교육생 및 강사로 구성된 교육· 문화 전문협의체 간담회 개최	-교육 강사 10명 선발 -15회차 교육 진행(190명 이수) -교육·문화 전문협의체 간담회(1회) -교육 만족도 97점 달성
	양성평등 강사단 별반(차별반대) 양성사업	-교육·문화 전문협의체 개최 -강사 양성과정 운영 : 기본과정, 전문과정	-전문협의체 개최(1회) -기본과정(8회 24h), 수료 14명 -전문과정(7회, 21h), 21명 수료 -교육 만족도 91점 달성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	-양성평등 경북 남성 알리오단 구성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 경북(경북 청년남성)모아! 양성 평등으로 더 나은 일·삶 -지역별 알리오단을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 개최 -양성평등 피켓 캠페인 실시 : 맨 인 경북, 남성이 생각하는 양성평등 이슈	-남성 알리오단 위촉(20명) -청년 공감 소통 간담회 실시(1회) -권역별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 및 양성평등 피켓 캠페인(2회) -참여자 만족도 94점 달성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문화 모니터링	-청년 모니터링단 위촉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사전 간담회 실시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북지역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문화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단 활동평가회 개최	-청년 모니터링단 모집(15명) -역량 강화 교육 실시(9h, 3회) -모니터링단 위촉(10명) -모니터링 활동 사전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 활동 30건 -민·관·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2회) -활동평가회 개최

2) 한계점

-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의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지침 상 정해진 사업 범위내에서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였고, 양성평등교육사업의 경우 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도 7년 동안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면서 협소하게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어 보임. 기존의 협소한 정책 한계를 넘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및 ‘성평등’ 관점에서 시민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
-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대체로 여성 중심 주제와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최근 남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미흡한 실정임. 또한, 22개 시군 수요 기반 연계사업이 없고, 각종 지역단체나 유관기관 공모 및 협력사업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임. 지역 양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기존의 협소한 정책 한계를 넘어 성평등 관점에서 시민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사업은 대부분 보육·유치원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대상을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부모, 초·중등학생, 교사, 마을지도자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또한, 지역의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및 활동가를 매년 양성하였는데,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후속 프로그램이 홈커밍데이 정도밖에 없었고, 실제 강사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향후 전문강사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이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으로는 알리오단을 구성하여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나 의제가 확산되고 도민에게 체감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사업 방향 모색이 필요해 보임
-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미디어, 홍보물,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역, 중소기업 일·생활균형문화 등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나 개선사항을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를 강화해야 함

3. 타시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

- 타지역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과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2개소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 전남, 대전·세종 3개소를 조사함

1) 부산양성평등센터_거점형

- 거점형인 부산양성평등센터는 2021년 지역 최초 거점형으로 개소하였으며,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정책모니터링사업, 지역특성화사업이 추진되었음.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으로 2023년에 공공영역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 유관기관 성평등문화 확산, 성평등 공동포럼 개최, 성평등강사 역량강화과정 운영, 성인지교육을 운영함. 청년공감대 제고사업으로 청년 소통 네트워크 구성,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책모니터링사업에서는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였음. 지역특성화 사업으로는 성평등 공감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함. 2024년에는 2023년과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추가로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사업과 ‘15분 도시, 양성평등 부산’ 워크북 개발이 새로이 추진되었음. 연도별 상세 추진 내역은 아래 <표 III-5>와 같음
- 2023년에 실시한 공공영역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과 2025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임. 또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구군별 성평등 공감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운영하게 한 것은 성평등사업에 기초자치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추진 기반 및 외연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임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표 Ⅲ-5> 부산성평등센터(거점형)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성과
2023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공영역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종사자 대상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한 조직의 성인지감수성 진단. 2년에 1회	성인지 공공교육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등 정책계획 수 립 기초자료 마련
		유관기관 성평등 문화확산	부산지역 공공기관 및 여성· 가족 서비스 전달기관 네트 워크 구축 및 성평등 실천 계획 수립 및 확산	협약 체결(8건) 및 성 평등 실천계획 공표(29 건)
		성평등문화 확산 공동포럼 운영	‘부산지역 성주류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포럼 개최	지역 성평등 현안 발 굴 및 이슈화
		성평등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교육	37명 강사 양성
		성인지 교육 운영	부산지역 공공기관 직원 및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교육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제공으로 교육 만족도 및 교육 효과성 제고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 소통 네트워크 구성	지역 청년협의체 운영을 통한 청년의제 발굴·논의, 토론회·모니터링 등 사업 기획· 운영·참여	협의체 네트워크활동 참여 4회
		청년 토크 콘서트	청년협의체 및 부산시, 구· 군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년의 날’ 토크콘서트 및 시민참여 축제 개최	172명 청년 참여, 소통 활성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부산 내 대학과 연계하여 재학생 및 지역 청년 대상 성인지 교육 제공	대상 맞춤형 기본, 심화, 특화과정 운영, 5개 대 학, 314명 참여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협의체구성원들이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참여 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과제 도출	청년정책 17개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청년 공통의제 발굴(1 건)
	지역 특성화 사업	성평등 공감도시 부산 조성 사업	구군별 성평등 공감 특화 사업 공모사업 운영	7개 자치구(3개 유관기 관 컨소시엄) 지역특화사 업 지원
2024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공모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공모전 실시	71개 콘텐츠 접수/20 개 작품 시상, 우수상 품 캠페인 및 성인지 교육 활용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성평등문화 확산 공동포럼 운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센터의 역할과 과제’ 포럼 개최	센터 간 우수사례 및 운영 현황 공유를 통한 공동 현안 해결 및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양성평등교육강사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교육	31명 강사 위촉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공공기관, 유관기관, 청년 대상 성인지 교육 제공	대상 맞춤형 기본, 심화, 특화과정 운영, 5개 대학, 314명 참여
		세대 공감 소통 네트워크	청년 및 중장년층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토론회 축제 개최	여러 세대와 성별이 겪는 양성평등 문제와 일상화균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렴 및 반영 방안 모색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구성 후 성별 영향평가,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31건 모니터링, 우수 사례 발굴 18건
	지역 특성화 사업	성평등 공감도시 부산 조성사업	구군별 성평등 공감 특화 사업 공모사업 운영	4개 구 특화사업 발굴 지원, 우수사례 1건 발굴
2025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사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조직진단을 받은 부산지역 공공기관 대상 교육, 간담회 및 개선지원	5개소 공공기관 교육 6회, 직원 228명 참여, 이행간담회 5회, 담당 부서원 19명 참여
		성평등문화 확산 공동포럼 운영	‘성주류화제도 확산을 위한 발전 전략 및 협력방안 모색 포럼 개최	사·구·군, 유관 공공기관, 학계, 시민 61명 참여, 우수사례 및 문제 해결 노하우 공유
		양성평등교육 강사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교육	31명 강사 위촉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운영	공공기관, 유관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대학생, 청년 대상 성평등교육 실시	148개 기관, 6,915명 참여
		세대공감 소통네트워크 구성	청년·중장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완화 및 상호 이해를 위한 기회의 장 마련	간담회 2회, 토크콘서트 1회 개최, 52명 참여
	지역정책 모니터링	돌봄, 일자리, 안전분야	청년, 시민 2개분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모니	36건 모니터링, 우수 사례 7건 발굴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사업	모니터링	터링 활동	
	지역특성화 사업	‘15분 도시, 양성평등 부산’ 워크북 개발	‘15분 도시 부산’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결합하여 지도 형태의 워크북 제작	워크북 제작, 시범활동 실시(시민 200명 참여)
		양성평등 문화체험데이	부산가족축제, 양성평등 주간데이 구군 행사, 부산 평생학습주간에 참여하여 체험부스 운영	3회 진행, 시민 1,444명 참여

자료 : 부산양성평등센터 내부자료

2) 전북양성평등센터_거점형

- 전북양성평등센터는 부산에 이어 2022년 두 번째로 개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정책모니터링사업이 추진되었음. 2024년과 2025년에는 기존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 추가되었음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으로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과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학교사업이 추진되었고, 청년 공감대 제고사업으로 청년 공감 포럼, 청년 양성평등모니터링단, 청년 양성평등 프로젝트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영화제, 여성생애 구술사, 청년의 발견 사업이 추진됨. 연도별 상세 추진 내역은 아래 <표 Ⅲ-6>과 같음
- 전북센터의 경우도 부산센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평등교육 및 문화 실천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직장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및 이행점검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과 차별성이 있었고,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매년 양성평등 영화제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평등 관련 영화 상영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점이 타시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임

<표 III-6> 전북성평등센터(거점형)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2023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	전북지역 기관/기업 수요를 반영한 성평등교육·문화·실천 활동 프로그램	14개 공공기관 20회차 교육(참여자 588명)
		양성평등 글쓰기 및 디자인 공모전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성차별적 문제 발굴을 위한 글쓰기 및 디자인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참여자 14명, 글쓰기 참여자 17명, 시상자 22명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 전문가 양성과정	전북 여성 생애구술 기록을 통한 세대 간 소통 도모, 전라북도 여성의 삶 가시화 를 위한 기록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교육 수료자 17명, 전북 여성 생애구술사 기록집 발간
		양성평등 문화학교	다양한 미디어를 성평등 관 점에서 해석하는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및 대중문화 읽기 강의, 몸 다양성 활동 워크숍, 양육자 교육 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여자 819명
		양성평등 영화제 모어(MORE)	지역의 성평등한 영화와 영 화인을 지원하고 성평등 문 화 경험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영화제 운영	옥순로그, 개미와 베 짱이 등 상영, 80명 참여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여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과 모색 학술 포럼(25명), 10개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공공시설 모니터링	전북도 및 14개 시·군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성인지적 모니터링 활동 실시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236건, 우수사례 12건 발굴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 양성평등 소통 네트워크 구축	청년의 지역정책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환 류 체계 마련	5개팀 14명 운영하여 총 21회 회의 진행, 청년공감대 사업 자문 위원회 8명 위촉, 자문회의 2회 진행
		청년 공감 양성평등 열린 포럼	지역 청년 의제에 대한 청 년간 소통 기회마련을 위해 성평등관련 청년 정책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열린 포럼 3회 진행, 참석자 95명)
		전북 청년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	청년 모니터링 14명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을 위한 청년 성평등 정책 을 지역 청년들이 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참여, 모니터링 보고서 62개, 12건의 정책 제 안서
		전북 청년 양성평등 프로젝트 협력사업	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적으 로 주거, 일자리, 복지, 참 여·권리, 귀농·귀촌 등 분야 내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 설정, 개선을 위한 프로 젝트 협업 진행	4개팀 활동, 400여명 참여
2024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 화 조성 교육	13개 기관, 539명 참여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학교	초·중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	47회, 943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문화관광 콘텐츠 모니터링	문화관광콘텐츠분야 모니터 링 실시	모니터링 60건
	지역 특화 사업	제2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모어(MORE)	영화제를 응원하는 ‘모어’시 짓기, 개막식, 폐막식 및 영 화제 개최	양림동 소녀, 아이슬 란드가 멈추던 날 등 상영, 520명 참여
		전북 여성생애 구술사 사업Ⅱ: 근현대 전북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서	전북여성 생애구술사 포럼, 영화와 함께하는 전북여성 생애구술사 스페셜 토크 개최	128명
		청년의 발견	청년의 발견 콜로키움 1회, 지역 청년 공감 소통 간담 회, 청년의 발견 라운드 테 이블 운영	172명 참여, 청년지원 유관기관 협약 2건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이행 점검 지원사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 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기관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맞춤형 교육지원	8회 교육, 151명 참석, 지역 공공기관 업무 협약 1건
찾아가는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북 9개 시·군 15개 학교 (19개 학급)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	전북 9개 시·군 15개 학교(19개 학급) 38회, 656명 참여	
청소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콘텐츠 1건 개발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사업	청소년 교육콘텐츠 개발 집필진 회의 12회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및 매뉴얼 발행	콘텐츠 1건 개발
		조직구성원을 위한 참여형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형 교육콘텐츠 개발 집필진 회의 10회,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을 위한 참여형 양성평등교육 PPT 및 매뉴얼 발행	
		도민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전북 9개 시·군 16개 기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진행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도민,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도·시·군 문화관광 온라인 홍보물 및 골목길 모니터링	도민 모니터링단 문화관광 온라인 홍보물 60건, 청년 모니터링단 골목길 보행자 환경 모니터링 54건
	지역특성화 사업	제3회 양성평등 영화제 모어(MORE)	제3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개최	꽃풀소, 너에게 달기를, 겨우살이, 눈눈 등 상영, 185명 참여
		전북 여성 생애구술사 사업Ⅲ: 근현대 전북 여성의 삶과 함께	전북 여성 생애구술사 발간	6인 채록

자료 : 전북양성평등센터 내부자료

3) 인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9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지역정책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함
-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공감대 제고사업으로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청년의제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함. 지역정책모니터링사업으로는 지하철, 공공도서관, 둘레길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음
- 인천지역도 경북과 마찬가지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기관이므로 사업

내용은 경북과 비슷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평등교육을 인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경북지역과 차별성이 있었음

<표 Ⅲ-7> 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2023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인천 관내 중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25개교, 2,678명 참여
		젠더활동가 양성	성인지 관점 즉흥 연극교 육 실시	30명 참여, 지역사회 내 성평등 특흥 연극 배우로 활동연계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U&I 양성평등 청년정책 참여단	포토보이스 제작 및 사진 전시회 운영	양성평등주간 사진 전시 및 포토보이스 북 발간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	인천지하철 역내 수유실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51건 전수 모니터링
2024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인천 관내 중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13개교, 1,452명 참여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공감·세대소통 프로그램	저출생, 청년취업 등 주제 간담회 개최	15명 참여, 청년 의제 발굴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모니터링	인천시 관내 공공도서관 성인지관점 모니터링	45건 모니터링
2025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인천 관내 중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11개교 2,296명 참여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공감·세대소통 프로그램	1인 가구 주거·안전에 대 한 청년토론회 개최	15명 참여, 청년 성평 등 의제 발굴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인천 둘레길 모니터링	탐방로, 여성친화 투 어길 16코스 모니터링

자료 :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자료

4) 대전·세종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4년부터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함
-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였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특강, 민관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함. 청년공감대 제고 사업으로 청년 과학 연구 분야 직장문화 점검 및 일·생활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토크콘서트 개최, 공공의료기관 청년 간호사 대상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함.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으로 청년축제, 청년정책, 도서관사업, 공공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함
- 대전·세종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 과학연구 분야 직장문화 점검과 공공의료 기관 청년 간호사 대상 간담회 및 포럼을 추진한 점이 차별적임

<표 III-8>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4~2025)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2024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보육 및 돌봄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37회, 988명 공통강의안 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특강	시민 대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특강	1회, 137명
		민관네트워크 사업	양성평등문화 확산 홍보 부스 운영 및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실시	홍보물품 150개, 리플릿 200개 배포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	청년 과학연구 분야 직장 문화 점검 및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토크콘서트 개최	간담회 2회, 토크콘서트 1회, 12명 참여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정책 모니터링	청년축제,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축제 16건, 청년정책 18건 모니터링
		시민 모니터링	도서관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정책 77건 모니터링
2025년	양성평등	찾아가는	지역 공공기관 및 기타	21회, 1,012명 참여

Ⅲ. 경상북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의식·문화 확산	양성평등교육	기관 종사자, 주민 대상 성인지 교육	
		민관네트워크 사업	공공, 민간기관, 여성단체, 학교, 육해공군 등 과 협력 상시화	성평등 콘텐츠 제공
			젠더 전문가, 컨설턴트, 지역 여성단체 등 대상 디 지탈성범죄 관련 교육 및 지역 단체 활동가 소진예 방 워크숍	교육 29명, 워크숍 20명 참여, 기관별 사업 공유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	공공의료기관 청년 간호사 대상 간담회 및 포럼	간담회 4회, 포럼 1회,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계(대전·세종 지역 간호인력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 영향 평가, 2025)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참여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일·생활 균형 논의 포럼	간호사, 의료정책 연 구원 등 73명 참여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정책모니터링	청년정책 진단 모니터링	25건 실시, 개선과제 16건 도출
			지역 공공생활체육시설 모니터링	대전 22개소, 세종 7 개소, 총 85건

자료 :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자료

5) 전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2019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지역정책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함
-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과 전남페미니즘대학을 연차적으로 진행함. 청년공감대 제고사업으로 청년간담회, 토론회 등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지역정책모니터링사업으로 자치법규, 관광콘텐츠, 가족지원시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전남지역도 경북과 마찬가지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기관이므로 사업

내용은 경북과 비슷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 시민 성평등교육에서 특화하여 여성학실천대학-전남페미니즘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학 전문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점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주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음

<표 III-9> 전남여성가족재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2023~2025)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실적
2023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전남 청년 및 주민대상 양 성평등교육	14회, 894명 참여
		여성학실천대학- 전남페미니즘대학	여성학 전문과정 운영 등 페미니즘대학 5기 운영	14강, 239명 참여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 공감 소통 프로그램	대학생-기업-기업 토론회	23회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자치법규 모니터링	23건
2024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학실천대학- 전남페미니즘대학	여성학 전문과정 운영 등 페미니즘대학 6기 운영	12강, 179명 참여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소통 워크숍 운영	워크숍 4회, 캠페인 2회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관광콘텐츠 모니터링	26건
2025년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전남 청년 및 주민대상 양성 평등교육	39회, 1,379명
		농어촌 양성평등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지역 주민 양성평등교육	51회
		여성학실천대학- 전남페미니즘대학	여성학 전문과정 운영 등 페미니즘대학 7기 운영	13강, 367명 참여
	청년공감대 제고사업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청년이 질문하고 기업이 대답하다’ 토론회 개최	2회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가족지원시설 모니터링	44건

자료 : 전남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자료

4. 소결

- 경북지역은 2019년 성평등가족부에서 공모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형태로 계속하여 운영해 옴. 사업영역은 크게 양성 평등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으로 분류되어 세부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에는 141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경북의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지침 상 정해진 사업 범위내에서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였고, 양성평등교육사업의 경우 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도 7년 동안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면서 협소하게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어 보임.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대체로 여성 중심 주제와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최근 남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미흡한 실정임. 또한, 22개 시군 수요 기반 연계사업이 없고, 각종 지역단체나 유관기관 공모나 협력사업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임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사업은 대부분 보육·유치원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대상을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지역의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및 활동가를 매년 양성하였는데,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후속 프로그램이 흠커밍데이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 강사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향후 전문강사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이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으로는 알리오단을 구성하여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나 의제가 확산되고 도민에게 체감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사업방향 모색이 필요해 보임.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미디어, 홍보물,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역,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문화 등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나 개선사항을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연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를 강화해야 함
- 타시도 5개소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사례 중 차별성 있는 사업은 거점형인

부산양성평등센터의 경우 2023년에 실시한 공공영역 종사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과 2025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어서 의미가 있어 보임. 또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구군별 성평등 공감 특화 사업을 공모하여 운영하게 한 것은 성평등사업에 기초자치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추진 기반 및 외연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였음

- 전북양성평등센터는 부산에 이어 2022년 두 번째로 개소하였으며, 부산센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평등교육 및 문화 실천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며, 직장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및 이행점검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과 차별성이 있었음. 또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매년 양성평등 영화제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평등 관련 영화 상영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점이 타시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임
-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경북과 마찬가지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기관이므로 사업내용은 경북과 비슷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평등교육을 인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경북 지역과 차별성이 있었음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2024년에 시작한 후발주자로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 과학연구 분야 직장문화 점검과 공공 의료기관 청년 간호사 대상 간담회 및 포럼을 추진한 점이 차별적이었음
-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경북과 마찬가지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기관이므로 사업내용은 경북과 비슷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 시민 성평등교육에서 특화하여 여성학실천대학-전남페미니즘 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학 전문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점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주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었음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한계점 및 타시도 사업 사례를 통해 지역 성평등 센터가 설치되면 기존의 협소한 정책 한계를 넘어 성평등 관점에서 시민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Ⅳ.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I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2027년 출범 예정인 성평등센터 출범에 대응하여 센터의 효과적 운영 방향 및 세부 추진사업을 마련하고자 함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을 사용하였음.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성평등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평등 전문가는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참여자는 성평등사업에 직접 참여한 이용자가 대상임.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세 집단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함
- 조사는 이메일로 설문지 파일과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 웹페이지 URL을 전송하고, 우선으로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였으며, 미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와 독려 전화를 하여 회수율을 높이하고자 하였음. 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 23명, 성평등 전문가 20명, 사업참여자 47명 총 90명이 참여하였음. 조사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 실시되었음

2)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응답자 기본정보,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8문항)을 기본으로 하였고,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1단계에서는 경상북도 성평등 환경 조성 추진 우선 영역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5문항)으로 구성함. 2단계에서는 1단계 세부 영역에 대한 개별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성평등 의식변화 영역(7문항), 문화확산 영역(5문항), 안전 영역(5문항), 노동시장환경 영역(5문항),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3문항)으로 구성함. 그 외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면 좋을 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형 1문항이 있음

<표 IV-1> 설문조사 내용

항 목	내 용
일반적 사항	- 참여자 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자녀여부(자녀 수), 최종학력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5점 척도)	- 경상북도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8문항)
경상북도 성평등 환경 조성 추진 영역 우선도 (9점 척도)	- 경상북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5개 사업 영역에 대한 우선 추진도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 우선도(9점 척도)	-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7개 사업) -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5개 사업) - 안전환경 조성 영역(5개 사업) -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5개 사업) -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3개 사업)
사업 아이디어 제안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3) 자료분석

- 자료의 확인 및 검수가 완료된 최종 설문자료에 대해서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평균값(mean)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함
- 다음으로, 경상북도 성평등 환경 조성 추진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계층분석과정) 분석을 실시함. 검증이 완료된 자료에 대해 Microsoft office Excel을 이용하여 쌍대 비교(Pairwise) 및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고, 비교수행자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결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²⁾)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³⁾)을 측정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일관성 비율이 0.1이상인

2) CI(Consistency Index: 일관성 지수): 평가자의 응답이 얼마나 모순이 없는지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임

3) CR(Consistency Ratio: 일관성 비율): 평가자의 응답이 무작위(랜덤)로 찍은 것과 비교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나타내는 상대적인 비율 지표임

경우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본 조사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5가지 사업과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 항목 모두 9점 척도(1: 비슷함, 동등, 2: 조금, 3: 약간, 4: 상당히, 5: 많이, 6: 매우 많이, 7: 아주 많이, 8: 대단히 많이, 9: 극히 많이)를 이용하여 쌍대 비교함

- 분석요인은 1단계 영역의 경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22년 수행한 경상북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김명화 외, 2022)의 대과제 영역을 활용하여 성평등의식 변화, 성평등 문화 확산, 안전환경 조성, 노동시장 성평등,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로 함. 2단계 영역별 세부사업은 그간 성평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성평등 지역 환경 조성사업 및 타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향후 센터가 설치되면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으로 구성함

<표 IV-2>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AHP 분석 요인

1단계_영역	2단계_영역별 세부사업
성평등의식 변화	•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 •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 • 양육자 성평등교육 •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 지역리더 성평등교육 •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 지역 일반 주민 성평등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 내 민간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 • 성평등 활동가 양성 •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 •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
안전환경 조성	•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 •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노동시장 성평등	•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 기업(관)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 • 기업(관)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 기업(관)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여성 사회참여·역량강화	•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 •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4) 응답자 특성

-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자 유형의 경우 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이 25.6%, 성평등 전문가 22.2%, 성평등사업 참여자 52.2%임. 성별로는 여성이 72.2%, 남성 27.8% 참여하였고, 기혼이 76.7% 미혼이 23.3%였음. 자녀 여부는 있음이 67.8%, 자녀 없음이 32.2%였음

<표 IV-3> 응답자 일반적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 수(N=90)	비율
참여자 유형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23	25.6%
	성평등 전문가	20	22.2%
	성평등사업 참여자	47	52.2%
성별	여성	65	72.2%
	남성	25	27.8%
혼인 상태	미혼	21	23.3%
	기혼	69	76.7%
자녀 여부	없음	29	32.2%
	있음	61	67.8%

2. 조사결과

1)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 경상북도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⑤경북은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이다’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⑧경북은 양성평등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2.91점), ‘⑥ 경북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2.58점), ‘④경북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취업하고,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2.41점), ‘③경북의 가족 내 문화는 성평등하다’(2.40점), ‘⑦경북은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2.38점), ‘① 경북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2.33점), ‘②경북은 성평등의식이 높다’(2.28점)의 순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참여자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성평등 전문가’가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하여 타 집단 대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경북은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집단 차이($p<.05$)를 보였음
-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⑤,⑥,⑦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p<.05$)를 보였음
- 혼인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으며, ‘④경북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취업하고,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p<.05$)를 보였음. 결혼 이후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의 사례를 통한 간접경험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자녀 여부에 따라서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 경력 단절 문제,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 높임

<표 IV-4>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 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90	2.33	2.28	2.40	2.41	3.00	2.58	2.38	2.91
참여자 유형	담당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23	2.30	2.30	2.57	2.52	3.17	2.61	2.61	3.00
	성평등전문가	30	2.35	2.15	2.25	2.15	3.05	2.45	1.85	2.85
	성평등사업 참여자	47	2.34	2.32	2.38	2.47	2.89	2.62	2.49	2.89
	집단차이		F=0.016	F=0.309	F=0.621	F=0.978	F=0.672	F=0.225	F=3.425*	F=0.176
성별	남성	25	2.68	2.56	2.72	2.88	3.04	2.88	2.48	3.20
	여성	65	2.20	2.17	2.28	2.23	2.98	2.46	2.34	2.80
	집단차이		t=2.323*	t=2.058*	t=2.052*	t=3.005*	t=0.241	t=1.879	t=0.562	t=1.987
혼인 상태	미혼	21	2.38	2.29	2.48	2.76	3.19	2.67	2.38	2.90
	기혼	69	2.32	2.28	2.38	2.30	2.94	2.55	2.38	2.91
	집단차이		t=0.276	t=0.050	t=0.425	t=1.945*	t=1.026	t=0.483	t=0.015	t=0.038
자녀 여부	없음	29	2.41	2.24	2.45	2.59	3.03	2.59	2.45	2.97
	있음	61	2.30	2.30	2.38	2.33	2.98	2.57	2.34	2.89
	집단차이		t=0.583	t=0.288	t=0.336	t=1.198	t=0.231	t=0.057	t=0.431	t=0.407

① 경북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② 경북은 성평등 의식이 높다

③ 경북의 가족 내 문화는 성평등하다

④ 경북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취업하고,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

⑤ 경북은 아동·여성 안전 환경이다

⑥ 경북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⑦ 경북은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

⑧ 경북은 양성평등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

* p<.05

2) 1단계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역 우선순위 분석

- 경북성평등센터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이해 추진해야 할 성평등사업 영역에 대하여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의 일관성 비율(CR)은 모두 0.1이하로 나타나 설문 응답에 일관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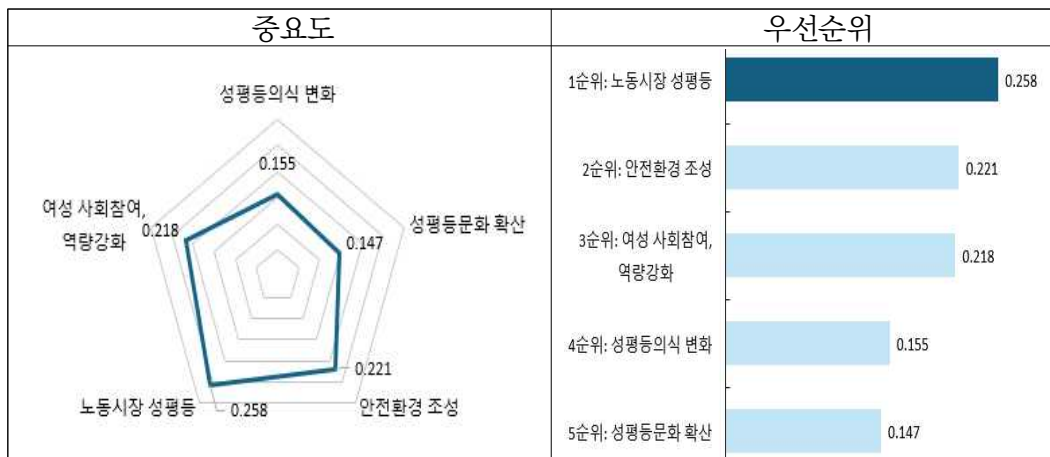
가. 전체 AHP 분석 결과

- 1단계로 조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영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성평등’(0.258)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다음으로 ‘안전환경 조성’(0.221),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218), ‘성평등의식 변화’(0.155), ‘성평등문화 확산’(0.147) 순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성평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5>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구분	성평등의식 변화	성평등문화 확산	안전환경 조성	노동시장 성평등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중요도	0.155	0.147	0.221	0.258	0.218
순위	4	5	2	1	3

CI: 0.0035, CR: 0.0039



[그림 IV-1]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나. 집단별 AHP 분석 결과

-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는 참여자 유형별(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세 집단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과,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들이 선정한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노동시장 성평등’의 중요도가 0.306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251), ‘안전환경 조성’(0.191), ‘성평등문화 확산’(0.128), ‘성평등의식 변화’(0.123) 순으로 나타남
- 성평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중요도가 0.245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노동 시장 성평등’(0.232), ‘성평등의식 변화’(0.217), ‘안전환경 조성’(0.162), ‘성평등 문화 확산’(0.144) 순으로 나타남
- 성평등사업 참여자들이 선정한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안전환경 조성’의 중요도가 0.26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노동 시장 성평등’(0.243),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191), ‘성평등문화 확산’(0.158), ‘성평등의식 확산’(0.146) 순으로 나타남
-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노동시장 성평등’을, 성평등 전문가는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안전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6>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구분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성평등의식 변화	0.123	5	0.217	3	0.146	5
성평등 문화 확산	0.128	4	0.144	5	0.158	4
안전환경 조성	0.191	3	0.162	4	0.263	1
노동시장 성평등	0.306	1	0.232	2	0.243	2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0.251	2	0.245	1	0.191	3
일관성 측정	CI: 0.0239 CR: 0.0265		CI: 0.0122 CR: 0.0136		CI: 0.0084 CR: 0.0093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들이 선정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성평등’(0.267)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다음으로,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243), ‘안전환경 조성’(0.218), ‘성평등의식 변화’(0.147), ‘성평등문화 확산’(0.125) 순으로 나타남
- 남성들이 선정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AHP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성평등’(0.229)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다음으로, ‘안전환경 조성’(0.221), ‘성평등문화 확산’(0.219), ‘성평등의식 변화’(0.173),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158)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사회 참여 및 역량강화’부분은 여성이 2순위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가장 후순위(5위)로 인식하고 있어 성별 인식격차가 뚜렷하였음

<표 IV-7>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구분	여성		남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성평등의식 변화	0.147	4	0.173	4
성평등문화 확산	0.125	5	0.219	3
안전환경 조성	0.218	3	0.221	2
노동시장 성평등	0.267	1	0.229	1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0.243	2	0.158	5
일관성 측정	CI: 0.0045 CR: 0.0050		CI: 0.0074 CR: 0.0082	

3) 2단계 성평등 환경 조성 영역별 세부 사업 우선순위 분석

- 1단계에 이어 성평등사업 영역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2단계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의 일관성 비율(CR)은 모두 0.1이하로 나타나 설문 응답에 일관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함

가.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① 전체 AHP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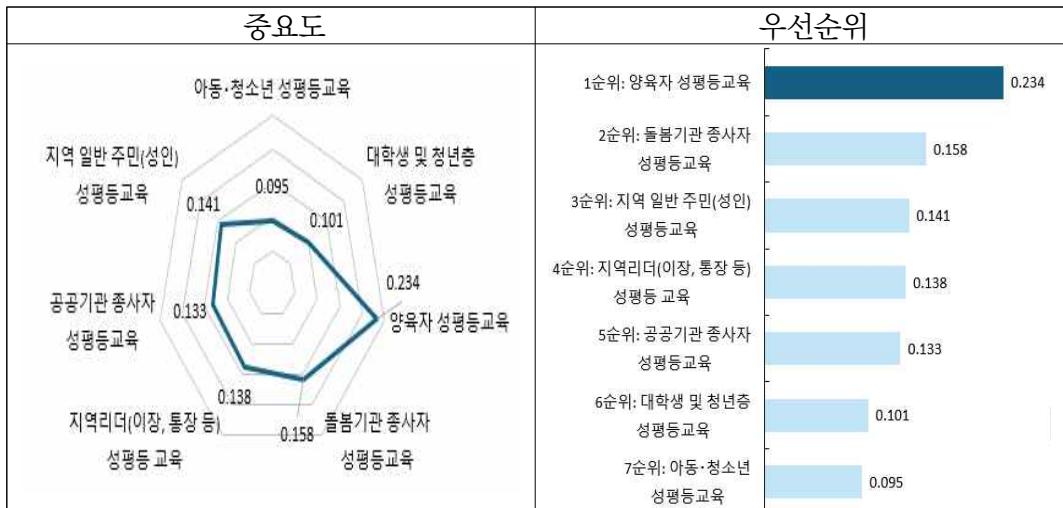
-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은 1단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5개 영역 중 4순위를 차지한 영역이며, 2단계 분석을 위한 하위 요인은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 ‘양육자 성평등교육’,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지역 리더(이장, 통장 등) 성평등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지역 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 7개 요인임
-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7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양육자 성평등교육’의 중요도가 0.234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58), ‘지역 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0.141), ‘지역리더(이장, 통장 등) 성평등교육’(0.138),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33),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0.101),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 (0.095)의 순으

로 나타나 성평등의식 변화를 위해 양육자, 돌봄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부모 등 양육자 교육과 보육기관·유치원·지역 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추진 필요해 보임

<표 IV-8>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구분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	대학생· 청년층 성평등교육	양육자 성평등교육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지역리더 성평등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지역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
중요도	0.095	0.101	0.234	0.158	0.138	0.133	0.141
순위	7	6	1	2	4	6	3

CI: 0.0188, CR: 0.0209



[그림 IV-2]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② 집단별 AHP 분석 결과

- 성평등 의식변화 영역의 7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 보면,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지역 일반주민 성평등

교육'의 중요도가 0.242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양육자 성평등교육' (0.155), '지역 리더 성평등교육'(0.137),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과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 (각 0.122),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0.114),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03)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은 지역 일반주민과 지역 리더, 양육자 성평등교육을 우선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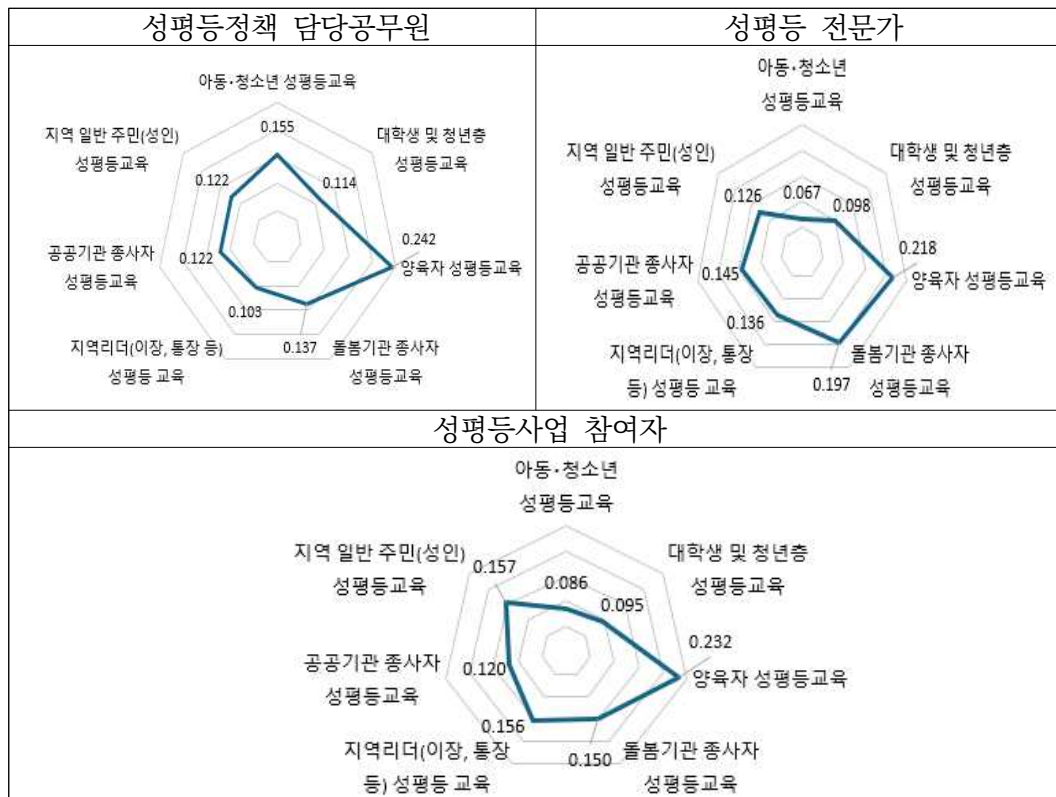
- 성평등 전문가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양육자 성평등교육'의 중요도가 0.218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97),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45), '지역리더(이장, 통장 등) 성평등교육'(0.136), '지역 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0.126),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0.098),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0.067)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 전문가 역시 양육자 및 돌봄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양육자 성평등교육'의 중요도가 0.232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 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0.157), '지역리더(이장, 통장 등) 성평등교육'(0.156),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50),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20),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0.095),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0.086)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양육자와 지역 주민, 지역 리더 성평등교육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이처럼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모두 양육자 성평등교육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양육자 성평등교육'의 중요도가 0.254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64), '지역 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0.138), '지역리더(이장, 통장 등) 성평등교육'(0.136),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24),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0.090),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0.087)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양육자 성평등교육’의 중요도는 0.184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 일반 주민(성인) 성평등교육’(0.147),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39),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0.135),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0.132),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0.118)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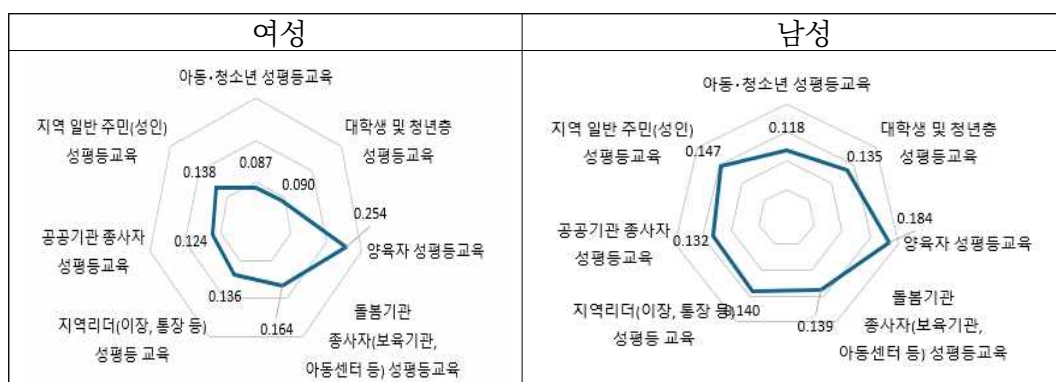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봤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양육자 성평등교육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지역 주민, 지역 리더 성평등교육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IV-9>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세부사업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여성		남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양육자 성평등교육	0.155	2	0.067	7	0.086	7	0.087	7	0.118	7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0.114	6	0.098	6	0.095	6	0.090	6	0.135	5
지역 일반주민(성인) 성평등교육	0.242	1	0.218	1	0.232	1	0.254	1	0.184	1
지역리더 성평등교육	0.137	3	0.197	2	0.150	4	0.164	2	0.139	4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0.103	7	0.136	4	0.156	3	0.136	4	0.140	3
대학생 및 청년층 성평등교육	0.122	5	0.145	3	0.120	5	0.124	5	0.132	6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	0.122	4	0.126	5	0.157	2	0.138	3	0.147	2
일관성 측정	CI: 0.0156 CR: 0.0173		CI: 0.0328 CR: 0.0365		CI: 0.0188 CR: 0.0209		CI: 0.0133 CR: 0.0148		CI: 0.0208 CR: 0.0232	



[그림 IV-3]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그림 IV-4]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나.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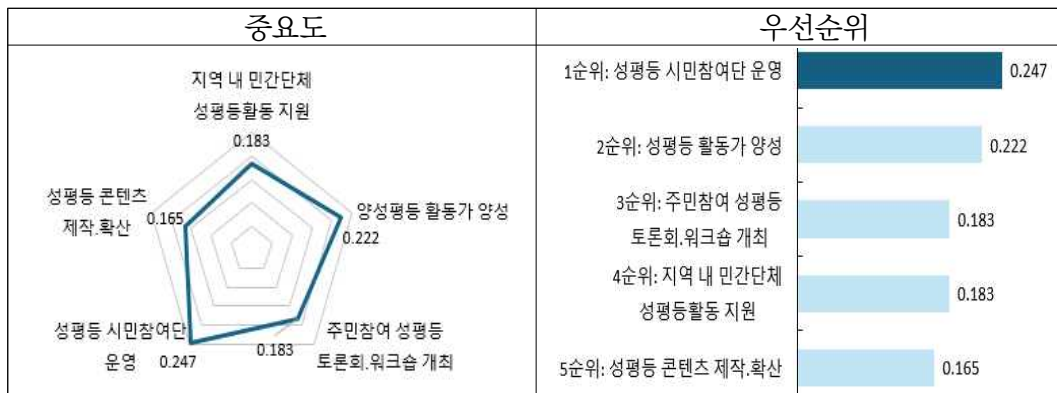
① 전체 AHP 분석 결과

-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은 1단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역 5개 영역 중 5순위를 차지한 요인임. 2단계 분석을 위한 하위 요인은 ‘지역 내 민간단체 성평등 활동 지원’, ‘성평등 활동가 양성(성평등교육강사, 컨설턴트 등)’,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모니터링, 캠페인 등)’, ‘성평등 콘텐츠(뉴스레터, 영상 등) 제작·확산’ 5개 요인임
-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5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성평등 시민 참여단 운영’의 중요도가 0.247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성평등 활동가 양성’(0.222),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 워크숍 개최’와 ‘지역 내 민간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각 0.183), ‘성평등 콘텐츠 제작’ (0.165)의 순으로 나타나 도민 참여 확대 및 성평등 활동가 양성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관 중심 사업 추진보다는 도민 참여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IV-10>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구분	지역 내 민간 단체 성평등 활동 지원	성평등 활동가 양성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 워크숍 개최	성평등 시민참 여단 운영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
중요도	0.183	0.222	0.183	0.247	0.165
순위	4	2	3	1	5

CI: 0.0047, CR: 0.0052



[그림 IV-5]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② 집단별 AHP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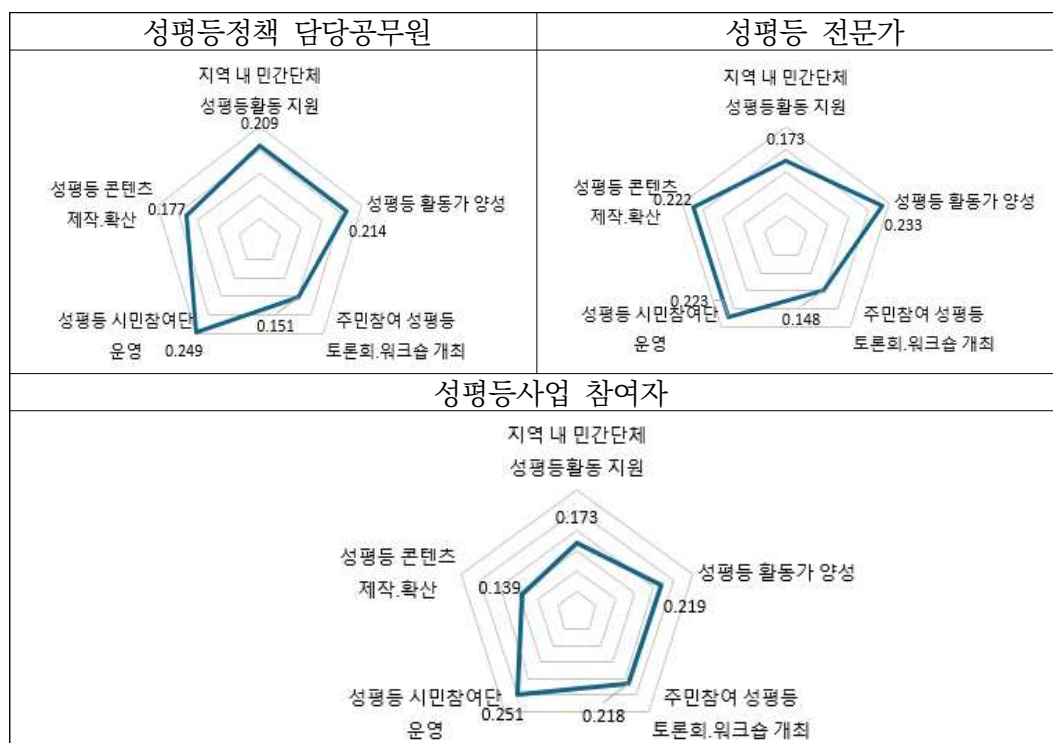
-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5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 보면,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의 중요도가 0.249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성평등 활동가 양성’(0.214), ‘지역 내 민간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0.209),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0.177),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0.151)의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은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에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성평등 활동가 양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성평등 전문가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의 중요도가 0.23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0.223),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0.222), ‘지역 내 민간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0.173),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0.148)의 순으로 나타나 성 평등 전문가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 하였음
-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의 중요도가 0.251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성평등 활동가 양성’(0.219),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0.218), ‘지역 내 민간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0.173),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0.139)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사업 참여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평등에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성평등 활동가 양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참여자 유형별 세 집단 중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성평등에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성평등 활동가 양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평등 전문가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의 중요도가 0.232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0.230), '지역 내 민간단체 성평등활동 지원'(0.195),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0.183),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0.159)의 순으로 나타나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남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의 중요도가 0.28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 워크숍 개최'(0.254), '성평등 활동가 양성'(0.191), '지역 내 민간단체 성평등활동 지원'(0.149), '성평등 콘텐츠 제작, 확산'(0.122)의 순으로 나타나 성평등에 시민참여와 주민 토론회를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에 시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IV-11>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세부사업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여성		남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지역 내 민간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	0.209	3	0.173	4	0.173	4	0.195	3	0.149	4
성평등 활동가 양성	0.214	2	0.233	1	0.219	2	0.232	1	0.191	3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 워크숍 개최	0.151	5	0.148	5	0.218	3	0.159	5	0.254	2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0.249	1	0.223	2	0.251	1	0.230	2	0.283	1
성평등 콘텐츠 제작·확산	0.177	4	0.222	3	0.139	5	0.183	4	0.122	5
일관성 측정	CI: 0.0210 CR: 0.0233		CI: 0.0258 CR: 0.0287		CI: 0.0056 CR: 0.0062		CI: 0.0100 CR: 0.0111		CI: 0.0034 CR: 0.0038	



[그림 IV-6]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그림 IV-7]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다. 안전환경 조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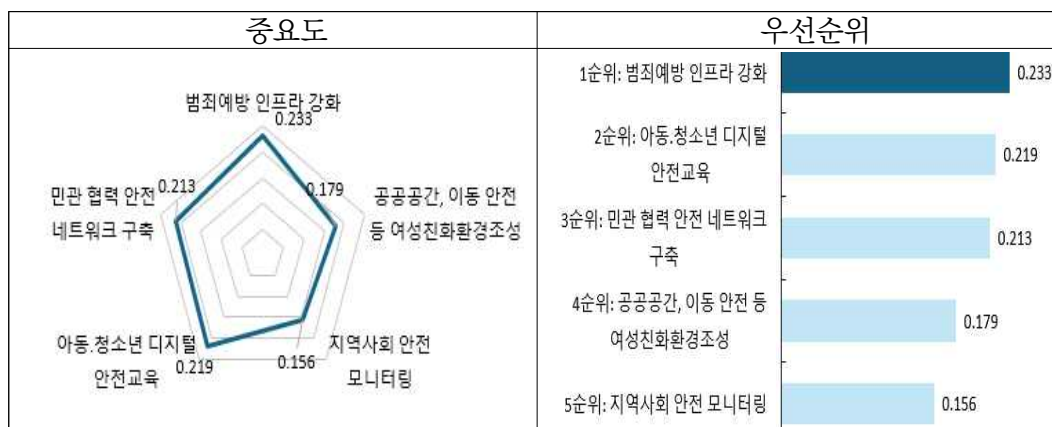
① 전체 AHP 분석 결과

- 안전환경 조성 영역은 1단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5개 영역 중 2순위를 차지한 요인임. 2단계 분석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영역의 하위 요인은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안심귀가거리, 비상벨, CCTV 등)’,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 환경조성’,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5개 요인임
- 안전환경 조성 영역의 5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의 중요도가 0.23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0.219), ‘민관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0.213),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0.179),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0.156) 순으로 나타나 안심귀가거리, 비상벨, CCTV 등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민관협력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경찰청-지자체 안전정책부서-민간 참여를 통한 공동대응이 요구됨

<표 IV-12>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구분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 친화환경조성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중요도	0.233	0.179	0.156	0.219	0.213
순위	1	4	5	2	3

CI: 0.0040, CR: 0.0045



[그림 IV-8]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② 집단별 AHP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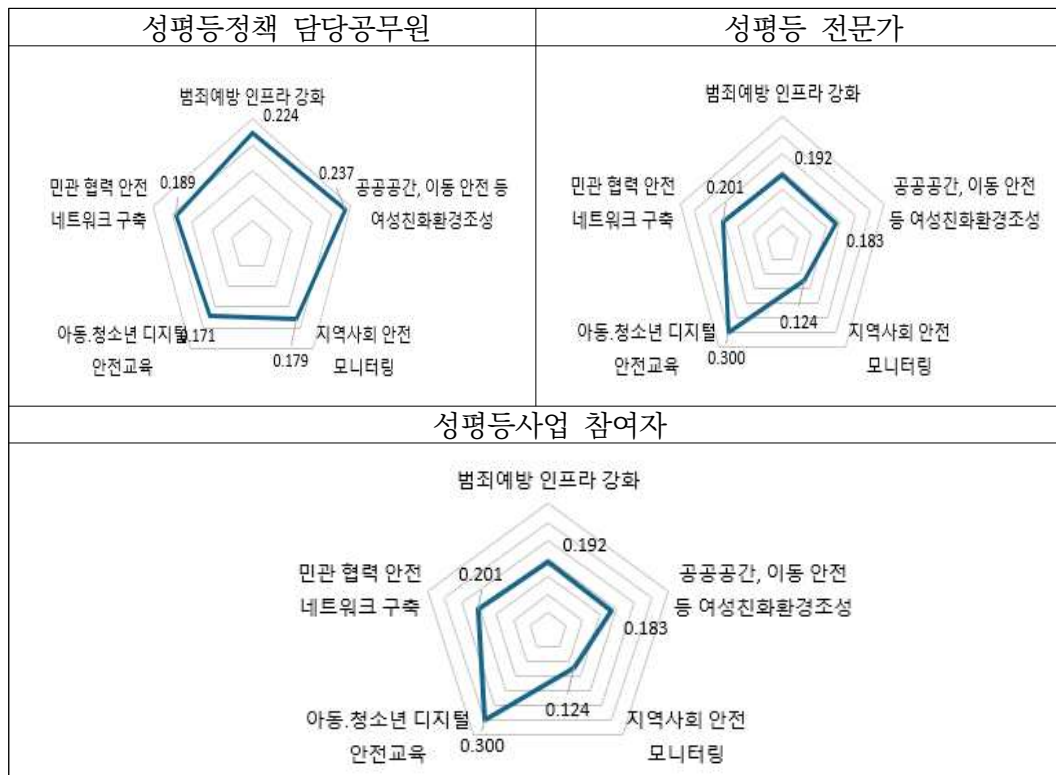
- 안전환경 조성 영역의 5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의 중요도가 0.237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0.224),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0.189),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0.179),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0.171)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성평등 전문가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의

중요도가 0.300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0.201),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0.192),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0.183),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0.124)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 전문가는 공무원과 달리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과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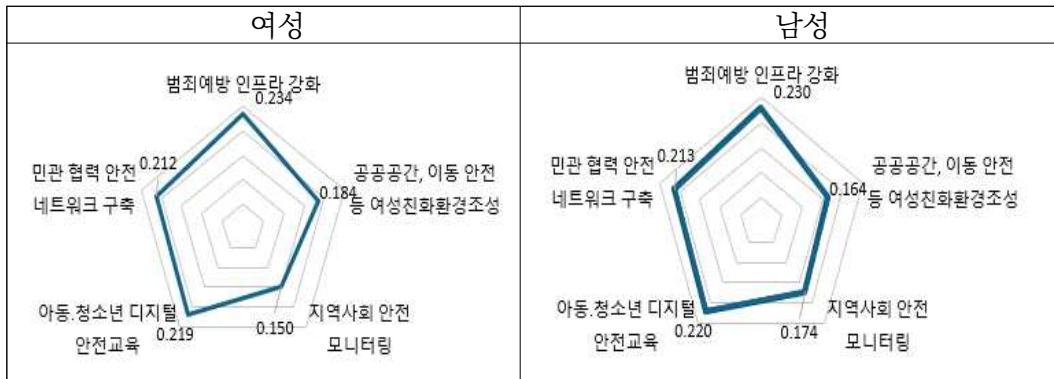
-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의 중요도가 0.25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0.228),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0.212),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0.157),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0.149)의 순으로 나타나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와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처럼,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 사업 참여자 간 우선 추진과제는 약간 상이하게 나타남.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성평등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을,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의 중요도가 0.234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0.219),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0.212),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0.184),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0.150)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의 중요도가 0.230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0.220),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0.213),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0.174),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환경조성’(0.164)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표 IV-13>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세부사업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여성		남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0.224	2	0.192	3	0.253	1	0.234	1	0.230	1
공공공간, 이동 안전 등 여성친화 환경조성	0.237	1	0.183	4	0.149	5	0.184	4	0.164	5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0.179	4	0.124	5	0.157	4	0.150	5	0.174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0.171	5	0.300	1	0.212	3	0.219	2	0.220	2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0.189	3	0.201	2	0.228	2	0.212	3	0.213	3
일관성 측정	CI: 0.0251 CR: 0.0278		CI: 0.0328 CR: 0.0365		CI: 0.0162 CR: 0.0181		CI: 0.0073 CR: 0.0081		CI: 0.0168 CR: 0.0186	



[그림 IV-9]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그림 IV-10] 안전환경 조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라.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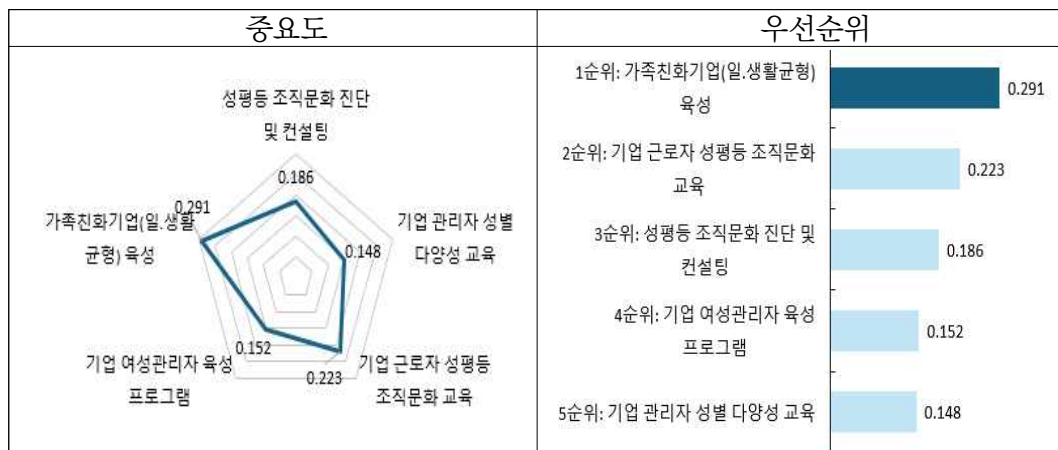
① 전체 AHP 분석 결과

-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은 1단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5개 영역 중 1순위를 차지한 영역임. 2단계 분석을 위한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하위 요인은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5개 요인임
-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5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의 중요도가 0.291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0.223),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0.186),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52),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0.148)의 순으로 나타남. 가족친화기업 육성과 근로자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조직문화 성평등 진단 및 교육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표 IV-14>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구분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중요도	0.186	0.148	0.223	0.152	0.291
순위	3	5	2	4	1

CI: 0.0026, CR: 0.0029



[그림 IV-11]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② 집단별 AHP 분석 결과

-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5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 보면,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의 중요도가 0.356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0.188),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0.185),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62),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0.109)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기업 근

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성평등 전문가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중요도가 0.280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0.269),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0.201),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30),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19)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 전문가는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의 중요도가 0.31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0.205),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0.187),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0.148),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47)의 순으로 나타남.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이처럼,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고, 성평등 전문가는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의 중요도가 0.295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0.217),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0.177),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74),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0.137)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의 중요도가 0.341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0.199),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0.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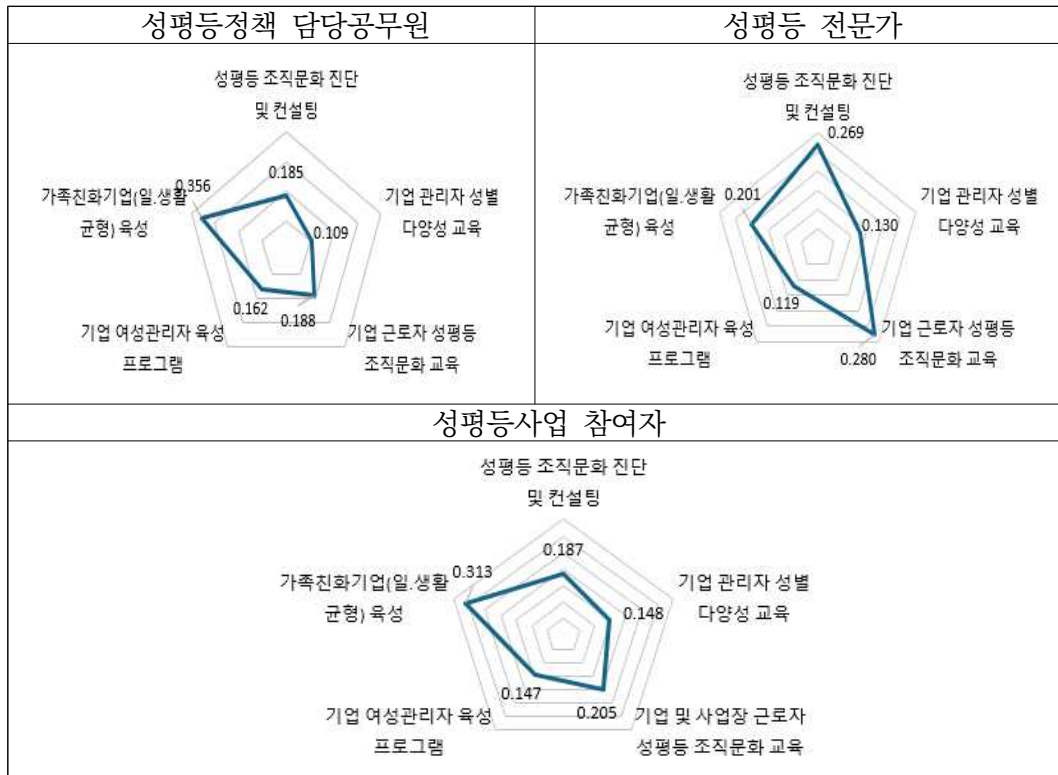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0.166),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0.108)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음

<표 IV-15>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세부사업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여성		남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0.185	3	0.269	2	0.187	3	0.177	3	0.186	3
기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	0.109	5	0.130	4	0.148	4	0.137	5	0.108	5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0.188	2	0.280	1	0.205	2	0.217	2	0.199	2
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0.162	4	0.119	5	0.147	5	0.174	4	0.166	4
가족친화기업 (일·생활균형)육성	0.356	1	0.201	3	0.313	1	0.295	1	0.341	1
일관성 측정	CI: 0.0170 CR: 0.0189		CI: 0.0216 CR: 0.0240		CI: 0.0021 CR: 0.0023		CI: 0.0049 CR: 0.0054		CI: 0.0116 CR: 0.0129	

I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그림 IV-12]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그림 IV-13]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마.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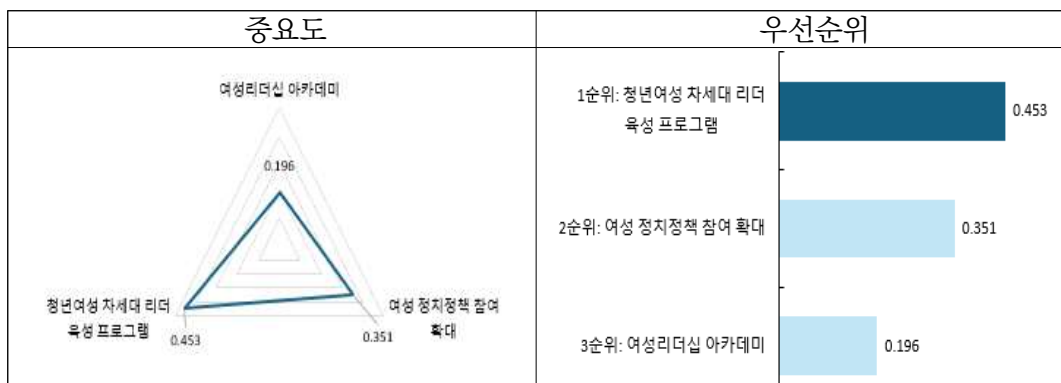
① 전체 AHP 분석 결과

-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은 1단계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5개 영역 중 3순위를 차지한 요인임. 2단계 분석을 위한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의 하위 요인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3개 요인임
-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의 3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0.45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0.351), ‘여성리더십 아카데미’(0.196)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표 IV-16>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구분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육성 프로그램
중요도	0.196	0.351	0.453
순위	3	2	1

CI: 0.0874, CR: 0.0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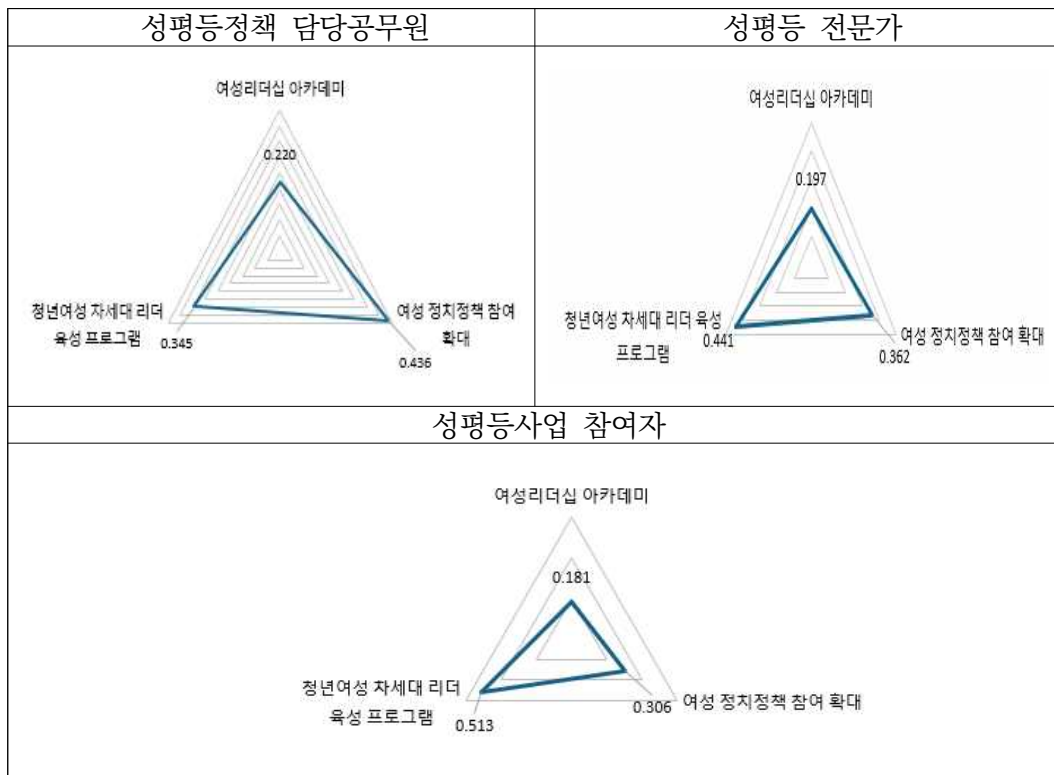
[그림 IV-14]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전체

② 집단별 AHP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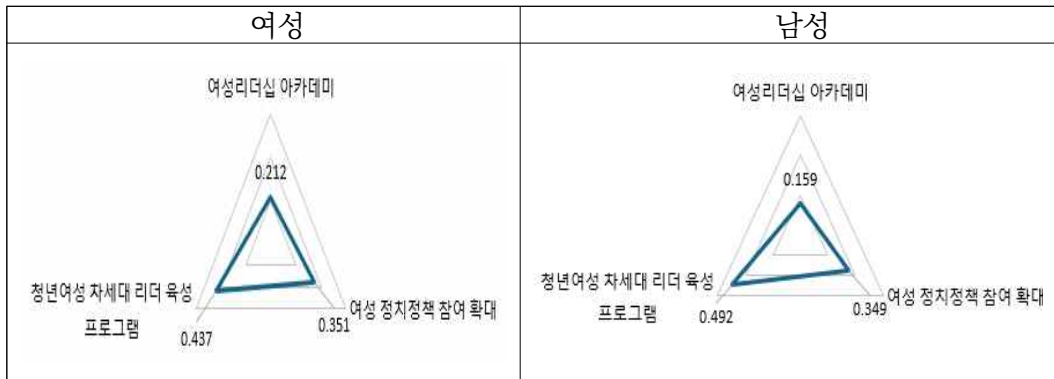
-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의 3개 하위 요인 간의 우선순위를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의 중요도가 0.436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0.345), ‘여성리더십 아카데미’(0.220)의 순으로 나타남
- 성평등 전문가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0.441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0.362), ‘여성리더십 아카데미’(0.197)의 순으로 나타남
-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0.513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0.306), ‘여성리더십 아카데미’(0.181)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정치·정책 참여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0.437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0.351), ‘여성리더십 아카데미’(0.212)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이 선정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0.492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0.349), ‘여성리더십 아카데미’(0.159)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음

<표 IV-17>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성별

세부사업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여성		남성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0.220	3	0.197	3	0.181	3	0.212	3	0.159	3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	0.436	1	0.362	2	0.306	2	0.351	2	0.349	2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프로그램	0.345	2	0.441	1	0.513	1	0.437	1	0.492	1
일관성 측정	CI: 0.0001 CR: 0.0001		CI: 0.0061 CR: 0.0068		CI: 0.0014 CR: 0.0015		CI: 0.0028 CR: 0.0031		CI: 0.0187 CR: 0.0208	



[그림 IV-15]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참여자 유형별



[그림 IV-16]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 세부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성별

4)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제안

가.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 설문조사 마지막 질문으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요청함.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다양성 및 평등에 관한 교육을 제안하였으며, 여성만을 위한 지역 여성리더 교육을 제안함

<표 IV-18>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분야	제안사업명	필요성 및 추진내용
성평등 교육	성평등 성장 교육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의 효과가 좋으며,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성별 갈등이나 역차별 문제를 피부로 느끼며, 혼란을 느끼기도 함. 여성을 배려하자 식의 과거형 교육보다는 개인의 다양성과 평등함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
	지역 여성리더 교육	여성만을 위한 지역 여성 리더 교육이 필요함. 시군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램

나. 성평등 전문가

- 성평등 전문가가 제안한 사업은 크게 성평등교육, 성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문화사업, 청년참여사업, 성평등 실천사업으로 분류됨. 성평등교육사업으로 아동·청소년·시민 디지털 및 성평등교육, 농어촌 중장년 성평등의식 교육, 5급이상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제안하였고,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리더 교육과 직업별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 & 교육을 제안함. 성평등 문화사업으로 농촌지역 여성영화제, 성평등문화 뮤지컬을 제안하였고, 성평등 실천사업으로 성평등 마을 리빙랩, 경북형 성평등 생활전환 플랫폼, 청소년 성평등 실천가 양성을 제안함. 그 외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체감형 프로젝트도 제안함

<표 IV-19> 성평등 전문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분야	제안사업명	필요성 및 추진내용
성평등 교육	「AI 시대 아동·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디지털 성평등교육」	AI를 이용한 검색 및 콘텐츠 제작은 일반화되었음. 그러나 기술의 가치중립성이란 일반적 인식 아래 AI가 제공하는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가치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음. 디지털 안전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안고 있는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10대 청소년은 디지털 문화를 통해 극우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어, 보수적인 지역사회의 미래를 더욱 우려스럽게 하기 때문임
	농어촌 중장년 성평등의식 교육	농어촌은 도시보다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농어촌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개인의 인식 변화, 가정 변화, 지역사회 구조 변화가 필요함
	시민체감형 성평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교육 또는 미디어, 성별영향평가 등의 방법론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일·가정양립, 안전, 돌봄, 교육, 공동체 분야 등 각 영역에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	여성혐오, 소수자혐오가 아이들에게 체화되어있음. 1회차교육이 아니라 다회차로 토론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성평등 역량강화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경북도청 및 시군 5급이상 성평등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추진의 과정의 성평등성 제고는 최고 책임자(도지사)의 정책의지가 중요함. 또한, 현재

분야	제안사업명	필요성 및 추진내용
	담당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행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 도구 및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5급이상)들의 성인지력이 매우 중요함
성평등 조직문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리더 교육」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등 토착 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하는 지역사회에서 각 조직의 리더가 지니는 성차별적 인식은 년 1회성 집체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반복되는 교육, 특히 집단 토론을 통한 의식화 교육이 절실함
	직업별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 & 교육	현재 주로 기업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직업군에 따라 이해도 및 적용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함.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을 찾아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예: 종교단체, 자영업자, 지자체 내 각종 계약직(행정도우미, 생활체육지도사, 평생교육 강사 등), 학원강사 등)
성평등 문화사업	농촌지역 여성영화제 개최	농촌과 여성농민은 여전히 성불평등을 경험하지만, 발화의 기회와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음. 영화를 매개로 농촌사회와 여성농민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성평등문화 유지결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평등한 문화의 실제적인 일상에서 느끼는 내용들을 가지고 변화해나가야 되는 방향을 함께 생각해볼수있고, 성찰해볼수있는 유지결 등을 통하여, 예술분야를 통한 저항감없이 다가가는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음. 가족들이 모두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생각해 보았음
성평등 실천사업	「성평등 마을 리빙랩」	성평등은 특정 계층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가치임.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주민 참여형 문제해결 모델인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 맞춤형 성평등 환경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북형 성평등 생활전환 플랫폼: 일터·마을·가족을 잇는 성평등 실천사업	경상북도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성평등, 여성 사회참여, 일·생활균형,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이에 단순 교육이나 캠페인 중심에서 벗어나 일터, 마을, 가족 단위의 실제 변화를 만드는 통합형 사업이 필요함. 사업 내용은 첫

분야	제안사업명	필요성 및 추진내용
		째, 중소기업·사회복지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둘째, 이장·통장·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리더 대상 성평등 실천교육을 운영하며, 셋째, 부모·조부모·청년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 성평등 워크숍을 추진함. 넷째,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예방을 포함한 생활안전 교육과 지역 모니터링단을 연계하여 성평등한 안전환경을 조성함. 이를 통해 교육, 노동, 안전, 가족문화가 분리되지 않고 지역 생활 속에서 함께 변화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청소년 성평등실천가 양성	가정이나 학교 내 청소년들이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 사회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양한 체험과 교육경험, 불평등 사례공모 및 시상, 관련 사례 유튜브제작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청년 참여 사업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체감형 프로젝트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를 핵심 대상으로 삼아, 새롭고 혁신적인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기존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눈높이와 가치관에 맞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함.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체감형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켜야 함.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 누구나 동등하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

다. 성평등사업 참여자

-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제안한 사업은 성평등교육 및 활동, 성평등 콘텐츠 제작, 안전, 성평등실천사업, 남성참여사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성평등교육 및 활동 사업으로 지역 공공기관 직원, 전 계층, 아동 대상 성평등 교육과 체인지롤 활동을 제안하였고, 성평등 실천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성평등 프로그램과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청년여성리더 양성사업,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제안함. 그 외, 성평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확산할 것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 남성이 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함

<표 IV-20> 성평등사업 참여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아이디어

분야	제안사업명	필요성 및 추진내용
성평등 교육 및 활동	지역 공공기관 직원 성평등교육	공적 기관임에도 성평등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음.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구성원에게 성평등교육 필요함
	전 계층 성평등 인식교육	전 계층, 연령, 성별 대상 성평등교육이 중요하다고 봄. 인 식개선을 하면 다양한 부수적 활동이 생성될 것이라 여겨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평등 체험·교육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성평등 역할 바꾸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어릴때부터 교육시키 고, 학부모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필요함
	체인지를 프로젝트	남초집단과 여초집단을 서로 번갈아 경험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서로를 이해하고 젠더규범을 갈등이 아닌 대화로 풀 어가는 활동 필요함
성평등 실천사업	생활 밀착형 성평등 프로그램	경상북도는 농어촌,고령화 지역 특성상 성별 역할 고정관념과 돌봄 격차가 지속되어 생활 밀착형 환경조성이 필요하므로 마을, 학교 연계 성평등교육, 돌봄,가사분담 실천프로그램, 여성, 청년 참여 지역리더 양성 사업 추진 필요함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 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 돌봄 부담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갈등과 돌봄 스트레스 발생. 또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은 가족 내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에 기반한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생활 속 성평등 실천과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확산하여 가족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 성평등 인식을 높여야 함. 가족소통 워크숍, 역할분담 체험경험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 생활 속 성평등 실천 캠페인등을 통해 돌봄과 가사에 대한 공동 책임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함
	청년여성 리더양성사업	앞으로 세대를 이어 갈 청년위주로 지역 성 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양성 사업과 이들의 정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낌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지원	결혼 이주여성 중에서도 기존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들이 상 당하므로 언어 등의 장벽을 없애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종사 유도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부 창출토록 해야 함
성평등 콘텐츠 제작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인지해야 함. 지역 청년센터, 대학(콘텐츠 미디어 등 분야)과 협업형+전문 크리에이터 협력 필요함
안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거리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거리나 공간, 산책길 만들어야 함

분야	제안사업명	필요성 및 추진내용
남성 참여 사업	남성성장 프로그램	남성들이 가정에서 여성의존적,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인 가 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필요함. "나도 아 이들 밥을 챙겨줄 수 있어!" "나도 우리 가정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질 수 있어!" "나도 가사돌봄 기획노동자가 될 수 있어!"

3. 소결

- 2027년 출범 예정인 성평등센터에서 추진할 성평등사업 영역 및 세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세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 우선순위 진단을 위해 AHP분석을 실시함. 전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추가로 참여그룹별, 성별로도 분석하였음
- 본격적 분석에 앞서, 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경북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 2.54점으로 나타나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구체적 문항에서는 ‘⑤경북은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이다’ 3.00점으로 타 문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⑧경북은 양성평등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2.91점), ‘⑥ 경북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2.58점), ‘④경북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취업하고, 일하기 좋은 지역이다’(2.41점), ‘③경북의 가족 내 문화는 성평등하다’(2.40점), ‘⑦경북은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다’(2.38점), ‘① 경북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2.33점), ‘②경북은 성평등의식이 높다’(2.28점)의 순으로 나타남. 참여자 유형별로 봤을 때 성평등사업 참여자가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순으로 나타남.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음. 성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성평등 환경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단계로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역 우선순위 분석 결과, ‘노동시장 성평등’(0.258)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다음으로 ‘안전환경 조성’(0.221),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0.218), ‘성평등의식 확산’(0.155), ‘성평등문화 확산’(0.147) 순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성평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노동시장 성평등’을, 성평등 전문가는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안전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세 집단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과,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가 여성은 2순위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가장 후순위(5위)로 인식하고 있어 성별 인식격차가 뚜렷하였음
- 2단계로 성평등 환경 조성 영역별 세부 사업 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에서는 양육자와 돌봄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나타나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성평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양육 및 보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도민 참여 확대 및 성평등 활동가 양성이 우선 추진 과제로 나타나 관 중심 사업 추진보다는 도민 참여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음. 안전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안심귀가거리, 비상벨, CCTV 등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민관협력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경찰청-행정부처 안전정책부서-민간 참여를 통한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임.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육성과 근로자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교육, 조직문화 성평등 진단 및 교육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참여자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경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모두 양육자 성평등교육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경우 세 집단 중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성평등에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성평등 활동가 양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성평등 전문가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안전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성평등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을,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함.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경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고, 성평등 전문가는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여성사회 참여·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은 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는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양육자 성평등 교육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지역 주민, 지역 리더 성평등교육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에 시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안전환경 조성 영역은 여성과 남성 모두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였음.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과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음.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은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음

- 요약하면, 경상북도성평등센터에서 추진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영역은 노동시장 성평등>안전환경 조성>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성평등의식 변화>성평등 문화 확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간 우선 추진 과제 순위는 약간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과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영역,

‘안전환경 조성’ 영역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영역별 세부 사업 중 최우선 추진 과제는 성평등의식 변화 영역의 경우 양육자 및 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은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성평등 활동가 양성임. 안전환경 조성 영역은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와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민관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일·생활균형)육성, 기업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으로 나타남.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 선정됨

<표 IV-21> 조사 결과 종합 및 적용 방안

영역별 순위	우선 추진 과제	적용 방안
①순위 노동시장 성평등	①순위_가족친화기업(일·생활균형) 육성	‘25년 일·생활균형센터 유치하여 사업 추진 중
	②순위_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③순위_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②순위 안전환경 조성	①순위_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기존 모니터링사업과 통합 운영
	②순위_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에 포함하여 추진
	③순위_민관 협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③순위 여성 사회참여역량강화	①순위_청년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경북여성WE리더 아카데미 추진 중
	②순위_여성 정치·정책 참여 확대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와 통합 운영
④순위 성평등의식 변화	①순위_양육자 성평등교육	기존 사업 확대 추진 가능
	②순위_돌봄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	
	③순위_지역 일반 주민 성평등교육	
⑤순위 성평등 문화 확산	①순위_성평등 활동가 양성	기존 사업 확대 추진 가능
	②순위_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
	③순위_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워크숍 개최	기존 사업 확대 가능

- 한편, 세 집단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안해 주었는데, 그중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는 ‘성평등 마을 리빙랩’, ‘직업별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 교육’,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리더교육’,

- ‘성평등문화 뮤지컬’, ‘여성영화제’, ‘남성성장 프로그램’, ‘성평등 성장교육’ 등임
- 살피본 바와 같이, 지역의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도민은 노동시장 성평등사업과 안전사업을 향후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성평등센터가 출범하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사업의 확장·고도화와 함께 노동시장 성평등사업과 안전사업 확대·추진 필요해 보임

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및 과제

1.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2.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
(안)

V.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및 과제

1.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운영 방향

1) 운영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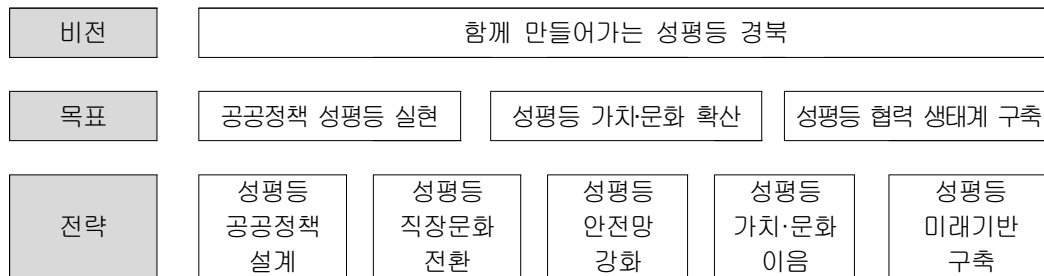
- 성평등센터는 지역사회 내 성주류화제도 실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지원, 성인지 통계 운영, 성평등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추진 근거

- 지역 성평등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평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해야 함.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범수 의원 등 10인의 의원과 함께 2026년 3월 4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음(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중앙정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즉시 개정·시행해야 함

3)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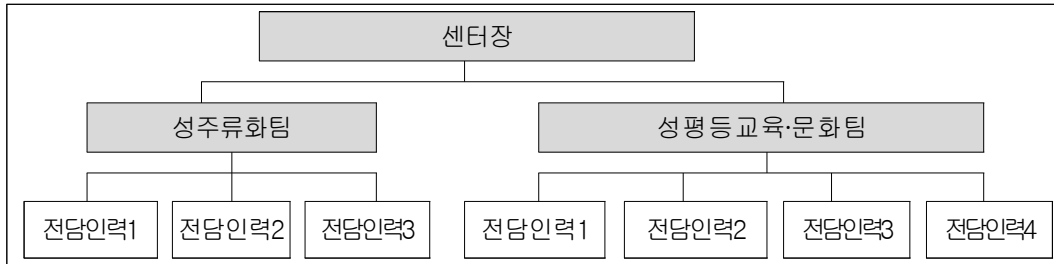
- 경북성평등센터의 비전과 전략은 <그림 V-1>에 제시한 바와 같음.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경북’을 비전으로 ‘공공정책 성평등 실현’, ‘성평등 가치문화 확산’, ‘성평등 협력 생태계 구축’ 3대 목표를 수립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성평등 안전망 강화,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5대 전략을 추진함



[그림 V-1] 비전 및 전략

4) 조직 및 인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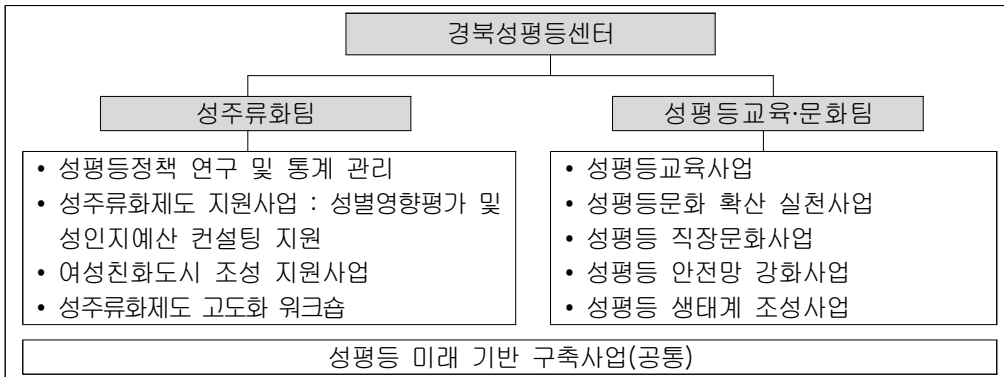
- 경북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일반형 양성평등센터라 칭함)’을 통합하여 운영 필요함. 성주류화제도 운영 기구인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성평등 문화확산을 추진하는 양성평등센터는 지역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축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센터 아래 성주류화팀과 성평등교육문화팀으로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성평등 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센터 내 성주류화팀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이행점검, 컨설팅 운영, 포럼 운영,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성평등교육문화팀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지역정책 모니터링+찾아가는 성평등교육문화 확산+지역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한 조직문화 지원사업, 지역 안전 지원사업, 지역 특화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하도록 함
- 현재의 인력구조는 겸직 센터장 1인과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2인,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인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현재보다 업무 범위가 확장될 것이므로 전담 센터장 1인과 성주류화팀 3명, 성평등교육문화팀 4명(현재의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인력 규모)이 적절함



[그림 V-2] 조직도(안)

5) 기능 및 역할

- 성평등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그림 V-3>에 제시한 바와 같음. 성주류화팀에서는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부분을 담당하고, 성평등교육문화팀에서는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기능을 추진하여 제도와 의식, 문화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함



[그림 V-3] 경북성평등센터 기능 및 역할

가.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 및 통계 관리

- 성평등센터는 성주류화제도 운영, 성평등교육·문화 사업 등을 통해 근거기반 (Evidence-Based) 지역 맞춤형 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실태조사,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등을 통해 실천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여 사업화해 나가야 함

-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성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단위 성별 현황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운영해야 함. 경북에서는 성인지 통계 관리를 위해 사이트(경북e-보이는 젠더통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향후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므로 성평등 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함

나. 성주류화제도 지원

-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제도와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하는 성주류화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야 함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모든 영역(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 경험, 특성을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주류화의 이행도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법령, 사업, 중장기계획, 홍보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고,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10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2013년 예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작성·제출하기 시작함. 이에, 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성평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운영되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2018년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개선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이행점검이 시작되었으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속 추진되어야 함

다. 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

-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된 성 편견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이미 주어진 젠더화된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불평등 상황을 잘 알아차리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식, 차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그간 경상북도에서는 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이분법적 성역할 인식,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꾸준히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관습, 문화, 의식에 뿌리 깊게 내재 되어 있음. 또한, 성평등 이슈는 사회적 논쟁과 가치 갈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성평등센터가 설치운영되면 보다 많은 도민, 계층,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평등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차별적 문화 해소와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함. 또한, 경북의 넓고 분산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협의체 운영 및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기반으로 성평등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센터는 컨트롤타워,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

라. 성평등 직장문화 지원

- 저출생, 지방 인구감소 위기, 청년 지역유출 가속 등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 키우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성차별 없고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직장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조직의 성과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에서 성평등 직장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직 내 성차별과 일과 가정의 병행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기업의 성별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2019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대기업으로 확산하여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경북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성평등성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지원해야 함
- 한편, 2025년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이를 위한 법제화가 최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우선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어서 중소기업이 많은 경북지역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북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규모를 대상으로 경북형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이러한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 분석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함

마. 지역 안전환경 조성

-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교제폭력, 묻지만 살인 등 지역사회 안전 이슈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2024) 자료에 따르면, 경북여성의 43.4%가 범죄위험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43.3%가 야간보행 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도가 높은 편임. 보행환경, 조명, 공공시설, 디지털 안전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 필요해 보임. 경북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마다 생활환경과 안전 여건이 상이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요구되며, 지자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정책으로 환류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

바. 지역 성평등 생태계 조성

- 관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성평등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언론,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성평등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음. 기존 여성정책기관 및 여성단체 등 위주 성평등 활동에서 광역 단위 허브조직을 매개로 기초자치단체 내 활동 중인 기관, 단체, 전문가 활동가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의제들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성평등센터가 중심이 되어 행정기관 협력체계 운영, 시민사회단체 협력 사업 추진, 기업·대학·공공기관 연계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복합성격을 갖는 기관(건강센터,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평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 또 다른 한 축으로 성평등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기반으로 성평등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안)

-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북성평등센터가 추진해야 할 5대 전략 및 전략별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 번째 전략은 현재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강화한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임. 공공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이에 행정에서는 법령,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의 성형평성을 위해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이 과정에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함. 평가 후에는 제안된 정책개선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또한, 성주류화제도, 성평등지수, 성별 임금격차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를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운영 및 컨설팅,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성인지 통계를 관리해야 함
- 두 번째 전략은 본 연구 조사에서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된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이며, 노동시장 전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산해야 함. 본 연구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영역 우선순위 분석에서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이 1위로 나타나 성평등한 직장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이를 위해 도내 기업 성평등 직장문화 진단 및 컨설팅, 관리자 성별 다양성 교육, 근로자 성평등 소통 워크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전략은 본 연구 조사에서 두 번째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된 '성평등 안전망 강화'임.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의 생활밀착형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해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안전망 협의체체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지역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또한, 주민이 직접 생활권 안전환경을 조사하여 성평등 관점의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 취약요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전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연장선으로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추진임. 성평등 가치를 일상과 지역사회 속에서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정책과 일상을 연결하여 문화로 정착시켜야 함. 이를 위해 주민 주도형 성평등 마을 만들기, 성평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남성 및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업, 다양한 세대·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교육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다섯 번째 전략은 성평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진 기반 확대·강화 전략으로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성평등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도민 참여 성평등 챌린지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음

<표 V-1> 경상북도 성평등센터 세부 추진사업(안)

전략	추진사업	유형	추진팀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 및 성인지 통계 운영	기존사업 추진부서 조정	성주류화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 추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기존사업 추진부서 조정	
	성주류화 전략 고도화 워크숍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 추진사업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성평등 직장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신규사업	성평등교육· 문화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관리자교육	신규사업	
	근로자 성평등 소통 브릿지(bridge) 토크콘서트	신규사업	
성평등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민관협력체 운영	신규사업	성평등교육· 문화팀
	지역 안전 모니터링	기존사업 확대	
	경북 안전 맵핑(Mapping) 프로젝트	신규사업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주민 주도형 성평등 리빙랩	신규사업	성평등교육 ·문화팀
	사람-문화-성평등 잇다, 성평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규사업	
	성평등 동행 WITH 프로젝트	기존사업 확대	
	도민 공감 성평등 아카데미	기존사업 확대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성평등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신규사업	성주류화팀, 성평등교육 ·문화팀
	지역 성평등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기존사업 확대	
	도민 참여 '성평등 ON' 프로젝트	기존사업 확대	

전략 ①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①-1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 및 성인지 통계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는 성평등센터가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정책 연구·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임. 지역마다 성평등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차원의 연구를 통해 현안 인식, 의제 발굴, 우선순위 파악 등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필요함
- 지역별로 성평등 환경과 정책 수요가 상이한 상황에서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는 근거기반 정책 수립,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운영 지원, 정책 성과 평가, 성평등 지수 관리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며, 성인지 통계 관리는 경북지역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성주류화팀에서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용 분석과 성과 평가, 환류 방안 모색 등 역할이 필요하고, 성별격차가 크게 발생하거나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 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한 환류 역할 중요함. 또한, 성평등교육 문화팀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전문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역 성평등 인식 및 수준 변화 진단, 실천사업 발굴 등의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이에 성평등센터는 지역 성평등정책 특화 연구 및 성인지 통계 관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의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함

□ 추진 내용

① 지역 성평등지수 분석 및 실천사업 발굴 연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산정하여 발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지역 성평등 수준은 2012년부터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경상북도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성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매년 발표되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진단하고, 집중관리해야 할 지표를 중심으로 실천사업을 발굴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상 맞춤형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각종 자료 개발 연구를 추진해야 함

② 데이터 기반 성주류화제도 연구

- 성주류화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추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한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함. 또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선 사례집 제작과 성주류화제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현장 적용 가능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③ 특정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법률, 조례 등 시행중인 법령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이 평가는 수혜의 광범위성, 사회적 파급효과, 성별 격차 체감 등을 고려하여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젠더 이슈 검토와 법적 근거에 대한 성인지 검토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성별 요구도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개선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성별영향평가 운영지침, 2026)
- 경상북도는 지역 곳곳에 가부장 문화가 남아있고, 지역 성평등 수준이 낮으므로 성평등지수 집중 관리 요구되며, 정책 수혜의 대상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지난 5년간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년에 교육청에서 추진한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1건이 전부임

-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1건 이상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 경기, 경남, 제주는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경북지역에서도 주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표 V-2> 전국 지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서울	자치법규, 교육청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	장애인정책	인적통계	
부산	문화정책	청년일자리사업	온라인 홍보물	
대구	공공체육시설	청년정책	이동노동자쉼터	버스정류장
인천	관광콘텐츠 등 4개, 부평구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다보니 부평'(워킹 역사투어), 교육청 학생생활 규정(고등)	창업정책, 연수구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사업,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창업공간 운영 사업 남동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미추홀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교육청 남성육아 휴직 실태 및 개선방안	문화시설조성(유지 엄파크), 중구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 교육청 공공도서관 설치 가이드라인	신중년(50+)정책
광주		문화시설	온라인플랫폼	
대전	돌봄정책	시설설치사업		
울산		청소년정책		
세종			문화예술교육 실현정책	
경기	다문화가족정책, 수원시 홍보물, 용인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전통시장지원사업, 용인시 문화도시조성계획	미래기술학교 운영사업, 용인시 커뮤니티형 공공청사 건립사업	
강원		산림휴양시설	생활체육분야	출산·육아정책
충북				농촌인력 공급정책
충남	안전관련조례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전북	공공기관홍보물		군산시 생활채감형정책	청년정책
전남		관광콘텐츠사업, 교육청 학생생활 규정		청년농업인지원사업,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경북		교육청 교가교훈		
경남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전시 공공시설,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다문화가족정책, 교육청 진로교육	시군 우수 문화관광 축제지원, 경상남도 교육청 자치법규
제주	자치법규	일자리정책, 교육청 초·중·고 교가 및 교훈	도시재생사업	성·재생산 건강정책

자료 :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2022~2025)

④ 성인지 통계 운영

- 성인지 통계는 성별에 따른 차이 및 특성, 남녀의 필요와 특수 문제를 반영하고자 성별로 분리·생산된 통계를 말하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과 함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구인 성주류화제도의 하나임. 지역마다 성평등 여건은 다르므로 지역 차원의 통계 관리를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 이 통계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냄으로써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상황의 차이 및 현황을 제시하고, 성별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분석 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검토하고 필요성을 제기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됨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2016년부터 ‘경북e-보이는 젠더통계’ 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성평등센터 업무에 통합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기대효과

- 성평등정책 연구 및 성인지 통계 운영을 통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제도의 고도화

전략 ①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①-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제도 컨설팅 지원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공공정책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므로 성평등 관점이 없으면 정책이 특정 성별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구조적 불평등이 정책을 통해 그대로 유지·강화되거나 고착화 될 수 있음. 성평등은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하며, 기획-예산-집행-평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필요함.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률,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2012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각 지역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주류화제도 중 하나이며, 법률,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이 대상임. 성인지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두 제도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현재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도·시·군 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센터가 하나의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행대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임. 또한, 행정기관 담당자와 자주 소통하고, 전문가 자문을 담당할 컨설턴트를 지속적으로 역량강화하여 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책개선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가짐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함

□ 추진 내용

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 공공정책의 성인지 관점 통합을 위해 도·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1:1 대면컨설팅 및 GIA시스템 서면 컨설팅, 전문가 의견 지원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전문 자문단인 컨설턴트 양성 및 지속적 역량강화

②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 예산의 성형평성 달성을 위해 도·시·군·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1:1 대면컨설팅 및 서면 컨설팅 지원
-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을 위한 전문 자문단인 컨설턴트 양성 및 지속적 역량강화

③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개선안이 실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경상북도는 이행된 개선안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점검과 우수사례 발굴·시상은 확대되어야 함

④ 성주류화제도 실효성 강화 포럼

- 성별영향평가는 행정영역에서 실시하는 정책평가의 하나로 한꺼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 이에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함. 전문가, 행정가, 도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함

□ 기대효과

- 성주류화제도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실효성 강화
- 공공정책 및 예산의 성평등성 확보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향상

전략 ①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①-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지역의 도시 공간, 안전, 문화 등 영역으로 성평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이나 경상북도는 2025년 12월 기준 전체 22개 시군 중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6개 지역만이 지정되어 27.3%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 4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는 광역도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의지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25년부터 경북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신설하여 미지정 도시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지정되어 있는 시군과 지정 준비 중인 시군을 위해 공무원과 시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부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시군민 참여단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 컨설턴트로 여성정책기관 연구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처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한 축이므로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예비 여성친화도시 발굴-교육-지정 신청-이행점검까지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함

□ 추진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군 컨설팅

- 대표과제 발굴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시군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공무원 및 시군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전문교육 지원

② 예비여성친화도시 발굴·지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 희망 시군 대상 공무원 및 시군민참여단 교육 지원
-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필수지표 관리 및 대표과제 발굴, 특화사업,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통한 지역 성평등 실현
- 도시 조성에 시민참여 확대 및 활동 역량 강화

전략 ①

성평등 공공정책 설계

①-4 성주류화 전략 고도화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성주류화 업무는 법령과 지침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실무 역량이 요구되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이해도에 따라 제도의 운영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성주류화 담당자 워크숍은 최신 정책 동향과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며, 워크숍을 통해 사례 중심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면 담당자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책 설계 역량을 높일 수 있어 주기적 추진 필요함
- 또한, 성주류화 업무를 지원하는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추진 내용

①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워크숍

- 도·시·군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상, 하반기 정기 인사 단행 이후 워크숍 개최로 제도 이해 및 실행 역량 강화
- 해당 지역 컨설턴트와 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마련

② 컨설턴트 역량강화 간담회

- 성주류화 업무를 지원하는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 최근 성평등 이슈 및 성주류화제도 추진 방향 논의

□ 기대효과

-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및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주류화제도 고도화
-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성평등 실행력 향상

전략 ②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②-1

성평등 직장문화 진단 및 컨설팅

□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한 직장문화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은 구성원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조직 몰입도로 이어져 직원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감소하며, 조직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안상수·김금미, 2010; 우양호·홍미영, 2019). 또한, 저출생과 인구감소 시대에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됨
- 성평등가족부는 2020년부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로 확대하였음. 2025년까지 총 7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351개), 개선지원(218개), 이행지원(155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 조직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올해는 신규 조직진단 5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개선지원, 이행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4.13.)
- 노동시장 성평등은 본 연구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역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1순위로 나타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았음. 또한,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의 세부 추진사업 우선순위 분석에서 성평등 전문가들은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등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사업 아이디어로 제안하였음. 이에, 경북지역에서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후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추진해야 함

□ 추진 내용

①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 공공기관, 기업 대상 행정통계,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종합분석을 통한 조직문화 진단
- 고용, 승진, 임금, 업무 배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성희롱, 성차별 언행 등 직장 내 성차별 요소 진단

②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 도출 및 실행 지원
- 인사·직무배치, 일·생활균형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컨설팅 지원

③ 성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확산

- 경상북도 양성평등 유공 기업 추천, 성평등 조직문화 우수기업(관) 선정 및 시상
- 우수기업 사례 공유를 통한 산업 전반 확산

□ 기대효과

-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일터 조성

전략 ②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②-2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관리자 교육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은 ESG 경영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다양성과 포용성을 조직의 핵심 가치로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관리자는 인사·조직 운영과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만큼,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수준은 조직 문화와 정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성별 다양성 교육은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개선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됨
-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기업 현장에서 ESG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의 비재무적 요소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기준이 되는 흐름에 맞춰 기업의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4년부터 시작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은 '24년 4회, 280개 기업, '25년 4회, 425개 기업이 참여했고, 올해는 총 5차례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4.15.). 현재 2개의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에서 공공기관 관리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북지역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인사 및 조직관리 담당 관리자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본 연구 조사의 사업 아이디어 제안에서도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리더 교육'이 제안되었음

□ 추진 내용

- 공공기관 및 기업 관리자 DEI 교육
 -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한 인사관리,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인사조직담당 관리자의 역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무의식적 편견을 줄이고, 직장 내 다양성·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교육
- 다양한 구성원의 역량이 공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포용적 리더십과 공정한 의사결정 역량 강화 교육
-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 점검, 성희롱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등 교육

□ 기대효과

-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다양성 리더십 향상을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구성원의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 향상

유사사업 사례

민간기업 관리자 다양성교육

■ 전북성평등센터 민간기업 다양성교육 추진(2026년)

- 전북성평등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 대상으로 다양성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민간기업 대표 및 관리자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규 추진함
- 교육내용은 조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임

(출처 :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략 ②

성평등 직장문화 전환

②-3 근로자 성평등 소통 브릿지(bridge) 토크콘서트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조직문화는 단순히 성희롱 예방이나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여전히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조직 내 소통 부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신뢰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성평등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문화 이므로 구성원이 서로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MZ세대와 기성세대,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기존의 일방향 교육은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례 공유, 토론, 협업 활동 중심의 워크숍은 구성원이 성평등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대와 성별 간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 조사의 노동시장 성평등 영역 세부 추진사업 우선순위 분석에서 근로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은 성평등정책 담당공무원, 성평등 전문가, 성평등사업 참여자 세 집단 모두 중요하게(2순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업 아이디어 제안에서도 직업별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와 교육을 제안하였음. 이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중심 성평등 토크콘서트 개최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실천사업 추진 제안함

□ 추진 내용

○ 근로자 성평등 소통 브릿지(bridge) 토크콘서트

- 도내 공공기관, 기업 근로자가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
- 성별 다양성과 조직문화 이해, 세대별 인식 차이 이해, 성평등 사례 공유
- 우리 조직의 좋은 문화, 개선이 필요한 문화, 함께 만들고 싶은 조직문화에 대한 소그룹 토론
- 함께 만드는 성평등 실천과제 도출 및 성평등 약속 작성

□ 기대효과

-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성평등 실천문화 정착
- 성평등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유사사업 사례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교육

■ 부산성평등센터, 공공기관·공공서비스전달기관 종사자 성인지교육 추진 (2024~2026)

- 부산성평등센터에서는 2024년부터 교육기관 종사자, 경찰, 공공서비스 전달기관 등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전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내용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 용어, 행동, 평등한 조직 만들기 실천 방안 세우기 등임

(출처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략 ③

성평등 안전망 강화

③-1 지역사회 안전망 민관협력체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묻지만 살인 등 지역사회 안전 이슈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관기관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 안전 문제는 특정 기관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계하는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함
-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발굴 및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함
- 안전한 환경 조성은 본 연구 조사에서 두 번째 우선 추진 영역으로 선정된 만큼 경북지역에서 강화해야 할 정책과제이며, 경북의 넓고 분산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성평등 안전 협력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성평등 안전망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 이슈를 공동 발굴·대응함으로써 성평등 관점의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과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실현
 - 경상북도 및 시군, 경찰청, 교육청, 범죄예방 관련 활동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
 -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운영

□ 기대효과

-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 강화
- 성평등 관점의 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전략 ③

성평등 안전망 강화

③-2 지역 안전 모니터링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잦은 여성 살인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살인,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2024) 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의 43.4%가 범죄위험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43.3%가 야간보행 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도가 높은 편임. 야간보행이 불안한 주요 이유는 신문, 뉴스 등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하고(37.0%), 생활권 내에서 야간에 인적이 드물며(31.9%),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이 부족(17.9%)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경북지역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음
-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은 범죄예방뿐 아니라 보행환경, 조명, 공공시설, 디지털 안전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때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성평등 관점의 생활밀착형 안전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이 필요함. 경북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마다 생활환경과 안전 여건이 상이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요구됨. 특히, 안심귀가거리 및 학교 주변 통학로와 치안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하며, 지자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정책으로 환류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경북지역이 넓고, 군지역이 많은 만큼 기존 추진하던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의 분야와 모니터링 건수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야 함

□ 추진 내용

○ 지역 안전 모니터링

-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과 안전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 지역 안전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 성평등 안전 협력체 및 모니터링단 합동 간담회 개최
- 생활, 보행, 교통 등 안전과 안전 정보 제공 체계 등에 대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 생활 안전: 공원, 공중화장실, 골목길, 학교 주변, 안심귀갓길
 - 보행 안전: 가로등, CCTV, 비상벨, 보도 상태
 - 교통 안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야간 이동환경
 - 안전 정보: 주민 신고체계, 안전정보 안내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정책 환류

□ 기대효과

-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안전 취약 요인의 선제적 발굴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환류를 통한 대응력 강화
-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여

전략 ③

성평등 안전망 강화

③-3 지역 안전 맵핑(Mapping)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은 범죄예방뿐 아니라 보행환경, 조명, 대중교통 접근성,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안전성이 좌우되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환경 진단이 필요함. 안전에 대한 체감 수준은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생활패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주민의 이용 경험을 반영한 성평등 관점의 안전환경 점검이 요구됨
- 안전 맵핑은 생활환경 개선, 통학로 안전,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기반 안전문화 확산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조현우 외, 2026). 행정 중심의 시설 점검만으로는 생활 속 불편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임
- 경북지역에서도 안전 맵핑 제작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작된 안전 맵핑을 안전교육에 활용, 지역사회 내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해야 함

□ 추진 내용

- 우리동네 성평등 안전지도 제작
 - 주민이 직접 생활권 안전환경을 조사하여 성평등 관점의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지역 안전 취약요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활용
 - 주민 참여형 안전 맵핑단 구성 및 교육
 - 생활권 시설의 이용환경, 성평등 관점 관리 등 안전 환경 진단
 - 학교 주변, 등하굣길, 범죄 다발지역, 보행자사고 다발지역, 야간 통행 위험지역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지도 제작

- 맵핑 결과 환류를 통한 성평등정책과 안전사업에 반영
- 안전교육 콘텐츠로 활용 및 지역사회 배포를 통한 사고 및 범죄예방

□ 기대효과

- 안전 취약지역 데이터 구축 및 성평등 관점 개선
- 주민 참여를 통한 체감형 안전정책 발굴

유사사업 사례

안전지도 제작

■ 경상북도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안전지도 제작(2025)

-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표사업으로 추진한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지켜드림(Dream)사업’ 내용의 한 파트로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생활 속 안전 가이드, 안전 연락망 등 탑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

(출처 : 칠곡군 내부자료)

■ 용인특례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2026)

-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 안전사고 및 유괴 등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지도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실시함

(출처 : 상현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략 ④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④-1 주민 주도형 성평등 리빙랩

□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문화 속에서 실천되고 확산될 때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사회는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평등 실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문화와 생활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사업보다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 요구됨. 주민, 마을공동체, 행정,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조사에서도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세부 추진 과제로 시민참여단 운영과 주민참여 성평등 토론회, 워크숍 개최가 우선 추진과제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주민 주도의 성평등문화 확산 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사업아이디어로 주민 참여형 문제해결 모델인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 맞춤형 성평등 환경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됨

□ 추진 내용

① 주민 주도형 성평등활동 지원

-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을 추진할 주민 주도 소모임의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평등 공동체 조성
 - 마을 기반 성평등 활동가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 대상 성평등 사업 공모
 - 예산지원을 통한 활동 추진
 - 활동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지역 성평등 실천모델 구축 및 도내 확산

② 성평등 마을만들기

- 마을 내 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마을 조성 추진
 - 성평등마을 규약 만들기
 - 성인지 역량강화 순회교육
 - 마을 단위 프로그램 및 워크숍 진행

③ 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

- 도민이 성평등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과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성평등 가치 확산과 정책 실효성 제고
 - 시군별 시민참여단 모집 또는 정책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기존 운영 중인 참여단 연계
 - 시민참여단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지역 성평등 현안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 기대효과

- 주민 참여형 성평등 활동을 통한 현장성과 실효성 향상
- 정책 참여문화 정착 및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

유사사업 사례

성평등 리빙랩 사업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청년 성평등 리빙랩 지원사업 추진(2022)
 -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문제해결 및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지원함
 - 5개팀이 참여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미디어 속의 성차별, 여성청년의 과소 대표성 등의 의제로 다양한 성평등 활동 추진

(출처 :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12.8.)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민회, 성평등마을 조성 사업
 - 성평등마을 프로그램 참여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내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 성평등마을 규약 만들기, 성인지 감수성교육 등 추진

(출처 : 제주인구정책통합플랫폼 제주in情 플랫폼)

전략 ④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④-2 사람-문화-성평등 있다, 성평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인식교육과 더불어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성평등 가치가 지역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함. 영화, 음악, 미술,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은 다양한 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매체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콘텐츠이며, 감동과 공감을 통해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지역 문화예술과 성평등 가치를 접목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도민이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연계한 참여형 문화 행사 운영 필요함. 영화, 공연, 체험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임. 또한, 지역 문화 예술인과 협력하여 성평등 메시지를 문화예술로 전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축제, 체험 등을 매개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생활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문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추진 내용

① 성평등 영화제

- 성평등을 주제로 한 영화 관람을 통해 도민이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성평등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공감문화 조성에 기여
 - 영화관을 대관하여 성평등 주제 영화 상영
 - 감독·전문가와의 대화 및 스페셜 토크(GV)

- 시민과의 대화
- 관객 참여 이벤트 및 성평등 캠페인

② 성평등 문화마당

- 지역축제, 대학교 축제, 성평등 주간 등 연계 성평등 체험부스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 성평등 체감 및 공감대 형성
 - 지역축제, 대학교 축제 등 참여하여 성평등 홍보부스 운영
 - 음악, 연극 등 공연
 - 성평등 미술제
 - 정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 성평등 콘텐츠 전시 및 캠페인 운영

□ 기대효과

-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시민 참여 유도
-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유사사업 사례

성평등 영화제

■ 전북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영화제 ‘모어(MORE)’(2023~2025)

- 2023년에 시작하여 지속 추진중임
- 꽃폴소, 눈눈눈, 너에게 닿기를, 예술농부, 겨우살이, 양림동 소녀, 아이슬란드가 멈추던 날 등 다수 상영 후 브릿지 토크 진행
(출처 : 전라일보, 2025.10.27. 제3회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성료.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023>)

■ 경북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평등 영화제(2025)

- 기초지자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평등 영화제 개최
- ‘장손’ 영화 관람 후 스페셜 토크 진행

전략 4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4-3 성평등 동행 WITH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회는 가족구조 변화, 청년세대 인식 변화, 저출생 및 돌봄 위기, 일·생활 균형 요구 확대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여성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남성의 돌봄 참여와 성평등 실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일·생활균형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여성의 돌봄부담이 큰 편이며, 이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기피, 경력단절로 연결, 직장 내 경력 유지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성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가치임에도 지금까지 성평등 정책은 여성 대상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남성의 참여 기회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성을 실천 주체이자 협력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청년세대는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성별 갈등과 인식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성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차이, 병역, 돌봄, 취업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혐오와 편견이 확산되는 경향도 있음.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성평등 대화모임, 청년정책 연계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성평등에 대한 공론화는 서로의 경험과 현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워 건강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 실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4월 추진한 청년 성평등 알리오단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사업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일상과 조직 문화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순 참여가 아니라 청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과 청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 바 있음
-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남성이 함께하고, 청년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추진 필요함

□ 추진 내용

① 성평등 MT(Man Together) 프로젝트

- 남성 성평등 WITH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남성을 성평등 문화 확산의 동반자이자 실천 주체로 참여시키고, 공감과 소통, 공동돌봄 실천을 통해 함께 만드는 성평등 문화 조성
 - 남성 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 패널과 참여자가 함께 풀어나가는 성평등 열린 토크콘서트 개최
 - 육아아빠 자조모임 운영

② 청년 성평등 LINK 프로젝트

- 청년 성평등 LINK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기여
 - 청년 성평등활동 공모사업 추진
 - 청년 성평등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 청년 서포터즈단 운영

□ 기대효과

- 남성 참여를 통한 성평등 실천 기반 강화
- 청년 주도 지역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전략 4

성평등 가치·문화 이음

4-4 도민 공감 성평등 아카데미

□ 필요성 및 목적

- 경상북도는 지역 성평등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속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분야의 남녀격차가 큰 편에 속하므로 남녀 모두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문화를 조성해야 함. 성평등한 사회는 개개인의 성평등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곧 교육의 힘임.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성차별과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인식, 폭력예방을 위한 성인권교육, 일상에서 이를 감지해 내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내용들이 소양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문가들은 성평등교육이 국가 차원의 전 국민 대상 교육인만큼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타겟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최윤정 외, 2021). 유아동기는 성역할 인식 형성 시기로 올바른 성평등의식 형성은 ‘나답게’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청소년기의 진로의 선택은 학문과 교과 과정을 거쳐 대학 진학,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성인지 관점의 진로지도 필요함. 청년기는 직장생활, 결혼, 출산, 육아,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이슈에 직면하는 시기이므로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기’ 위한 일생활균형 확보와 부부의 성역할 조정이 중요한 시기임. 중장년기는 성장한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은퇴 후 가정생활 적응과 배우자와 관계 정립, 손자녀 돌봄 등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음. 노년기에는 황혼기 가사 분담, 상호 돌봄 등 성숙하고 평등한 부부 및 사회관계 형성 요구됨. 이러한 생애주기 과업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친 다양한 성평등교육 요구됨
- 지금까지 성평등 교육은 희망하는 단체를 공모하여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는 등 대체로 협소하게 추진되어 온 경향이었는데, 향후 성평등센터가 설치되면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이 개인이 가진 생애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 생애 동안 시기에 맞는 올바른 성역할 의식 발달을 지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성평등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함

□ 추진 내용

① 유아·아동 및 양(보)육자 '나다움 성장' 성평등교육

- **유아 대상 성평등교육** : 전문가들은 유아동기에 이뤄지는 성 정체성·성 역할 등의 발달은 평생 지속적으로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사고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어린 시절에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고 '나답게'를 배우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성평등교육 필요함. 그림책, 인형극 등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임
- **양(보)육자 성평등교육** : 양(보)육자는 사고, 태도, 행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별 역할 모델링이 되므로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함. 이에, 유아를 양육하고 보육하는 가정 보육자, 보육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선제적으로 요구됨

② 아동·청소년 및 교사 '미래를 준비하는' 성평등교육

- **초·중등학생 성평등교육** : 아동·청소년기는 '남학생답게/여학생답게'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일상생활, 대인관계, 진로 선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불균형과 차별을 인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시기임. 성별에 기반한 혐오 표현과 폭력을 지양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맺기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함. 또한, 초·중등학생은 SNS, 메신저, 게임, 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디지털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 **초등학교 보건교사 간담회·교육** : 초등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을 기획·총괄하는 보건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성인지교육 실시해야 함
- **진로지도교사 간담회·교육** : 아동·청소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사 간담회 를 개최하고 필요시 성인지교육 실시해야 함

③ 중장년 '변화하는 시대의 가족·직장·지역사회 이야기' 성평등교육

- 중장년기는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로 이들의 성평등 인식과 실천은 조직문화와 가족문화, 지역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중장년 대상 성평등교육은 개인의 인식 개선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구조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최근 성평등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 직장 내 다양성·포용성 확대, 가족 형태의 다양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장년층은 과거의 성역할 규범과 현재의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자녀 세대와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중장년 성평등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는 데 유용함

④ 노년기 '더 행복하게 함께하기' 성평등교육

- 노년기는 은퇴와 가족구조 변화, 사회관계 재편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성평등한 관계 형성과 상호존중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임. 이에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년기 맞춤형 성평등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년층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 속에서 살아온 세대여서 경제활동은 남성의 역할, 가사는 여성의 역할, 돌봄은 여성의 책임 등의 인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부부 간 갈등의 여지가 큼. 은퇴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계 형성과 가사분담이 중요하므로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필요함

□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삶의 경험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성평등 실천력 향상
- 세대 공감·존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

전략 ⑤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⑤-1

지역 성평등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센터가 다양한 기관을 연결하는 지역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역 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맞춤형 성평등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성평등가족부가 수립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도 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하고, 성평등 및 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함. 특히, 경상북도는 10개의 시와 12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지정학적·인구사회학적 조건뿐 아니라 지역발전도와 정책환경이 매우 다르고, 지역 간 주민의 정책적 요구도 상이하므로 다양한 민간주체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 삶과 밀착된 성평등정책을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야함.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포럼, 공동 캠페인, 교육, 연구·조사, 교육, 정책 제안, 성과 공유회를 정례화하면, 성평등센터가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지역 성평등 정책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① 경북 성평등 파트너십 구축

-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가족친화, 청년, 안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통합적 협력체계 마련

- 경북지역 권역별 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민참여 다양성 위원회 운영
- 주체별·분야별 지역 협력체계 구축
 - 공공 : 경상북도,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 대학 : 대학 인권센터 등
 - 시민사회 : 도민, 성평등 활동가, 여성단체, NGO 등
 - 가족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기관 등
 - 청년 : 청년센터, 대학, 청년단체 등
 - 일자리 : 기업, 경제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 유관기관 등
 - 안전 : 범죄예방 관련 기관, 지역 경찰서,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등
- 주체별·분야별 협의체, 위원회 등 교류 워크숍 추진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② 젠더거버넌스 협력사업 추진

- 성평등정책 실행 과정에 관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활동 단체와 유관기관, 지역 내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사업 추진
 - 산학연 : 학술대회 or 세미나 공동 개최
 - 경찰+주민자치회+센터 : 안전한 귀갓길 조성 프로젝트, 안전 캠페인
 - 기업+대학+센터 : 청년 취업, 인권센터 협력사업 추진, 성평등 직장문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단+센터 : 성평등 영화제·문화공연 운영
 - 여성폭력 유관기관+센터 : 성평등교육, 폭력예방 공동 캠페인 운영

□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 기관 간 공동사업 확대 및 정책 연계 강화
- 지역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전략 ⑤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⑤-2 지역 성평등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 필요성 및 목적

- 성평등 전문가와 활동가는 지역사회 성평등 가치 확산과 정책 실행의 핵심 인적 자원이므로 꾸준한 양성 필요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성평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정책과 이슈, 교육기법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성장지원 체계 필요함
- 지금까지는 지역 성평등 전문가 및 활동가 부족으로 성평등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활동 연계·지원은 다소 미흡하였음. 센터가 설치되면 활동가 양성을 넘어 양성된 활동가 대상 심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현장 활동 연계 등 지속적인 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활동가들이 정책 제안, 시민참여, 마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의 변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활동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공동 학습 참여와 상호 활동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성평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① 지역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보수교육

- 지역 성평등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전문 인력풀 확보와 교육 확산, 지역 의제 발굴 등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 양성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계 주기적(2~3년에 1회) 성평등교육 전문가 양성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위촉 성평등교육 활동가, 컨설턴트, 모니터링단 등 양성
 - 위촉 기간 만료 후 보수교육을 통한 재위촉

② 성평등 활동가 Grow-Up 프로그램

- 양성된 성평등교육 전문강사와 활동가의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현장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실천을 선도하는 전문 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역 성평등 확산 기반 강화
 - 전문성 강화교육 : 심화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최신 교육기법 습득, 강의스킬 향상
 - 교육 콘텐츠 제작 : AI 활용 교육자료,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
 - 스터디 운영 : 우수강의 공유, 사례 토론, 상호 피드백, 멘토링
 - 지역사회 활동 연계

□ 기대효과

- 성평등센터의 지속가능한 전문 인력 기반 확보
- 지역 성평등 활동가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전략 ⑤

성평등 미래기반 구축

⑤-3 도민 참여 '성평등 ON'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적인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숏폼 영상 등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통한 정보 습득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과 홍보를 넘어 도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소통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숏폼 영상, 해시태그 챌린지 등 디지털 콘텐츠는 세대 간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생활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평등 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참여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이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직접 실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NS 등 디지털 기반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추진 내용

○ 도민 참여 '성평등 ON' 프로젝트

- 숏폼 영상과 SNS 등을 활용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 성평등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문화 조성(성평등 ON 프로젝트는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켜고(On), 온라인(Online)을 통해 참여한다는 의미임)
- 분기별 공모 주제 선정 및 성평등 실천 미션 운영
 - 생활 속 성평등 실천에 대한 30~60초 분량의 숏폼 영상 공모
 - '우리 가족의 성평등 약속', '우리 직장의 작은 변화', '우리 동네 성평등 실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5대 실천과제', '성평등 언어 사용' 등 일상 속

실천을 주제로 챌린지 운영

- 릴레이 챌린지 :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실천을 이어가는 캠페인 운영
- 우수 참여자 선정 및 기념품 제공
- SNS 게시, 교육자료 활용 등

□ 기대효과

- 온오프라인 연계 참여형 캠페인으로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기반 마련
- 성평등 가치의 일상화와 공감대 형성
- 성평등 실천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인식 확산

유사사업 사례

성평등·존중언어 사용 챌린지

■ 광주광역시, 시 노조와 함께 '성평등·존중언어 사용 챌린지'(2020.11.)

- 공직 내부에서부터 올바르게 성평등한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챌린지를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무심코 사용하거나 듣는 성차별·성희롱 언어 찾아보기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17개 차별 언어를 선정하고 성평등·존중언어로 바꿔 사용하기 챌린지 영상을 제작함
- 영상자료는 공공기관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시 행정포털 게시, 청내 승강기 모니터 송출을 통해 전직원이 공유함

성차별·성희롱 언어	→	성평등·존중 언어
애인 있어?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안날아?	→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사생활 간섭입니다. 사적 영역의 경계를 지켜주세요.
이건 남자가 해야지! 이건 여자가 해야지!	→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남자가 껌껌하게, 쪼잔하게, 찌질하게! 여자가 애교도 없이, 무뚝뚝하고, 잘 웃지도 않고!	→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조롱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다움'의 특성을 인정해 주세요.
· · ·		· · ·

(출처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0.11.17. 광주시, '성평등·존중언어 사용 챌린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명화·김혜경·김민아·손제화·박민정(2022). 경상북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성평등가족부, 2022~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
- 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성평등가족부. 2026년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운영 안내.
- 안상수·김금미(2010). 성별 관련 조직 요인들이 조직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85~309.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23).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우양호·홍미영(2019). 공직의 성별 다양성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4), 65~94.
- 조현우·구신화·김운태(2026). 지역 커뮤니티 기반 안전맵핑 활동의 안전인식 개선 효과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2026년), 26(2), 69-79.
- 최유진·이동선·김원정·김정수·정윤마·마경화·임연규,(2021). 2020년 성평등 추진 전략사업: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김효경·장명선(2021).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체계적 운영방안과 관련법 제정 가능성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13(2), 87-13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2020.8.11.) 자료
- 〈인터넷〉
- 성평등가족부 블로그(2019.1.22.), 교육과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실질적 성평등 실
현한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448238870>
- 아시아 비즈니스 데일리, 2025.9.1.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

https://cm.asiae.co.kr/en/article/2025090109162426692?utm_source=chatgpt.com